

제주곶자왈과 문화

대표저자 : 송시태

공동저자 : 김효철, 김대신, 좌승훈

목 차

I. 제주도의 화산활동사

1. 기저현무암 분출기
2. 용암대지 형성기
3. 한라산체 형성기
4. 십이만오천년 이후의 화산활동기

II. 꽃자왈의 지질

1. 빌레용암
2. 꽃자왈용암
3. 꽃자왈용암의 성인
4. 제주도의 꽃자왈 분포
5. 옛사람들이 바라본 꽃자왈
6. 꽃자왈이란

III. 꽃자왈 식물과 생활

1. 꽃자왈과 식물
2. 농업활동과 꽃자왈
3. 어구 생산활동과 꽃자왈
4. 임업활동과 꽃자왈
 - 1) 꽃자왈 나무와 쓰임새
 - 2) 임업요
5. 꽃자왈의 식용식물
6. 주거생활과 꽃자왈

IV. 역사 속 꽃자왈

1. 옛 지도에 나타난 꽃자왈
2. 제주목축문화의 밑거름이 된 꽃자왈
 - 1) 목마장

- 2) 잣성
- 3) 우마급수장
- 3. 생명을 일군 땅, 꽃자왈
 - 1) 화전
 - 2) 수렵

V. 꽃자왈의 가치

- 1. 꽃자왈 숲의 경제적 가치
- 2. 생명수를 만드는 꽃자왈
- 3. 꽃자왈이 만들어낸 보물
 - 1) 화산활동이 만들어낸 보물
 - 2) 꽃자왈 속의 희귀식물

VI. 꽃자왈과 생활문화유산

- 1. 솟굽계
- 2. 옹기가마
- 3. 제주 4·3과 꽃자왈
- 4. 끝없는 노동이 만든 돌담

VII. 속담 속에 담긴 꽃자왈과 제주인의 삶

VIII. 꽃자왈과 제주미래

- 1. 제주바람보다 더 센 자본의 개발바람
- 2. 신음하는 꽃자왈
- 3. 꽃자왈 보전은 미래를 위한 책임

I. 제주도의 화산활동사

한반도와 일본열도사이에 위치해 있는 제주도는 약 200만년 동안에 걸쳐 수 차례의 조면암질 내지 현무암질 용암을 분출한 화산활동(火山活動)과 화산활동 휴지기(休止期)에 의해 형성되었다. <사진 1. 비자림 주변에서 바라 본 한라산의 전경> 이 과정에서 백록담을 통한 중심 화산활동과 오름을 통한 분산된 화산활동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용암류(鎔巖流)를 분출해 냈으로써 지역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종합적인 지질층서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제주도는 주로 제3기말 플라이오세로부터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 걸쳐 일어난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출된 알카리현무암인 현무암질(玄武巖質) 용암류와 화산쇄설암(火山碎屑巖)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2. 시추코어에서 회수된 현무암질 용암류와 화산쇄설암의 사진>

제주도 화산활동의 시작은 평균해수면 하부 약 120m부터 존재하는 미교결 사니층(U층 혹은 세화리층이라 불리워지고 있음)과 접촉하는 현무암부터 시작되어진다(고기원, 1997). 제주도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수차례의 빙하기가 있었으며, 빙하기 동안에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약 130m 정도 낮았던 시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여러 차례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이백만년전에 제주도 지역에 화산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질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구내부에서 마그마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하여 나오는 것은 아니다. 즉, 지하 심부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는 유리병 속에 가두어져 있는 맥주와 같이 그 마그마에 주어지는 압력(壓力)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그마는 상승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마그마가 상승하거나 분출하기 위해서는 지표면과 연결된 파쇄대(破碎帶)가 존재해야만 된다.

제주도의 화산활동사에 대한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대측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결과 절대연령측정(絶代年齡測定) 자료가 축적되고 있으며 (표 1), 제주도의 화산활동은 2.2Ma(이백이십만년) 혹은 1.7Ma(일백칠십만년)에 시작되었다고 알려 지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암석연대측정 자료, 항공사진 자료, 그리고 지표에서 확인되는 화산층서에 의해 제주도의 화산활동사는 주로 4단계로 구분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다. 제1분출기는 기저현무암(基底玄武巖) 분출기(噴出期), 제2분출기는 용암대지(鎔巖大地) 형성기(形成期), 제3분출기는 한라산체(漢拏山體) 형성기(形成期), 제4분출기는 십이만오천년(0.125Ma) 이후의 화산활동기(火山活動期)로

특징 지워진다(Lee, 1997).

1. 기저현무암(基底玄武巖) 분출기(噴出期)

제1분출기는 기저현무암 분출기로, 현재 해수면 하부에 분포하는 현무암류로부터 산방산 조면암까지를 형성했던 시기이다. 이 때에 분출된 분출물은 서귀포층, 조면질현무암과 현무암질조면안산암이다. 또한 이 시기에 응회암을 형성한 수성화성활동(水性火成活動)이 진행되었으며, 미교결사니층 상부로부터 해수면 아래 약 100m까지의 제주도 초기지형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도에 지하수를 뽑아 올리기 위하여 굴착한 시추코아 혹은 노두 상에서 감람석회석 현무암 혹은 비정질 현무암이 존재하고 있으며 미교결사니층을 덮고 있다(고기원, 1997). 이때 형성된 화산암에 대하여 포타슘-아르곤(K-Ar) 방법을 이용한 절대연령이 1.20~0.94Ma, 아르곤-아르곤(^{40}Ar - ^{39}Ar) 방법을 이용한 절대연령은 1.7~0.5Ma으로 측정되어 적어도 제주도의 화산활동은 플라이스토세 중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고기원 외, 2004).

용암류 분출시에 유동성이 컸던 현무암이 제주도의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분출하면서 최후에 점성이 높은 산방산 조면암이 분출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제1분출기 때에 제주도 남서부 지역의 단산과 용머리, 서부지역의 당산봉 등의 화산체가 형성되었다. <사진 3. 기저현무암 분출기에 형성된 당산봉의 전경>

2. 용암대지(鎔巖大地) 형성기(形成期)

제2분출기는 용암대지 형성기로, 0.6Ma~0.4Ma 즈음에 현재 해수면 주변부에 분포하는 장석감람석현무암류와 서귀포시 일대에 분포하는 조면암질안산암류 등이 분출되었던 시기이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수면 하 100m에서 해수면 위 80~100m 사이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제1분출기에 분출한 기저현무암류들과의 야외에서의 상호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제주도의 서부와 남부지역의 시추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해수면 하부 약 60~70m 부근에서 패류화석(貝類化石)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해성층(두께가 약 20m 임)이 제1분출기의 기저현무암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Yi et al., 1998). 이 퇴적암류 상부로부터 적어도 10여회 이상의 화산분출로 현재의 해수

면 상부까지를 형성한 일명 표선리현무암으로 불리는 것과 현재 제주도의 해안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용암류가 여기에 속한다. 만장굴을 만든 현무암은 이 시기에 분출하였으며, 제주도에서 빌레(Bille)라 불리워지는 지형을 만든 빌레용암(Bille Lava; 송시대, 2003)은 이 시기에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사진 4. 용암대지 형성기에 분출된 서부지역의 빌레용암>

표 1. 제주도 화산암류에 대한 절대연령(K-Ar) 측정결과(고기원 외, 2004)

연구자	측정 대상 암석	시료채취 위치	절대연령(Ma)
Won et al. (1986)	백록담 조면암	백록담 분화구	0.025 ± 0.008
	산방산 조면암	산방산	0.747 ± 0.023
	문섬 조면암	문섬	0.728 ± 0.034
	섭섬 조면암	섭섬	0.725 ± 0.038
윤상규 외 (1987)	표선리 현무암	태흥리	0.63 ± 0.03
	서귀포 조면질안산암	서귀포층 상부	0.41 ± 0.01
	현무암	병악	0.035 ± 0.01
	현무암	산방산 기슭	0.07 ± 0.04
	현무암	고산리 자구내	0.60 ± 0.13
Tamanyu (1990)	산방산 조면암	산방산	0.87 ± 0.13
	한라산 조면암		0.07 ± 0.01
	백록담 하와이아이트		0.47 ± 0.07
	한라산 하와이아이트		0.52 ± 0.03
Miyake et al. (1993)	서귀포 하와이아이트		0.55 ± 0.04
	표선리 알카리현무암		0.31 ± 0.04
	한라산 현무암	영실 상부	0.1028 ± 0.0031
	표선리 현무암	모지오름	0.0764 ± 0.0071
	비양도 현무암	비양도	0.0434 ± 0.0059
	성읍온천 시추코아	지표하300m(-150m)	0.4972 ± 0.0086
	이시돌 시추코아	지표하520m(-155m)	0.6203 ± 0.0126
		지표하338m(+30m)	0.3430 ± 0.0066
지표하226m(+142m)		0.2555 ± 0.0084	
지표하150m(+218m)		0.2618 ± 0.0087	
원종관 외 (1993)	지표하 98m(+270m)	0.1662 ± 0.0118	
	지미봉 하와이아이트		0.049 ± 0.010
	온평리 현무암		0.630 ± 0.030
이문원 외 (1994)	덕천리 현무암	만장굴 측벽	0.510 ± 0.050
	각수바위 조면암		0.917 ± 0.028
	법정리 뮤저라이트		0.618 ± 0.017
	시오름 벤모라이트		0.711 ± 0.021
	한라산 현무암		0.121 ± 0.018
군산 현무암		<0.03	
포획암(현무암)	용머리	1.20	

3. 한라산체(漢拏山體) 형성기(形成期)

제3분출기는 한라산체 형성기로, 0.3Ma~0.2Ma 동안에 제주도의 중심부인 한라산체를 형성함은 물론 해수면위 200m 이상 중산간지역의 현무암류와 한라산조면암

등을 형성한 시기이다. 제2분출기에 용암대지를 형성한 표선리현무암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이 표선리현무암 상부로부터 제주도 중산간 지대(현재 해수면 위 200~500m 지대)에 곱자왈(Gotjawal)이라 불리워지는 지대에 숲을 이루고 있는 곱자왈용암(Gotjawal Lava; 송시대, 2000)이 이 시기부터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4. 0.125Ma 이후의 화산활동기(火山活動期)

제4분출기는 0.125Ma 이후부터의 화산활동 시기로, 주로 열하분출(裂罅噴出)에 의한 지역적인 분석구들의 형성시기로 특징 지워진다. 감람석현무암, 알칼리현무암, 현무암질조면안산암, 슬레아이트질 현무암 등 다양한 조성의 용암류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한라산 사면에 분포된 각 분화구들과 이들로부터 흘러나온 용암류는 풍화와 침식을 전혀 받지 않은 신선한 노두가 보존되어 있어서, 이들의 근원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제주도의 중산간에서 해안면까지 분포하고 있는 곱자왈용암은 제3분출기부터 제4분출기에 걸쳐 용암을 흘러 보냄으로써 제주도의 곱자왈을 만들어 내었다. 이 곱자왈이 한라산에서 중산간을 거쳐 해안면까지 이어지는 제주도의 커다란 생태축을 형성함으로써 제주의 허파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4분출기 때에 제주도의 서부와 남부지역의 평탄한 저지대에서 분출활동이 활발하여 제주도 동부지역의 성산일출봉과 우도의 소머리오름, 서부지역의 송악산과 수월봉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II. 꽃자왈의 지질

제주도는 알카리현무암류에서부터 조면암류에 이르는 비교적 다양한 화산암류가 산출되는 지역이다. 제주도의 현무암질 용암류는 그 형질에 있어서 크게 빌레용암과 꽃자왈용암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빌레용암과 꽃자왈용암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빌레용암

파호이호이라는 말은 하와이 원주민의 방언으로서 “매우 잔인한”이란 뜻을 지니고 있으나 Dutton이 1884년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지질학 및 화산학의 학술용어로 쓰여지고 있다. 파호이호이 용암류는 점성이 작아 유동성이 크며, 용암류의 표면이 편평하고 매끄러우며, 새끼줄 구조(ropy structure) 등이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Macdonald, 1953, Scarth, 1994). 제주도에서 이러한 용암의 특징을 갖는 지역을 제주어로 “빌레(Bille)”라 부르고 있는바 송시태(2003)는 제주도의 현무암질 용암을 꽃자왈용암과 구분 짓기 위하여 빌레용암(Bille lava)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빌레용암은 제주도의 동·서부 지역에 매우 넓게 발달되어 있으며, 만장굴이나 빌레못동굴과 같은 용암동굴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튜물러스 지형을 만들어낸 용암이다. <사진 5. 제주도 동부지역 해안가에 발달된 튜물러스 지형>

2. 꽃자왈용암

아아(Aa)라는 용어 역시 하와이 원주민 방언에서 유래된 말로 파호이호이 용암과는 달리 점성이 커서 표면이 거칠고 상부와 하부에 1~2m 두께의 클린커층을 형성한다. 용암의 중앙부는 비교적 치밀한 용암 상태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Macdonald, 1953; Macdonald et al., 1983). 중앙부의 치밀한 용암으로부터 돌출한 용암판(lava slab)이 상부에 존재하기도 한다. 흐름의 하부에는 흐름의 위쪽전면부에서 떨어져 나온 클린커들이 밑면으로 깔림으로서 비교적 두꺼운 클린커층을 형성한다.

1)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한라산의 지형·지질, p.144~158

제주도에서 꽃자왈용암은 지형경사가 완만한 동부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용암류의 단위 두께는 평균 5~10m이고 상부와 하부에는 클린커층이 내부에는 용암판이 발달하고 있다. 기공은 크기가 크고 길쭉하게 신장된 형태를 이룬다. 윌리엄스와 맥버니(Williams and McBirney, 1979)는 아아 용암류(aa lava flow) 중에서도 주로 암괴로 이루어진 것을 암괴상 아아 용암류(aa rubble flow)라 정의한바 있다. 「암괴상 아아 용암류란 용암류 내부의 용암판과 용암판 사이의 부분이 유동 중에 각력질 암괴 크기로 파쇄되어 표면이 암설류의 양상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에서 “꽃자왈”이라 부르는 지대는 암괴상 아아 용암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꽃자왈을 구성하는 암괴상 아아 용암류란 용어 대신 「꽃자왈용암(Gotjawal Lav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송시대, 2000; 2002). 꽃자왈용암이 분포하는 지역을 꽃자왈지대라 부르고 있다.

3. 꽃자왈용암의 성인

현무암질 용암류는 형태적 특징에 따라 빌레용암과 꽃자왈용암으로 구분되어 진다. 두가지의 용암류는 별개의 독립된 용암류로 분출되기도 하지만, 빌레용암이 유동하는 과정에서 점성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꽃자왈용암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꽃자왈용암의 점성이 빌레용암의 점성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으나 초기에는 거의 같은 점성을 갖는 유체용암이기 때문에 빌레용암과 꽃자왈용암 두 가지를 전부 만 들어 낸다. 점성이 증가하는 효과 외에도, 격렬하게 용암이 뿜어져 나오거나, 급경사면을 흘러내리거나, 또는 절벽 밑으로 떨어질 때 일어나는 난류와 내부 전단력에 의하여 빌레용암이 꽃자왈용암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유로를 따라 흐르는 용암류의 표면에 각(殼)이 형성되고, 이 각이 파쇄되어 밀려가 용암류의 전선에 쌓여 꽃자왈용암을 형성한다. 준고체상태의 용암괴가 용암류의 내부에 표면의 각편(殼片)들과는 관계없이 전단력이 가장 강한 용암류의 주변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이 용암괴는 회전을 하며 크기가 증대한다. 이 용암괴들의 수가 증대하고, 유동하는 용암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준고체상태의 용암괴들은 거의 고체와 같이 행동하게 되는데, 최후로 용암류의 전이시점을 넘어서게 되어 꽃자왈용암을 형성한다(송시대, 2000). <사진 6.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꽃자왈용암과 용암괴>

4. 제주도의 꽃자왈 분포

제주도의 꽃자왈지대는 4군데 지역, 즉 제주도 서부지역의 한경-안덕꽃자왈지대와 애월꽃자왈지대, 동부지역의 조천-함덕꽃자왈지대와 구좌-성산꽃자왈지대로 나뉘어진다(송시태, 2000). 한경-안덕꽃자왈지대에는 월림-신평꽃자왈용암, 상창-화순꽃자왈용암, 애월꽃자왈지대의 납읍-원동꽃자왈용암, 조천-함덕꽃자왈지대의 조천-대흘꽃자왈용암, 함덕-와산꽃자왈용암, 선흘꽃자왈용암, 구좌-성산꽃자왈지대에는 종달-한동꽃자왈용암, 세화꽃자왈용암, 상도-하도꽃자왈용암, 수산꽃자왈용암이 있다. < 7. 꽃자왈 분포도 >

1) 한경-안덕꽃자왈지대

(1) 월림-신평꽃자왈용암

월림-신평꽃자왈용암은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에 위치한 도너리오름에서 분출되어 제주시 한림읍과 한경면을 거쳐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으로 흘러 분포하고 있다.

도너리오름의 분화과정은 지하에서 용융된 마그마가 상승하여 해발 329.6m의 도너리오름 정상에 분화구를 형성했고 이후 분기된 마그마가 분화해 말굽형 분화구를 형성한 다음 연이어 점성이 큰 꽃자왈 용암이 흘러나오면서 한림읍 금악리와 대정읍 영락리 해발 20m 지역까지 두 갈래로 나뉘어 분포하고 있다. <사진 8. 도너리오름에서 바라 본 월림-신평 꽃자왈>

도너리오름에서 영락리 방향으로 분기된 꽃자왈 용암류의 최대 연장거리는 약 12.5km, 월령리 방향으로 분기된 꽃자왈 용암도 연장거리가 11.5km에 이른다.

또 도너리오름에서부터 해발 180m 사이 지역은 꽃자왈 지대의 폭이 6.2km로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차 폭이 좁아져 대정읍 영락리 방면의 인향동에서는 0.5km에 불과하다.

(2) 상창-화순꽃자왈용암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산 2-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큰병악과 작은병악은 두개의 오름이 쌍둥이 같다는 데서 갈른오름이라 불리워 지기도 한다. 큰병악은 해발표고

가 492m이고 작은병악은 해발표고가 473m로 두개의 오름이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다. 작은병악에서 분출된 상창-화순곶자왓용암은 마치 거대한 고래의 등과 같은 지형 분포를 보이면서 안덕면 화순리 방향으로 총 9km, 평균 1.5km의 폭을 이루고 있다. <사진 9. 상창-화순곶자왓 내부의 전경>

화산암 절대연령 측정(K-Ar) 결과에 의하면 작은병악에서 분출된 상창-화순곶자왓 용암은 약 3만5000년 전에 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상창-화순곶자왓용암은 해안쪽으로 내려감에 따라 크기는 점차 감소하지만 두께는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말굽형 화구의 작은병악에서 분출된 상창-화순곶자왓용암이 서쪽으로 흐르다가 큰 병악 앞에서 남서방향으로 굽이쳐 흘렀던 모습이 현장에서 뚜렷이 관찰할 수 있다. 이 용암이 하부로 흘러내린 모습이 마치 고래등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고래등 주위에는 지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 요철(凹凸)지형을 이루고 있다.

2) 애월곶자왓지대

(1) 납읍-원동곶자왓용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지표면을 향해 상승할 때 압력이 감소되는데, 마그마 속의 가스는 마치 탄산음료의 병뚜껑이 열리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에 의해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원리와 마찬가지로 노꼬메오름(큰오름이라고도 불리워짐, 해발 833.8m)은 마그마로부터 가스가 빠져나가 화산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 화산폭발이 일어났을 때, 분석과 화산탄들이 쌓여 커다란 원형의 분화구를 가진 오름이 형성되었다. 분화구를 만들어낸 스트롬볼리언 분출의 마지막 단계에서 원형분화구 내부에 쌓인 용암은 용암풀(lava pool)을 형성하였다.

용암풀을 형성했던 용암이 납읍-원동곶자왓용암이다. 납읍-원동곶자왓용암은 원형의 노꼬메오름 분화구 북쪽 외륜을 파괴시켜 말굽형 분화구를 만들면서 해발 90m의 애월읍 납읍리와 원동지역까지 총 9.0km에 걸쳐 분포하였다. <사진 10. 겨울철 납읍-원동 곶자왓 내부의 전경>

이 곶자왓용암은 지형경사가 비교적 급한 노꼬메오름 주변에서는 폭이 협소하지만, 지형경사가 완만한 해발 200~300m 사이의 지역에서는 폭이 3.2km로서 최대를 나타내고 있다.

납읍-원동곶자왈용암은 해발 150~300m 구간에서 상부 클린커층의 두께가 비교적 두꺼운 경향을 보이는 반면, 곶자왈용암의 시작지점인 노꼬메오름 부근에서는 얇아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 곶자왈용암의 분포 폭의 변화와도 비교적 일치하는 것이다. 즉, 곶자왈용암의 폭이 넓은 지역일수록 상부 클린커층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는 반면, 폭이 좁은 지역에서는 얇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납읍-원동곶자왈용암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주로 회색을 띤 다공질(多孔質)의 장석휘석감람석현무암(Feldspr Augite Olivine Basalt)이다. 아울러, 고지대에서 해안쪽으로 향하면서 암괴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작아질 뿐만 아니라, 암괴 사이에 포함된 미세력(微細礫)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3) 조천-함덕 곶자왈지대

(1) 조천-대흘곶자왈용암

조천-대흘곶자왈용암은 해발 500m에 위치한 민오름 주변에서 유출되어 큰지그리오름, 작은지그리오름과 바농오름 주변을 거쳐 조천읍 조천리 해발 20m 부근까지 평균 2.3~4km의 폭으로 총 연장 11km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 곶자왈용암이 시작되는 민오름 주변에는 5개의 분석구들이 분포되어 있다.

조천-대흘곶자왈용암을 이루는 암괴의 크기는 북쪽 해안변으로 내려오면서 감소하는 반면, 암괴 사이에 포함된 세립질(細粒質) 물질의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조천-대흘곶자왈용암은 주로 암회색을 띠고 있으며, 1.0~5.0mm 크기의 장석 반정이 0.2~1.5% 정도 산출된다. 또 0.1~2.0mm의 크기의 감람석 반정이 1.0%, 1~5mm 크기의 휘석 반정도 1~3% 함유돼 있는 다공질의 휘석장석현무암(Augite Feldspar Basalt)이다.

조천-대흘 곶자왈용암이 분포하는 해발 330m 지점에서 지표 하 1m까지의 구간은 대략 크기의 암괴로 이뤄진 클린커층으로 형성돼 있으며, 그 하부 약 0.5m 구간은 수직절리가 발달한 다공질의 용암으로 이뤄져 있다.

용암의 하부에는 중력 크기의 암괴로 이뤄진 클린커층이 0.5m 두께로 분포하고 있다. 다만 대흘초등학교 주변에는 클린커층이 2m의 두께로 분포하고 있는데, 동부관광도로 주변과 조천리에서는 중앙부의 용암판(鎔巖版)은 나타나지 않고 중·소력 크

기의 암괴로 이뤄진 모습도 관찰된다.

(2) 함덕-와산곶자왈용암

함덕-와산곶자왈용암은 돛배오름의 북측 해발 486m 부근에서 유출되어 조천읍 함덕리 소재 함덕해수욕장까지 평균 2~3km의 폭으로 총 연장 12km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함덕-와산곶자왈용암은 주로 암회색을 띠며, 흰색의 장석 반정과 검은색의 휘석 반정, 그리고 노란색 줍쌀과 같은 감람석 반정이 소량 포함된 다공질(多孔質)의 장석 휘석현무암(Feldspar Augite Basalt)이다.

해발 200~300m 사이 지역에서 지표 하 1~3m 구간은 중력 크기의 클린커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 하부 약 1m 구간은 수직절리가 발달한 다공질의 용암으로 이뤄져 있다. 해발 300m 이하에 위치한 지점에는 중앙부에 용암은 나타나지 않고 암괴의 크기가 중·소력으로 작아질 뿐만 아니라, 상부 클린커의 두께는 증가하고 있다.

조천가압장은 점성이 높아 끈적끈적한 아아 용암에 발달하는 특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눈사람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같이 고체상태의 파편이 구르면서 고결되지 않은 용암을 반복해서 부착시킴으로써 내부에 나이테 모양의 테두리 구조가 발달된 구조와 용암판들이 밀려 내려올 때 용암판과 용암판의 마찰에 의한 멧돌(millstone) 작용으로 형성된 2mm 이하 크기의 미세력(微細礫)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 곶자왈 용암의 말단부인 함덕해수욕장 입구에서는 곶자왈용암의 두께가 12m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괴 사이에는 세립질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아아 용암류의 원거리형에 해당된다.

(3) 선흘곶자왈용암

선흘곶자왈용암은 해발 340m에 위치한 서검은이오름에서 분출되어 조천읍 선흘리에 위치한 알밤오름과 북오름 사이를 지나 해발 80~100m 부근에 있는 동백동산이 있는 선흘곶까지 연속되어 분포되어 있다. <사진 11. 선흘곶자왈 내부에 쌓아놓은 암괴>

선흘곶자왈용암은 주로 암회색을 띠며, 미립질의 장석 반정은 드물게 산출되고, 0.5~2.0mm 크기의 감람석 반정이 1.0%, 0.2~2mm(최대 4mm) 크기의 휘석 반정이 1% 정도 함유되어 있는 다공질의 휘석장석현무암(Augite Feldspar Basalt)이다.

선홍곶자왓용암의 거리에 따른 두께 변화를 보면, 서검은이오름에서 해발 250m 까지는 평균 3m의 두께를 보이거나 말단부인 해발 110m 지역에서는 두께가 1~2m로 다소 얇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말발굽 형태의 서검은이오름 분화구 주변의 곶자왓용암은 용암이 흘러간 중심부가 계곡을 이루면서 계곡 주위에 크기가 1m 이상의 블록이 분포하고 있으나 분화구에서 2.5km 이상 흘러내려오면서 암괴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 중력(64~256mm)과 대력(256mm 이상) 크기의 암괴들이 마치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흘러내려 온 것처럼 크고 작은 언덕 지형을 형성하면서 분포하고 있다.

또한 알밤오름 남동쪽에는 점성이 낮아 뱅뒤굴을 만들어낸 빌레용암 상부를 서검은이오름에서 분출된 곶자왓용암이 피복하면서 높은 언덕지형을 이루고 있어 지사 해석의 기본 원리인 ‘지층 누층의 법칙’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4) 구좌-성산곶자왓지대

(1) 종달-한동곶자왓용암

종달-한동곶자왓용암은 구좌읍 종달리 해발 225m에 위치한 동거문이오름(해발 340m)에서 분출되어 구좌읍 한동리 방향 해발 30m의 해안저지대까지 총 연장 11km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이 곶자왓용암이 바로 종달-한동곶자왓용암이다. 종달-한동곶자왓용암은 돛오름과 둔지봉의 분석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스킨리아 퇴적층에 의해 부분적으로 단절되거나 분포 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곶자왓용암은 높은오름과 다량쉬오름 사이 지역에서 최대의 분포 폭을 나타내지만 해안쪽으로 내려오면서 분석구에서 흘러내린 스킨리아 퇴적층의 영향에 의해 분포 폭의 변화가 비교적 심한 편이다.

종달-한동곶자왓용암은 주로 암회색을 띠는 다공질의 휘석감람석현무암이다.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0.1~1mm 크기의 휘석반정이 1.0% 정도 산출되며, 0.2~0.5mm의 크기를 갖는 감람석 반정도 2.0~3.0% 산출된다.

이 곶자왓용암의 거리에 따른 두께 변화를 보면, 해발 100m 지점에 위치한 둔지봉까지는 두께가 1.0~1.5m를 나타내고, 해발 100~30m 사이에는 2m로서 거리에 따른 현저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해발 30m이하 지역인 경우, 중력과 소력 사이에 2mm 이하 크기의 미세력을 다량 함유하며 무질서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용암류의 말단부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달-한동곶자왈용암이 시작되는 동거문이오름에서 약 0.9km 떨어진 지점의 수직단면(두께 2.5m)에서는 상부에 아각형 내지 아원형의 대력과 중력이 용암판과 함께 분포하고 있으며, 그 하부는 약 0.5m 크기의 중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둔지봉 동쪽의 수직단면에서는 상부에 대력이 분포하지만 하부에는 중력과 소력이 2mm 크기 이하의 미세력을 함유한 상태로 분포하고 있어 거리에 따른 각력의 크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 세화곶자왈용암

세화곶자왈용암은 해발 382m인 다랑쉬오름에서 시작되어 구좌읍 세화리의 해발 20m 지점까지 4.7km 거리를 이동하면서 분포하고 있는데, 말단부 쪽에서 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화곶자왈용암은 주로 회색을 띤 다공질의 침상장석감람석현무암(AFOB; Acicular Feldspar Olivine Basalt)로 구성되어 있다.

월랑봉 북쪽 해발 50m 지점까지는 1~2m의 두께를 나타내나, 해발 50m 이하 지역에서는 2~3m로 두꺼워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월랑봉에서 0.9km 떨어진 지점의 수직단면에서는 대력과 중력으로 이루어진 클린 커층이 지표하 1m 두께로 분포하고, 그 하부는 약 1m 두께의 다공질 용암이 존재하며, 하부 클린커층은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월랑봉에서부터 약 3.2km 떨어진 지점에서는 중·소력 크기의 각력층이 2.5m 이상의 두께로 분포하고 있다.

(3) 상도-하도곶자왈용암

상도-하도곶자왈용암은 해발 159.2m에 위치한 용눈이오름에서 분출되어 구좌읍 하도리 지미봉 근처까지 분포하고 있다. 이 곶자왈용암의 총 연장거리는 용눈이오름을 중심으로 월랑봉, 은월봉, 손자봉 등에서 분출된 스킨리아 퇴적층에 의해 많은 부분이 피복되어 있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야외에서 측정 가능한 거리는 5.6km이며, 이 곶자왈용암은 해안 쪽으로 가면서 약간 사행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상도-하도곶자왈용암은 주로 암회색을 띤 다공질의 장석휘석감람석현무암이다. 이 암석은 육안 관찰에 의하면, 2~3mm 크기(최대 4mm)의 장석 반정이 극소량 산출되고

0.2~0.5mm(최대 4.0mm) 크기의 감람석 반정이 3.0~5.0%, 0.5~1mm 크기의 휘석 반정이 1% 함유되어 있다.

이 곳자왈용암의 거리에 따른 두께 변화를 보면, 용눈이오름 북쪽 해발 50m 지점까지는 1.5~2.5m의 두께를 나타내는 반면, 해발 50m 이하 지역에서는 2~3m의 두께를 보여 거리에 따른 두께 변화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말단부 지역이 두꺼운 편이다.

주요 지점별 특징을 살펴보면, 용눈이오름에서 북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지점의 수직단면에서는 매우 각이진 대력으로 이루어진 클린커층이 지표면 아래로 1.5m까지 분포하고, 멀세운동산의 중간 지점과 말단부에서는 1.5~2.5m 두께에 대·중·소력이 무질서하게 혼합된 상태로 배열돼 있다. 특히 명범사에서 동쪽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지점에는 중·소력 크기의 각력층이 3m의 두께로 2mm 크기 이하의 미세력을 다량 함유한 상태로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상도-하도곳자왈용암은 곳자왈용암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해안쪽으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말단부에서 각력층의 두께가 다소 두꺼워지는 경향은 있으나 암괴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4) 수산곳자왈용암

수산곳자왈용암은 해발 약 225m 지점에 위치한 백약이오름(해발 356.9m)에서 시작되어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마을 서쪽 해발 약 50m 지점까지 총 5.5km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이 곳자왈용암은 분포 폭이 1km 미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의 곳자왈용암 중에서 가장 폭이 좁은 곳자왈용암에 해당한다.

수산곳자왈용암은 회색에서 암회색을 띤 휘석감람석현무암(Augite Olivine Basalt)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안 관찰에 의하면, 2mm(최대 2.5mm) 크기의 휘석 반정이 매우 드물게 산출되며, 감람석 반정은 1% 정도이다. 전반적으로 이 암석은 다공질이며, 궁대악 인근 지역에서는 용암의 표면에서 새끼줄 구조와 튜물러스 구조가 관찰된다.

수산곳자왈용암은 다른 곳자왈용암들과는 달리, 거리에 따른 두께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각력의 크기와 내부조직에서는 비교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백약이오름 직하부에서는 기질이 없이 매우 각이진 대력과 중력이 엉성하게 쌓여 있으며, 해발 100m 이하 지역에서는 중력과 소력이 2mm 이하 크기의 미세력(fine

materials)을 함유한 상태로 분포하고 있다.

수산곶자왈용암은 슬래비-클린커성 조직(slabby-clinkery texture)을 갖는 곶자왈용암으로서 곶자왈용암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약 1km 지점까지는 용암관과 클린커가 혼재하며 분포하고 있고 이후에는 클린커-블록성 조직으로 바뀐다.

5. 옛사람들이 바라본 곶자왈

옛 사람들이 곶자왈에 대하여 불리워져 왔던 지명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불리워지는 지명이 있는가 하면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다.

곶자왈에 대한 표현을 살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는 수풀이 우거진 곳을 고지, 한림에서는 수풀이 우거진 들을 골밭, 노형에서는 자연생 나무가 우거진 밭을 곶밭,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는 산 밑에 숲이 우거진 곳을 곶, 노형에서는 산속의 숲으로 덮인 곳을 곶산, 서흥·표선·어도·조천에서는 나무와 덩굴 따위가 엉클어진 곳을 숨벌, 태흥·수산·세화에서는 나무와 덩굴 따위가 엉클어진 곳을 섬벌,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는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서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자왈, 인성에서는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서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자왈, 한림에서는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곶자왈이라 불렀다. <사진 12. 곶자왈 내부 암괴를 감싸면서 뿌리를 내려 형성된 숲>

이처럼 옛 사람들이 곶자왈을 고지, 골밭, 곶, 곶산, 숨벌, 섬벌, 자왈, 자왈 그리고 곶자왈로 불리게 된 것은 제주도에서도 지방마다 방언이 다르고 마을과 마을 사이를 서로 왕래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숲이 독특하고 삶의 터전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숙종28년(1702년) 6월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1653~1733) 목사의 탐라순력도에 표현된 큰 숲(藪; 곶)이라 적혀 있는 지역은 현재의 곶자왈 분포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큰 숲은 묘평(猫坪), 김녕(金寧), 점목(黏木; 제주 서남 60리), 개사(蓋沙; 제주 서 70리), 암수(暗藪; 제주 동남 95리), 목교(木橋; 정의 동 17리), 대수(大藪; 정의 남 4리), 소근(所近; 대정 서 26리), 판교(板橋; 대정 서 5리), 나수(螺藪; 대정 동 10리)등이 있다. <사진 13. 탐라순력도 한라장측에 나타난 곶자왈>

옛 지도를 보더라도 서우봉에서 함덕리 서쪽을 끼고 바메기오름을 거쳐 검은오름과 바농오름에 이르기까지 모두 藪(수) 또는 花(화)로 표기했다. 이들은 수풀의 뜻을 가진 ‘꽃’의 차자표기이다. 藪(수)는 ‘꽃’ 또는 ‘술’의 훈독자로 숲을 뜻하는 말이라 하였다(오창명, 2000). 그 사이에는 ‘맞가리꽃’, ‘우진꽃’, ‘닥남꽃’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동쪽에는 ‘김녕꽃’을 확인할 수 있다. ‘맞가리꽃’은 조천읍 북촌리 위쪽에 있었던 수풀로, 옛 지도에 末叱加里藪(맞가리꽃)으로 표기되었다. ‘우진꽃’은 조천읍에 있는 우진제비오름과 우진동 아래쪽에 형성되었던 수풀로, 옛지도에는 芋長藪(우진꽃)·芋藪(우진꽃)등으로 표기 되었다. ‘닥남꽃’은 조천읍 세미오름 위쪽에 형성되었던 수풀로, 옛 지도엔 楮木藪(닥남꽃)로 표기 되었다. ‘김녕꽃’ 동쪽에는 ‘괘꽃’(구좌읍 한동리)이 있었는데, 猫藪(묘수)로 표기했다. 제주목과 정의현 경계에 ‘마메기꽃’과 ‘주구물꽃’ 등이 있었다. 구좌읍 종달리 ‘분토왓’일대는 ‘마메기꽃’이 있었는데, 옛 지도에 余尔藪·尔馬藪(마메기꽃)로 표기되었다. 세미오름 동쪽에는 ‘주구물꽃’이 있었는데, 옛 지도에 注九勿藪(주구물수)로 표기되었다.

6. 꽃자왈에 대한 정의

제주도의 동·서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꽃자왈(Gotjawal)’은 제주어사전(제주도, 1995)에는 주로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이라 정의되어 있어 인문·사회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송시태(2000)는 지질학적 의미로 “화산분출시 점성이 높은 용암이 분출되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어져 언덕지형이나 함몰지형과 같이 요철지형을 이루며 쌓여있는 곳”이라 정의한바 있다. 또한 생태학적으로는 “제주도 용암지대에 분포하는 국내 유일의 독특한 숲”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꽃자왈을 지형·지질학적인 요소와 생태학적인 요소를 적용하여 새로운 정의를 내린다면 “화산분출시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분출되어 요철(凹凸)지형을 이루며 쌓여있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지역이며, 보온·보습효과를 일으켜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이다. <사진 14. 꽃자왈 숲 내부 전경>

Ⅲ. 꽃자왈 식물과 생활

꽃자왈지대는 해안 저지대에서부터 중산간의 수려한 오름군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농·어업뿐만 아니라 목축, 임업 등 과거 제주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영역에 해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꽃자왈 특유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독특한 꽃자왈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독특한 꽃자왈 문화는 그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꽃자왈 문화는 단순하게 숲과 그 속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들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순응하고 삶의 여러 방식을 접목시켜 형성된 것으로 우리들 생활속에 깊게 반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거친 토양을 개간하고 노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기 위하여 꽃자왈의 다양한 수목들이 이용되었는데, 생활도구뿐만 아니라 농업과 어업을 위한 기본재료인 각종 농·어구 대부분이 꽃자왈 지역의 나무들에서 탄생한 것으로 오랜 세월 나무의 성질을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온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계절별로 여러 종류의 산채와 약초 등의 부산물은 식탁과 고단한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고 뿔감과 숲의 주된 공급원으로 삶을 그나마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당오백, 절오백으로 불리는 제주는 마을의 안녕과 가족의 평온, 농작물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토속신의 공간도 거목이나 숲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꽃자왈 숲과 나무는 숭배의 대상과 정신적 휴양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꽃자왈 숲은 지역 및 주변 여건 등에 따라 방목과 임업을 위한 집중적인 이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자원의 수확과 보존을 위한 대상이 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숭배와 존경의 대상으로 격상되기도 하면서 제주만의 독특한 꽃자왈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꽃자왈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라 할 수 있다. 자연환경에 있어 제주도만의 독특한 공간이며 식물의 보고인 제주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으며 오랜 세월 간과되어온 부분이지만 제주의 생명수를 잉태하는 공간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주 사람만의 지혜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해준 공간이며, 제주사의 여러 정황들을 반영하며 피눈물이 서린 항쟁의 땅도 된다. 오늘날 물질문명의 발달로 많은 부분들이 간과되어 단절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점차 자연보존의 정서가 확대되고 휴양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꽃자왈은 독특한 제주만의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또 다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

1. 꽃자왈과 식물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아열대에서 아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식생대가 형성되어 있어 2,000 종류가 넘는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은 대륙으로부터 남하한 식물군, 중국, 제주도, 일본에 걸쳐서 대상으로 분포하는 식물군, 열대, 아열대 기원의 식물, 제주도와 타이완, 일본에서 분화한 식물군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섬의 중앙에 한라산이 있고 368개의 오름과 꽃자왈, 습지, 하천, 부속도서 등 다양한 서식처가 있어 면적에 비하여 많은 종이 분포하게 된 것이다.

이중 화산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꽃자왈지대는 수직적으로 해발 20m에서부터 800여m까지 분포하며, 수평적으로는 대부분이 섬의 동·서부지역 해발 600m 이하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한라산의 식생대로 보면 낙엽수림대에서 상록활엽수림대에 이르는 지역으로 인접지역이 경작지역이나 방목지역, 초지대 등과 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꽃자왈지대는 크고 작은 암괴들로 이루어진 독특한 기반지형과 오름에서 시작되는 여러 형태의 고유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태축으로 해안지역에서 중산간 및 한라산의 고산지역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그나마 하천이 발달한 서귀포시 지역과는 달리 수계의 발달이 미약한 제주시의 동·서지역에서는 꽃자왈이 해안과 한라산으로 이어주는 생태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꽃자왈의 지형은 요철(凹凸)이 심하고 급격하게 함몰되거나 용암돔처럼 돌출되기도 하며 작은 함몰지가 미로처럼 이어지면서 좁은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미기후가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숲과는 매우 다른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특이하게 남방한계 식물과 북방한계 식물이 공존할 수 있고, 희귀식물의 종류도 많으며, 꽃자왈에만 분포하는 종류와 다양한 양치식물이 서식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곳자왈의 식물분포는 500여 종류가 넘고 있으며 특히 양치식물의 보고로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양치식물자원의 70% 이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에야 알려진 미기록식물인 빌레나무(천량금)와 같은 아열대성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암고사리, 제주고사리삼, 창일엽, 큰우단일엽 등 곳자왈에만 분포하는 식물들도 다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주 고유식물(특산식물)이 백록담을 중심으로 한 고산지대에만 한정되고 있지만 곳자왈은 특유의 지질구조로 인해 제주고사리삼, 가시딸기 등의 특산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개가시나무, 순채, 물부추, 으름난초, 제주고사리삼 등 국가에서 지정 및 관리하는 멸종위기야생식물도 다수가 분포하고 있다. <사진 40. 요철지형을 이루고 있는 암괴들의 모습>

현존하는 곳자왈지대의 숲은 오랜 세월 벌채와 화입, 개간 등 반복적인 인간의 간섭에 의해 형성된 형태로 흔히 잡목림이나 2차림 등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점차 연료의 종류가 바뀌고 산림보호 및 자연보호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면서 원시림과 같은 형태로 천이가 진행되고 진정한 의미의 숲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식물생태학적으로 곳자왈에서 우점하는 목본식물을 가지고 식생을 구분해보면 크게 증가시나무 맹아림(해발 20~200m)과 때죽나무 맹아림(해발 400~800m)으로 나누어지며 해발 200~400m에서는 증가시나무 맹아림과 때죽나무 맹아림이 혼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생의 차이는 곧 지역별로 수목의 이용면이나 선호도면에 차이를 나타내고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곳자왈 숲은 인위적인 간섭과 지형·지질의 영향으로 섬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숲 가장자리로 임연군락(林緣群落)이 발달한다. 임연군락은 흔히 숲의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식물군락으로 복분자, 산딸기, 꾸지뽕나무, 실거리나무, 쫄레, 초피나무 등 가시를 가지는 나무들과 땃땃이덩굴, 으름덩굴, 환삼덩굴 등 덩굴성 식물이 많이 분포하여 사람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며 곳자왈 식물종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

2. 농업활동과 곳자왈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지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경작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가 얇고 비옥한 토지가 부족하며 강수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편이지만 금방 빗

물이 스며들어 버리는 토양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농업의 주는 곡류생산이 우선이었는데, 까칠까칠한 걸보리는 제주의 주요 작물로서 제주도민의 주요 식량이었고, 특히 조는 1960년대까지 맥류 다음으로 중요한 작물이었다. 그리고 메밀(모물)은 생육기간이 짧고 서늘한 기후에 알맞고 흡비력이 강하며 병충해도 적은 유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971년까지 많이 재배되었으며, 그 외로 산티(발벼), 고구마, 대두(大豆) 등의 작물이 재배되어 밭농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곶자왈 주변뿐만 아니라 제주도 대부분의 토양은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표토층은 암반이 깔려 있으며 토질이 척박하고 크고 작은 돌맹이가 깔려 있어 경작여건으로는 매우 열악한 편이다. <사진 41. 화산활동으로 인해 경작여건이 열악한 제주의 토지>

제주도의 농업과 관련 속담에는 ‘밭검질 이틀 매민, 논 검질 하루민 맨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밭농사가 논농사보다 고되고 인력이 더 소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밭일의 고단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농업형태와 토양특성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지혜로운 여러 가지 결과물인 독특한 도구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제주에서 사용되어 왔던 농구들은 가공이 쉽고 재질이 튼튼한 나무들을 많이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과거 농구제작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나무로는 자귀나무(자귀낭), 구실잣밤나무(즈배낭, 즈배낭, 즈밤낭), 가시나무류(가시낭), 참나무류(소리낭, 참낭) 솔비나무(솔피낭), 조록나무(조록이, 조롱낭, 조례기낭), 느티나무(굴무기, 느끼낭, 니끼낭)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질이 단단하며 무겁고 질긴 성질을 가진 목재들을 이용하였는데, 이들 나무들은 대부분이 곶자왈내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수종들이라 할 수 있다(표 2).

제주도에서 사용해 왔던 주요 농기구와 제작재료를 살펴보면, 땅 속의 돌 같은 것을 파서 일으키는데 사용하는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진 연장인 ‘벤줄레’는 무겁고 질긴 종류의 나무인 자귀나무, 구실잣밤나무, 가시나무류 그리고 솔비나무를 사용하여 중력을 이용하여 땅을 쉽게 파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부러지지 않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경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곶자왈 인근지역도 많이 개간되었는데, 이러한 토지의 개간에는 ‘따비’(쌍따비, 웨따비)를 이용한 밭갈이가 행해지며 돌맹이를 캐내기 위한 웨따비(벤줄레) 등의 도구가 이용되었다. 이러한 따비종류는 구실잣밤나무나

가시나무류 등 무겁고 질긴 나무로 만들어지며 내륙의 것과는 달리 따비 날의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적이다. 따비 날의 길이가 내륙의 것 보다 짧은 이유는 토심이 매우 얇기 때문에 길어야 할 이유도 없었지만 자갈밭에서 쉽게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개간되어 토질이 열악한 곳에는 조의 한품종인 마시리 같은 작물이 재배되기도 하였다.

흙을 파헤치는 도구인 ‘괭이’자루는 무겁고 질긴 나무인 참나무, 아카시아나무 그리고 죽낭을 이용하였다. 또한 흙을 파서 헤치고 던지는 나무로 만든 가래인 ‘낭갈래죽’은 무거운 종류의 나무인 자귀낭, 자배낭, 가시낭과 소리낭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제주의 농기구 중 제주의 풍토를 잘 반영한 것 중 하나가 ‘밭블리기’ 라는 것이 있는데 어렵게 파종한 종자가 비나 바람에 쓸려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밭을 단단하게 밟아 주는 농경활동이다. 이때 사용되는 농기구로 ‘섬비(섬피)’와 ‘남테’ 그리고 ‘돌테’가 있다. 섬비(섬피)는 길쭉 길쭉한 잎나무를 수없이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고 씨를 뿌린뒤 밭이랑을 고르는데 쓰는 농구로 기본적으로 잔가지가 많고 흙이나 이물질이 잘 달라붙지 않는 소재인 팽팡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남테’는 나무로 만든 테이고 ‘돌테’는 돌로 만든 것으로 ‘남테’와는 달리 ‘밭굽(굽)’이 없는 것이 다르다. ‘남테’는 일반적으로 자귀나무, 구실잣밤나무, 팽나무 등 목질이 아주 질긴 나무로 만들었으며, ‘밭굽’은 참가시나무나 솔비나무로 만들었다. 밭의 흩덩어리를 깨뜨리는데 사용했던 농기구인 곰배는 쉽게 터지거나 벌어지지 않는 종류의 나무인 죽낭이나 가시낭을 사용하였다.

농기구 중 나무의 이용 면에서 가장 집약적인 도구 중 하나는 밭을 일굴 때 사용하는 ‘쟁기’라고 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부르는 명칭과 재료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매우 다양한 수목재료들의 집합체이다. 쟁기제작을 위하여 쓰이는 재료를 보면 ‘성애’와 ‘설칫’의 재료는 가시낭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양주머리는 성질이 무르지 않고 구멍을 뚫어 놓아도 수축이 덜 되는 팽나무와 솔비나무(솔피낭)를 사용하였고, 힘을 많이 받는 무클(몽클, 뭉클)은 자귀나무나 솔비나무를 주로 이용하였다. 솜비줄(한줄, 줄래, 줄대)은 솔비나무를 으깨어 만든 줄을 최고로 쳐주지만 명줄도 이용되었으며, 제주도 쟁기의 특징 중 하나인 ‘등퀘(한테)’는 억새의 속잎인 미를 사용하였다. <사진 42. 지게위에 놓여 있는 쟁기의 모습>

또한 소의 목에 얹혀지는 ‘명애’는 버드나무, 황칠나무, 오동나무 등 쉽게 휘면서도

목질이 단단한 수종으로 만들었으며, '접계(줍계)'는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재질의 상동나무(삼동낭)나 윤노리나무(윤유리낭)를 이용하였는데,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황칠나무(황칠낭, 담배통낭)로 만든 명에와 상동나무로 만든 줍계를 최고로 쳤다고 한다. 고삐라 할 수 있는 '가린석코(부림패코, 뱃바드랭이, 가리석)'는 한번 휘어지면 고정되어지는 성질을 가진 윤노리나무를 주로 썼다고 한다. 쟁기 몸체에 벗을 고정시킬 때 묶는 볼인 '벧줄'은 꽃자왈에 많이 서식하는 으름덩굴의 줄기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또한, 콩, 메밀, 보리 그리고 팥 등의 곡식을 수확한 다음 탈곡할 때 사용하는 '도깨'는 구실잣밤나무, 음나무 그리고 솔비나무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도깨의 아들과 툄레부분은 윤노리나무(윤유리낭, 윤누리낭)를 이용하였다.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작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인 '솔박'은 자베낭, 엄낭과 솔피낭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곡식을 굽어 모으거나 퍼는데 쓰는 'T'자 형의 연장인 '당그네(고무래)'는 자귀낭과 가시낭을 주로 이용하여 만들었다.

척박한 토양을 개간하고 경작하기 위한 제주만의 독특한 밭농사 도구들이 만들어져 왔는데, 날 부분이 좁아지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굴갱이(호미)' 역시 제주 토양의 특성에 맞게끔 고안된 농기구 중 하나로 육지부의 그것과는 달리 날의 폭이 좁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좁은 날로 인해 돌틈의 잡초를 제거하고 작물을 식재하기에 매우 유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도 제주에서는 가장 애용되고 있는 농기구라고 할 수 있다. 굴갱이 자루로 사용된 나무는 가볍고 속심이 있는 해송을 주로 이용하여 왔다.

표 2 주요 농기구와 제작재료

기구명	제작 재료	특성	
벤줄레	자귀나무, 구실잣밤나무, 가시나무류, 솔비나무	무겁고 질긴 종류를 사용	
따비	자귀나무, 구실잣밤나무, 가시나무류, 참나무류, 솔비나무	무겁고 질긴 종류를 사용	
팽이	참나무 아카시나무, 죽나무	미리 베어 두었다가 건조후 사용	
낭갈래죽	자귀나무, 자배나무, 참나무인 가시나무, 소리나무	재료는 무거운 종류를 사용	
섬비	황팽나무(황나무)	기본적으로 잔가지가 많고 흙이나 이물질이 잘 묻지 않는 소재	
남테, 들테	자귀나무, 자배나무, 가시나무	몸통부분은 팽나무·가시나무를 주로 사용	
골채	매죽나무	가시나무도 사용	
곰배	죽나무, 가시나무	대체로 터지거나 벌어지지 않는 종류를 사용	
쟁기	성애	가시나무	
	설칫	가시나무	
	양주머리	솔피나무, 팽나무	
	무클	자귀나무, 솔피나무	몽클, 멩클
	숨비줄	명줄, 솔피나무	한줄, 줄래, 줄대
	등퀴(한테)	미	
	버흐레	황경피나무	물주리막대, 습기에 강한 나무
	명애	오동나무, 버드나무, 머귀나무, 황칠나무	명애나무,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의 나무
	줍게	윤노리나무, 상동나무	적퀴, 줍게, 적퀴
	줍게친	말총	적퀴친
	가린석코	윤노리나무, 미	가리석, 썩, 가리, 부림패코, 벳바드랭이
	벳줄	으름덩굴	
쇠스랑	죽나무, 참나무	가볍고 단단한 소재를 사용	
도깨	구실잣밤나무, 음나무, 솔비나무	도깨아들과 툴레는 윤노리나무를 이용	
클	자귀나무, 자배나무, 가시나무		
솔박	자배나무, 엄나무, 솔피나무	배 모양처럼 가공후 사용	
마깨	가시나무, 동백나무	단단한 재료를 사용	
당그네	자귀나무, 자배나무, 가시나무		
꺾쟁이주걱	해송	가볍고 속심이 있는 재료	

제주 농기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주로 발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곡식을 탈곡 및 도정하는 도구가 한반도의 것들보다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모에 적합한 나무들은 대부분이 꽃자왈 지역에서 공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적인 도정 도구인 들방에의 상장틀, 틀목의 재료는 무겁고 질긴 자귀낭, 자배낭, 가시낭 등을 구해서 사용했고 남방에 재료는 단단하고 나무결이 좋은 느티나무를 최고로 쳤으나 벗나무, 가시나무 그리고 구실잣밤나무 등도 함께 사용했다(표 3). <사진 43.

제주도의 대표적인 도정도구인 남방에>

‘두립(두릐)’은 굵다란 구실잣밤나무나 팽나무 속이 저절로 썩어서 텅 비어버린 것을 주워다 잘 다듬어 낸 후 밑으로 나무 조각을 깎아 끼워 고정시켜 말판을 만들고 솔뚜껑 모양으로 뚜껑을 만들어 씌워 저장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뒤주’는 무겁고 질긴 재료로 되어 있는 자귀낭과 자배낭 혹은 가시낭 속을 잘 다듬어 낸 후 밑으로 나무 조각을 깎아 끼워 고정시켜 말판을 만들어 곡식 보관용기로 사용하였다.

‘도고리’는 느티나무, 벗나무, 가시나무 등의 통나무 밑등을 옆으로 켜고 원형으로 만든 후 속을 파내어 사용하였으며 종자를 보관하는 도구인 ‘씨부게’는 산티나 미를 엮어서 사용하였다.

제주도의 체들 중에 바닥인 쳇불의 구멍이 가장 큰 것으로 쳇바퀴가 없이 조릿대로 비스듬히 정사각형이 되게 둘레를 만들어서 메밀이나 콩 등을 탈곡하고 처음으로 그 낱을 쳐내 버릴 때 쓰이는 ‘얼맹이’의 이음 부위는 상동나무를 이용하여 만든다.

또한 ‘연자매’는 제주도의 주곡이 조와 보리 등 잡곡인 관계로 그 활용도 매우 높은 농기구의 하나로 마을마다 비교적 흔하게 설치되어 이용되어왔다. 1974년도 표본조사에 의하면 당시 농촌에는 평균 29가구당 연자매가 하나씩 설치되었고 마을마다 100~150m 사이에 연자매간이 들어서 있었다고 하는데, 연자매의 제작을 위해 상당수의 꽃자왈 수목들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도정 및 계량기구와 제작재료

기구명	제작 재료	비고
도량형기구	자귀나무, 구실잣밤나무, 가시나무류	귀말, 되 반형 등
총채	자귀나무	켓망, 어움
남방에	느티나무, 벗나무, 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나 가시나무류도 사용
들 방에	자귀낭, 자배낭, 가시낭	무겁고 질긴 재료를 사용
두립(두릐)	구실잣밤나무	간혹 팽나무도 사용
뒤주	자귀낭, 자배낭, 가시낭	무겁고 질긴 재료를 사용
키	새삼, 자골, 정당, 순비기	
도고리	느티나무, 벗나무, 가시나무	
씨부게	산디, 미, 신서란	중자 보관 용구
얼멩이	대나무로 만들지만 이음 부위는 상동나무	

제주도에서 밭을 개간하거나 농작물을 수확하여 운반하는 운반도구인 골채 제작에는 가볍고 질긴 재질을 가진 때죽나무(죽낭, 종낭), 산태의 제작에는 상동나무(삼동낭), 으름덩굴(유름낭, 줄갱이) 등이 이용되었으며, 키를 만드는 데는 새삼, 차골(자골), 땡땡이덩굴(정동, 고냉이정당), 순비기나무, 농기구를 엮는 줄은 으름덩굴(줄갱이), 멸꿀(숨비줄, 명줄), 참억새(미), 칩(척, 꼭) 등이 이용되었다(표 4). <사진 44. 농기구를 묶는데 이용됐던 으름덩굴의 꽃>

운반도구로써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마차이다. 마차는 많은 양의 물건을 한번에 운반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단하고 질긴 재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차의 앞쪽으로 양옆에 길게 대어진 나무인 '채경(차경)'이다. 채경의 재료로서는 단단하고 질긴 수목인 자귀낭과 자배낭 그리고 가시낭을 주로 사용하였다.

표 4 운반도구와 제작재료

기구명		제작 재료	특성
골채		때죽나무(죽낭, 종낭)	
산태		삼동나무, 유름낭 (줄은 꼭, 줄갱이, 산디짚, 미)	잘 휘어지는 재료
키		새삼, 차풀(자골), 땡땡이덩굴, 순비기나무	
질메		자귀낭, 자배낭, 가시낭	
마 차	채경	자귀낭, 자배낭, 가시낭	단단하고 질긴 재료
	상장틀	자귀낭, 자배낭, 가시낭	단단하고 질긴 재료
	바퀴	가시낭 · 곶배낭	

곶자왈이나 그 인근에 흔하게 분포하는 식물의 하나로 가장 요긴하게 이용되었던 식물은 ‘정당벌립’을 만드는 재료인 땡땡이덩굴(정동, 고냉이정당, 고냉이정동, 정당줄, 정동줄, 춤정동)이 있다. ‘정당벌립’은 과거부터 농경이나 목축활동 등 일상에 흔히 이용하던 제주만의 농립이지만, 현대적인 감각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제 모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만드는 땡땡이덩굴은 지역에 따라 그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귀덕리나 안덕면 동광리 등의 한라산 서쪽 지경에서는 ‘정동’이라고 하였고, 동쪽 지경에서는 ‘정당’이라고 하였으며, 그 형상에 따라서는 ‘참정동’과 ‘꼭정동’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 이용되었다. 이러한 정동은 안덕면 동광리와 표선면 표선리에서 나는 것이 특히 양질로 취급되었으며, 서쪽에서 나는 정동은 보통 마디 사이가 길며, 동쪽의 것은 마디가 짧다. 특히 곶자왈에서 자라는 정동은 2, 3년생의 다년생일수록 양질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3. 어구 생산활동과 곶자왈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연근해의 어로 활동이나 육지부와의 물자교류를 위하여 선박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목선이 대부분이었던 시절, 어선이나 군선의 제작에는 상당수의 목재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운반이나 재료의 가공 등이 용이한 해안가 주변의 곶자왈이나 하천유역의 숲은 매우 중요한 목재 공급원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선박 중 통나무를 엮어 만든 테배의 일종인 테우는 일반적으로 한라산 고산지역에서 자라는 고유식물인 구상나무(구상낭)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사진 45. 통나무를 엮어 만든 테우> 테우 이후에 나무로만 만들어진 제주 전통배인 덕판배가 나타났는데, 이 덕판배는 두개의 돛을 단 풍선으로, 구실잣밤나무(자배낭, 조밤낭)를 사용하여 만들어 졌다. 구실잣밤나무는 제주도의 꽃자왈을 비롯한 저지대 및 계곡주변에 형성된 상록활엽수림에 우점하는 수종으로 수림내에서는 가장 거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참나무류의 특성상 재질이 우수하고 굵고 통직한 대경목들이 많기 때문에 훌륭한 선박자재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아진다.

이 덕판배의 제작에는 튼실한 구실잣밤나무와 피새로 사용되는 솔비나무(솔피낭)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피새는 나무못 종류로 참나무류를 많이 쓰는데, 덕판배 제작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피새는 오줌을 받아 뒀다가 썩으면 그 오줌에 나무를 삶은 후 다시 맹물에 삶은 나무로 만들었다.’ 고 기록되어 있는데, 뱃전을 위에서 아래로 꺾어 박은 피새는 과거 선조들이 독특하게 창안하고 발달시켜온 조선 술 중 하나이다. 솔비나무 종류들은 목재 해부학적으로 휨강도와 전단강도는 강하고, 수축성과 흡수성은 작으며, 충격 휨 흡수에너지는 크고, 경도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제주도 중산간 전역에 많이 분포하는 종류이다. 과거에 식물학적으로는 제주고유식물(특산식물)로 인식되어 왔으나 중국 등에도 분포하는 것이 알려져 현재는 논란이 많은 식물이다.

또한 어선이나 군선의 제작에 있어 귀중한 나무가 녹나무와 가시나무이다. 특히 녹나무는 중국의 경우 집안거실의 각종기물을 만드는 가구재로 중요하게 여겼으며, 선박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군사용 배를 만들기 위해 소나무와 녹나무를 보호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거목의 경우 운반에도 문제가 있어 도서나 저지대의 큰나무를 보호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83년 완도인근에서 인양된 고려초기의 화물 운반선 선체의 밑바닥 일부와 청해진 유적지의 목책(木柵)이 바자나무 목재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제주에서는 과거 이 녹나무가 귀신을 쫓는 나무로 인식하여 집 주변에는 심지 않았는데, 심신을 맑게 해준다는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어 목침을 만들기도 하고 물질하는 해녀들의 작업도구에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제주의 녹나무는 고려시대부터 조공으로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고 독특한 약리작용으로 인해 꽃자왈내에 분포하는 상당수의 녹나무들이 수난을 당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선홀에서 잡녀들이 물질하러 가는 배에서 부르는 노래에는 “요 네 상척(요 노의 상반부) 부러지면 선홀곶디 곧은 낭이 없을 소냐.” 하는 구절이 있다. “요 노가 부러져도 선홀곶에 곧은 나무가 많으니 걱정이 없다.” 라는 의미로 선홀곶자왈이 목재의 중요한 공급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배의 건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선홀리의 지명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배남넨밭, 배남머르, 배남빌레, 배남터 등의 지명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4. 임업활동과 곶자왈

1) 곶자왈 나무와 쓰임

곶자왈숲을 구성하는 주요 수종이 상록활엽수이고 특히 가시나무류와 구실잣밤나무 등 참나무류가 많기 때문에 양질의 목재를 수시로 쉽게 얻을 수 있어 곶자왈은 일상생활에 요긴하게 쓰이는 목재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수목자원이 풍부했던 선홀 같은 지역에서는 숯가마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며, 낙엽성 참나무류가 풍부했던 곳에서는 버섯 생산을 위한 자목이 별채되기도 하였다.

곶자왈 숲에는 계절 따라 꽃을 피우는 여러 종류의 화목류들이 곳곳에 자라고 있다. 대표적인 화목류로는 때죽나무, 솔비나무, 울벚나무, 산벚나무, 말오줌때나무, 고추나무, 산딸나무, 노린재나무, 윤노리나무, 쪽동백나무, 실거리나무, 이팝나무, 보리수나무, 윤노리나무, 팔배나무, 가막살나무 등이 있는데 이러한 종류는 꿀을 채취하는 중요한 식물들로 특히 때죽나무(종낭, 죽낭)는 밑으로 향해 피는 많은 수의 꽃을 가지고 있어 밀원식물로 제격인 종류이다. <사진 46. 곶자왈에 자라는 나무중에 쓰임새가 많았던 윤노리나무>

제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자급 또는 판매를 위하여 숯이 구워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숯을 굽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참나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꾸지뽕나무, 서어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민간 소비용으로 많이 이용된 참나무 숯의 재료로는 증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등 상록성 가시나무류와 졸참나무, 떡갈나무 등 낙엽성인 것이 있다. 4·3관련 사료를 보면 ‘동백숲으로 유명한 선홀곶에는 당시 주요 생활연료였던 숯을 굽는 가마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분쟁이 자주 일어났으며, 마을주민과 숯가마 주인 사이에는 사전 약속이 있어 숯을

굽되 동백나무를 베어내선 안되고, 동백나무를 베어내 숲을 구우면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하는 약속을 했다.’ 는 기록이 있다.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숲은 나전칠기 제작에 필요한 연마제로 사용되었는데 동백나무 숲은 시회(蒔繪)에서 금은분을 연마할 때 사용되었다고 한다.

특히 증가시나무, 참가시나무, 개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등 가시나무 종류는 꽃자왈 숲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며 또한 대표적인 목재자원들이다. 가시나무는 한자명으로 가서목(哥舒木)인데, 이 가서목이 가시나무, 가시나무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본래부터 불려지던 가시나무를 한자로 음만 따서 ‘가서목’ 이라고 표기한 것인지는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가시로 발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시나무와 관련된 과거기록 중 《조선왕조실록》 정조 18년(1794) 12월 25일조를 보면 호남 위유사 서용보가 올린 글에 ‘길고 곧은 나무는 반드시 쓸만한 재목이고 가서목(哥舒木)은 더욱이 단단하고 질긴 좋은 재목으로서 군기(軍器)의 중요한 수요.’ 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가시나무 목재가 단단하고 강인하여 터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하고 튼튼한 군선을 제조하는데 제격인 나무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가시나무들과 이로 인해 형성된 숲은 단순하게 나무나 숲의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일찍이 유럽의 경엽수림문화(硬葉樹林文化)에서 일찍 희랍과 로마의 문화를 꽃피웠으며, 희랍에서는 “나는 가시나무를 보며 말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의미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사자는 백수의 왕, 독수리는 백금의 왕, 가시나무는 숲의 왕이라는 말이 있다. 일본사람들은 이러한 가시나무류로 대표되는 상록활엽수림을 기반으로 한 조엽수림문화(照葉樹林文化)를 앞세워 자신들의 농경시대 이전의 수렵시대를 멋지게 포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문화와 지역은 다르지만 가장 신령스런 영혼이 가시나무에 잠재해 있는 것으로 믿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시나무류로 대표되는 꽃자왈도 제주사람들만의 생활력이나 창조성, 독창성 등이 곳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꽃자왈 문화의 파수꾼은 아마도 테우리와 목지였을 것이다. 목지는 관에서 말을 기르는 목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평생 말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으며 사람들이 매우 천시했다고 한다. 관에서 키우는 말은 주로 산에

서 길렀기 때문에 산마목지라고도 불렀다. 반면 테우리는 어느 정도의 말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말로서 영업하는 사람이다. 집집마다 꿀(출)을 집채보다 2~3배 이상 쌓아 놔야 하는데 꿀을 운반하고 쌓는 일을 이들이 도맡아 한다. 이들의 생활 전반이 모두 곳자왈과 인근에서 이루어져 다양한 수목들을 현실에 맞게 이용하고 응용하며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아진다.

2) 임업요(林業謠)

산에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은 남정네들의 일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중의 하나였다. 물론 집에서 나무를 켜는 작업은 집을 짓거나 배를 만드는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나무를 자르면서 불렀던 임업요(林業謠)중의 집단 톱질소리 사설의 한 예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2)

(선소리)

슬금슬금	요내들을
스르릉 솔짝	내려간다
팔십당년	늙은사공
백년이상	보민 톱으로
천년목을	오려보자
제주도	한라산에
천년목은	아름찬 남
풍우상설	변치 않고
운월에	만건곤할제
독수창창	푸르렀더라
요제목을	베려고
위 강변	강태공이
서목수를	칭해다가
대산올라	대목베고

2) 향토교육자료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대영인쇄사. pp725

소산내려 소목베고

정의고을 지어놓아

부귀영화 누리보세

(후렴)

어야 어 어유하야

[해석]

슬금슬금 요것들을

스르릉 살짝 내려간다

팔십살 늙은사공

백년이상 사용한 톱으로

천년된 나무를 잘라보자

제주도 한라산에

천년된 아름드리 나무

세찬 비바람과 눈을 이겨내고

반달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찰 때

홀로 진하고 화려하게 푸르렀더라

이 나무를 자르려고

윗 강변의 강태공이

서목수를 모셔 와서

높은 산에 올라 큰 나무를 베어내고

낮은 산으로 내려가 작은 나무를 베어내고

정의현을 만들어

부귀영화를 누리보자

(후렴)

어야 어 어유하야

옛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산과 물과 공기의 흐름으로 가늠하곤 했다. 아득한 옛날 두꺼운 지각을 뚫고 나온 대지의 숨구멍인 368개의 오름과 원시의 날내음이 물씬 적셔오는 중산간 꽃자왈지대는 제주 속의 또 다른 제주, 남모르는 제주의 속살이다.

특히 온갖 생명을 키워내는 생명터로서 때 묻지 않은 자연의 힘과 함께 삶의 척박한 조건을 이겨내고자 했던 제주선민들의 삶의 지혜와 고난의 역사가 빼곡하게 묻어난다.

곳³⁾

요네 상착부러지라 고지낭귀 엇일말가
서늘곳 서낭은 애기씨 서낭
때밋곳 서낭은 영감의 서낭

조천읍 선흘곳과 남원면 위미곳에 있는 나무를 이용해 배와 노를 만들었다. 배에는 선왕에 대한 신앙이 있으므로 모시는 신의 특성과 연관해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모관이방 영리방 각시
무상것이 상덕이라니
서늘곳뒤 도아낭마깨
손에 이가 상덕이라라

선흘곳디 낭지레가난
짐패 쫄란 못지엄서라

선흘곳은 조천면 선흘리에 있는 곳자왈을 말한다. 이곳 곳자왈을 고지, 곳밭이라고 하며 한라산을 기준으로 동서로는 길게 뻗어 있어 교래 선흘 송당 등 조천읍과 구좌읍 일대를 비롯해 화순, 저지 등 한경면 일대에 광범위하게 숲과 초지를 이룬다.

희귀식물인 개가시나무, 녹나무, 육박나무, 백서향 등과 천량금, 창일엽 등 미기록 식물이 자라고 있다.⁴⁾

3) 한라산 총서 5권 89쪽

4) 제주도, 한라산 총서 5권 89쪽

5. 꽃자왈의 식용식물

비옥한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제주에서는 돌틈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도 수확량은 늘 기대에 못 미친다. 집 뒤, 밭 틈사이 작물이 자랄만한 곳이라면 어느 곳 하나 남김없이 일구고 바쁜 농사일 사이 째이라도 나면 바다로가 해산물을 채취하며 살아왔건만 배고픔은 여전히 제주사람들의 것이었다.

제주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준 중요한 곳 중 하나가 또한 꽃자왈이다. 꽃자왈은 제주사람들이 겨울 배고픔과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꿩코를 놓고 노루뿔을 놓기에 좋은 곳이다. 한라산에 눈에 덮이면 노루를 비롯해 꿩과 오소리, 족제비 같은 동물들이 먹이와 숨을 곳을 찾아 꽃자왈지대로 내려온다. 겨울에도 이끼와 양치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꽃자왈은 동물들에게는 그야말로 안식처다. 이때쯤이면 제주사람들도 꽃자왈을 찾아 노루코와 꿩코를 놓는다. 특히 눈이라도 온 뒤면 노루와 꿩을 잡기위한 발걸음은 빨라진다.

꽃자왈에는 식용하거나 약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산채식물이나 약용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초지대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꽃자왈 주변의 식생구조 때문으로 초본류에서 부터 만경류 및 관목, 교목 등 여러 가지 형상의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더욱이 주거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간적으로도 좁은 지역에 다양한 식물들이 공존하고 있어 계절별로 다양한 먹거리와 농경과 생활의 고단함을 달래줄 수 있는 각종 약용식물과 유용식물 등의 공급원이 되어 왔다.

꽃자왈과 그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먹거리 중에는 고사리와 양하(양애)를 꼽을 수 있다. 본래 양하는 아시아의 열대지역이 원산으로 절 근처나 민가에 심어 재배하던 종류로 현재는 꽃자왈지역(특히 교래꽃자왈)에 야생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양하는 화서(꽃줄기)를 주로 식용하며 줄기와 어린 잎도 식용으로 가능하다. 또한 꽃자왈의 고사리는 지역적인 특성상 길이가 길고 연하여 좋은 품질의 고사리로 인식되어 봄날 가시덤불 속의 고사리들을 보기만 해도 탐이 난다. 혹 고사리욕심에 꽃자왈속으로 들어가다 길을 잃고 낭패를 보는 일이 허다하지만 눈앞 탐스런 고사리를 보고 돌아 나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도 여름철이면 마을주민 뿐만 아니라 멀리 시내에서도 양하를 캐러오는 발길이 꽃자왈에 북적이는 것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변변하게 먹을 것이 없을 적 반찬거리로 심심찮게 밥상에 오르던 양

하는 이제는 넘쳐나는 먹을거리 속에서도 건강식으로 알려지면서 꽤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한다.

이외에도 꽃자왈에는 두릅나무(들굽냥, 들곱냥, 들급냥), 곰취(공초, 박쿨), 음나무(엄냥, 가시생송, 가시엄냥, 음냥), 합다리나무(합순냥, 갓다리, 합다리냥), 선밀나무(멜순, 멘순), 청미래덩굴(멩게냥, 동고리냥, 멜레기냥, 벨랑지, 벨랑이, 벨레기), 달래(꿩마농, 드룻마농), 냉이(난시, 난쟁이), 솜양지꽃(득밭, 주냉이풀), 고비(베염고사리, 허굼고사리, 허중고사리, 홀아비고사리), 더덕(산승, 던덕) 등 산채식물이 다양하게 있어 봄철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가을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보면 꽃자왈이 더 없이 풍요로워지는데, 꾸지뽕나무(긱가시냥, 가시틀남, 긱가시냥, 긱가시냥, 긱냥), 보리수나무(불래냥), 보리장나무(마계불래냥, 보리불래냥), 으름덩굴(유름, 줄영, 유름, 줄갱이), 멀꿀(명줄, 명), 복분자딸기(감은탈냥, 가막탈냥, 콩탈), 산딸기, 명석딸기(생이딸, 콩딸, 테역딸), 산딸나무(틀냥), 참다래(꾸근디, 주근디), 머루(멀리, 멀위, 멀리냥), 겨울딸기(저술탈, 노루탈), 가시딸기(가시탈냥, 보리탈냥)산딸나무(탈냥, 틀냥), 정금나무(정갈리, 종가리, 지도남), 뽕나무, 줄참나무(소리냥), 구실жат밤나무, 산초나무(개제피냥, 개취피냥), 참개암나무(깨금냥) 등의 산열매 종류가 지천으로 널려 있어 지금처럼 간식거리를 만나기 힘들었던 예전의 아이들은 가을이 되면 삼삼오오 짝을 이루고 꽃자왈로 들어가 함박 벌어진 으름을 입안 가득 담은 채 달콤한 맛을 오래오래 맛볼 수 있었다.

또한 꽃자왈 식물 중 약용으로 이용되었던 식물로는 비자나무, 녹나무(녹냥), 고로쇠(고로쇠기, 가레쑥, 고레수기), 황벽나무(훤벻냥, 황갱피냥, 황경피나무), 황칠나무(담베통남), 동백나무(돛박냥), 참가시나무, 참느릅나무(누룩냥), 무환자나무(모과냥, 데육냥, 도육냥, 모개냥), 참가시나무, 꾸지뽕나무, 개승마(가마귀웨줄, 생이웨줄), 파리풀(가신새, 가시새), 개똥참외(간절귀, 간잘귀, 간잘미), 누리장나무(개냥), 덧나무(덧냥), 하늘타리(두레기, 천두레기, 하늘레기), 둥굴레(둥글마), 후박나무(반두어리), 비목(베염푸기), 반하(가마귀수까락, 삼마), 노박덩굴(본지냥), 배풍등(소나쿨), 엉겅퀴(소똥이), 섬오갈피(오갈피냥) 등이 있다.

이러한 약용식물들 중에는 제주의 역사 속에서 조공물과 관련되어 민초들의 고달픈 삶을 반영하는 식물들이 있다. 과거 제주도의 조공물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고려 원종 12년(1271)에는 원나라에서 궁궐을 지을 재목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비자나무 외에 제주도의 녹나무를 가져갔고 황제를 상징하는 황칠을 하여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감귤을 비롯하여 비자나무, 녹나무, 조록나무(조록낭), 이년목 등의 임산물이 있었으며 인근의 주민들을 간수인으로 정해서 해마다 연말에 그 수량을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지리지(世宗地理志)의 토공(土貢)에 보면 제주에는 비자, 감귤, 이년목, 비자목, 정의에는 감귤, 비자, 대정에는 비자, 감귤이 기록되어 있다.

비자나무는 본래 난대성식물로 제주도와 남해안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침엽수종으로, 목재는 향기가 있고 연한 황색이어서 바둑돌의 흑백과 잘 어울리고 돌을 놓을 때 소리가 은은하며, 처음에는 관면이 약간 들어가는 듯하다가 돌을 쓸면 다시 회복되는 탄력성은 다른 나무는 흉내 낼 수 없는 특징으로 최고의 바둑판재료로 알려져 있다. 비자나무는 또한 목재뿐만 아니라 열매는 촌충 구제약으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동의보감에 의하면 ‘비자열매를 하루에 7개씩 7일 동안 먹으면 촌충이 녹아서 물이 된다.’ 고 했다. 비자나무는 특히 제주 꽃자왈을 대표하는 수종 중 하나로 구좌-성산꽃자왈의 하부지역에 있는 ‘비자림’은 그 규모가 과히 세계적 수준으로 300~600년으로 추정되는 2,500여 본이 자라고 있으며, 비자림 만큼은 못하지만 노포메오름 아래로 펼쳐진 애월꽃자왈지역에도 다수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남쪽 계곡이나 꽃자왈(저지·구억꽃자왈)에 분포하는 녹나무는 잎에 장뇌(樟腦)라는 방향성 기름을 가지고 있고 목재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캄포(camphor)라고 하여 강심제의 원료가 된다. 현재도 저지꽃자왈 지역을 탐사하다보면 환상으로 수피가 벗겨져 고사하거나 이로 인해 맹아로 자라는 녹나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민간에서 오랜 세월동안 약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6. 주거생활과 꽃자왈

척박하고 거친 제주의 환경은 이에 순응하고 지혜롭게 이용하는 주거문화를 만들었다. 제주의 주거문화는 정낭과 정주석(정주목)에서 시작하여 돌담이 있는 울래를 거치고 안팎거리, 모커리, 쇠막, 통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며 이들을 기능적으로 배치하여 안정되고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진 47. 제주의 재래식 화장실인 통시>

초가집의 건축에는 튼튼한 가시나무 종류가 많이 이용되었으며 마루는 단단하고 빛깔이 좋은 조록나무나 목재의 결이 아름답고 재질이 뛰어난 느티나무(괴목, 굴무

기) 등을 이용하였다. 육지부와 달리 논이 별로 없어 벼짚을 구하기 힘들었던 제주에서는 꽃자왈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인 띠(새)가 집짓기에 다양하게 활용되었는데 지붕을 잇고, 집줄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흙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당에도 띠를 깔기도 하였다. 땀감이나 사료 등을 보관하는 놀도 이엉이나 주저리 모두 띠로 만들어지며 비나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처마 끝에 엮어 다는 풍채를 만드는데도 이용되었다.

또한 띠는 생활도구의 제작에도 많이 활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배수성이 강하고 비에 잘 견디는 성질이 있어 우천 시에 외부활동을 위하여 서민들이 이용하는 ‘도롱이’(좁세기, 우장, 팽이)나 ‘토루기’ 역시 띠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이처럼 띠는 아주 요긴한 식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띠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주사람들은 꽃자왈 주변에는 새밭을 만들어 키우기도 하였다고 한다.

제주인들 속에 깊게 묻어있는 삼무정신, 그 정신을 대표하는 것이 정낭과 정주석(또는 정주목)이라 할 수 있다. 방목시키던 말과 소가 겨울에 집으로 내려오면 남의 집 마당이나 채소밭을 침범해서 망쳐놓은 것을 막아주고 집주인의 존재여부를 알리는 용도 등으로 쓰였던 아주 소박하지만 따뜻한 제주만의 정서가 깃든 창조물 중 하나이다. 대문이라 보기엔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글자 그대로 가로질러 놓은 나무인 정낭과 구멍이 뚫려있는 정주석(또는 정주목)으로 구성된다. 정주석은 보통 그 길이는 90cm, 두께10cm, 너비 20cm 정도이며 정낭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다른 서너 개의 구멍을 뚫어 놓은 구조를 하고 있다. 정낭으로 쓰이는 나무로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애월지역의 경우 소리낭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간혹 솔비나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사진 48. 제주의 대문인 정낭과 정주석>

제주의 전통 초가집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연자원들을 이용한 하나의 작품이며 극히 자연적이고 단순하기까지 한 돌과 나무, 풀들이 조화롭게 배합되어 만들어진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으로, 꽃자왈과 가장 닮은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진 49. 제주의 돌을 이용한 제주 전통 초가의 모습>

IV. 역사 속 곳자왈

옛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산과 물과 공기의 흐름으로 가늠하곤 했다. 아득한 옛날 두꺼운 지각을 뚫고 나온 대지의 숨구멍인 368개의 오름과 원시의 날 내음이 물씬 적셔오는 중산간 곳자왈지대는 제주 속의 또 다른 제주, 남모르는 제주의 속살이다.

특히 온갖 생명을 키워내는 생명터로서 때 묻지 않은 자연의 힘과 함께 삶의 척박한 조건을 이겨내고자 했던 제주선민들의 삶의 지혜와 고난의 역사가 빼곡하게 묻어난다.

1. 옛 지도에 나타난 곳자왈

곳자왈은 제주도의 동부와 서부, 북부지역에 곳자왈이라고 불리는 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를 크게 애월 곳자왈지대, 한경-안덕 곳자왈지대, 조천-함덕 곳자왈지대, 구좌-성산 곳자왈지대로 분류된다. 이러한 곳자왈은 수만년 세월동안 숲을 이뤄왔는데 옛 지도에도 곳자왈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옛 지도에는 현재 ‘곳자왈’로 불리워지는 지명을 ‘수(藪)’로 표기하고 있다. 18~19세기 제주의 대표적인 고지도로서 해동지도(海東地圖) 중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1750년대)와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 1734~1754년),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1872년)를 보면 현재 제주 동부와 서부, 북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곳자왈지대를 ‘수(藪)’로 표기하고 있다. 숲을 의미하는 ‘수(藪)’는 ‘풀을 뜻하는 초두머리(艸頭) 풀, 풀의 싹(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수(數)가 합(合)해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광활한 숲으로도 해석된다.

순 우리말인 숲은 조선초 간행된 『월인석보』나 『석보상절』에 ‘송’로 기록된다. 이후에 ‘습’, ‘수풀’을 거쳐 숲으로 쓰이고 있다. 숲을 한자로 쓰는 말중에 ‘임수(林藪)’란 말이 있는데 수풀 또는 사물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쓰인다. 이러한 한자어를 고지도에서 제주 곳자왈을 표현할때도 그대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18~19세기 제주 고지도 연구」(김오순, 2005)에 따르면,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와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에 ‘수(藪)’라는 지명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에 표기된 수(藪)는 모두 13군데로, 제주시 9군데, 서귀포시 4군데로 돼 있다.

제주시지역을 살펴보면, 회천동 지경의 저목수(楮木藪), 구좌읍 김녕리 지경의 김녕수(金寧藪), 구좌읍 상도리 지경의 마마수(尓馬藪), 구좌읍 한동리 지경의 묘수(猫藪), 조천읍 선흘리 지경의 우장수(芋長藪), 조천읍 함덕리 지경의 우수(芋藪), 애월읍 어음리 지경의 퇴수(磊藪), 한림읍 월령리 지경의 현로수(玄路藪), 한경면 지경의 부수(腐藪)가 표기돼 있다.

서귀포시지역의 경우에는 대정읍 동일리 지경의 세퇴수(細磊藪)와 서림수(西林藪), 안덕면 동광리·서광리 지경의 광수(廣藪), 안덕면 화순리 지경의 나수(螺藪)가 등장한다.

제주시 회천동 지경의 저목수(楮木藪)는 조천-함덕 꽃자왈지대에 해당된다. 조천-함덕 꽃자왈지대는 조천과 함덕 일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꽃자왈 용암류로서 함덕-와산 꽃자왈 용암류, 조천-대흘 꽃자왈 용암류, 서검은이오름 꽃자왈 용암류로 구분된다. 저목(楮木)은 닳나무를 의미하며 당시 숲은 닳나무(楮木)가 우점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애월 꽃자왈에 해당되는 퇴수(磊藪)와 한경-안덕 꽃자왈지대에 해당하는 세퇴수(細磊藪)는 돌무더기 또는 돌이 많이 쌓인 모양을 뜻하는 한자말인 퇴(磊)를 써 꽃자왈 숲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조천-함덕 꽃자왈지대의 우장수(芋長藪)와 우수(芋藪), 한경-안덕 꽃자왈지대의 광수(廣藪)는 ‘크다(芋)’와 ‘넓다(廣)’라는 의미의 한자를 쓴 것으로 봐 당시 꽃자왈 숲의 규모가 매우 길고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마수(尓馬藪)와 묘수(猫藪)는 주도 동부의 구좌와 성산 일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구좌-성산 꽃자왈지대에 있다. 구좌-성산 꽃자왈지대는 다시 동거문이오름 꽃자왈 용암류, 다랑쉬오름 꽃자왈 용암류, 용눈이오름 꽃자왈 용암류, 백약이오름 꽃자왈 용암류로 구분된다.

또한 현로수(玄路藪), 부수(腐藪), 나수(螺藪), 서림수(西林藪) 등은 도너리오름 꽃자왈 용암류와 병악 꽃자왈 용암류가 분포하고 있는 한경-안덕 꽃자왈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묘수(猫藪)는 구좌-성산 꽃자왈지대, 구체적으로는 동거문이오름 꽃자왈 용암류가 흘러 내린 곳에 자리잡고 있다. 동거문이오름 꽃자왈 용암류는 해발 340m인 동거문이오름에서 시작되어 한동리 방향으로 높은오름, 손자봉, 돛오름 등의 분석구 주위를 거쳐 해발 30m의 해안저지대까지 총 연장 11km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한편 수(藪) 지명은 조선시대의 인문지리서(人文地理書)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과 탐라지(耽羅誌, 1653년), 남환박물(南宦博物, 1704) 등에도 등장한다. 탐라지와 남환박물에는 수(藪)가 각각 10군데로 표기돼 있다.

특히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는 수(藪) 지역을 초록색으로 작은 삼각형의 모양으로 입체감이 있게 표현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2. 제주목축문화의 밑거름이 된 곳자왈

1) 목마장

한라산 중산간지역의 오름과 초지, 임야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곳자왈지대는 동물-식물 서식의 완충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한라산과 중산간, 그리고 해안을 잇는 제주환경의 완성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곳자왈 지대는 특히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 기능 뿐 만 아니라 농·축·임산물 생산과 함께 해안지역의 농업생산에 따른 지력 보급 기능을 제공해왔다.

이 가운데 곳자왈 지역과 곳자왈 지대와 부분적으로 연결되는 숲과 오름 군락, 그리고 드넓은 초원은 제주축산의 밑거름이 돼 왔다. <사진 35. 방목중인 말의 모습>

‘고려 충렬왕 2년(서기 1276년) 7월 원(元)으로부터 몽골 마(馬) 160마리가 지금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로 추정되는 이른바 수산평 지역에 입식됐다. 말의 고장 제주도에 목마장이 최초로 조성된 것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곧 제주축산의 효시인 셈이다.

예로부터 말은 군사·교통·농경·식용 등 인간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왔다. 말의 갈기는 잣, 가죽은 가죽신, 힘줄은 활의 재료, 말똥은 종이의 원료나 땀감·거름 등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을 정도다.

원은 당시 말 외에 소·낙타·나귀·양 따위를 들여와 방목했고, 이후 목마장은 제주도 전역에 걸쳐 확장돼 갔다. 원이 망한 뒤 이들 목장에서 기르던 말들은 고려에 귀속됐다가 조선조로 넘겨져 체제를 갖춘 마정(馬政)이 이뤄지게 됐다.

세종은 효율적인 목마를 위해 1429년 고득종의 건의에 의해 한라산 기슭 사방에 돌담을 쌓아, 목장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그 바깥으로 이주시켜 목장과 사람

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지역을 양분해 나갔다. 이를 10소장(所場) 또는 10마장(馬場)이라고 한다. 제주도 목장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10소장은 지금의 구좌읍 위쪽부터 1소장으로 삼아 서쪽으로 제주를 돌아가며 목장을 10개로 나눈 것이며, 또한 각 소장 내에 자(子)목장을 뒤 분할 관리했다.

목마장은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산장(山장)으로 나뉘며, 제주목에 1소장(구좌읍 위), 2소장(조천읍 위), 3소장(제주시 위), 4소장(애월읍), 5소장(애월읍 위), 6소장(한경면), 우도장(우도면 내)을 뒀다. 또한 대정현에 7소장(안덕면 위), 8소장(중문동 위), 모동장(대정읍 내)을, 정의현에 9소장(납원읍), 10소장(표선면 위)를 뒀다. 이 가운데 우도장(牛島場)과 모동장(毛洞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을 기르던 목장이었다.

18세기 초 마정(馬政)이라는 실용적인 목적 아래 제작된 고지도 가운데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유형문화재 제14호)』에 따르면 산마장들은 중산간지역의 오름과 오름 사이의 초지대를 중심으로 여러 개로 분산돼 입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지도를 보면 해발 200~600m 중산간 지역에 흩어져 있던 10소장과 모동장과 같은 우마장이 표기돼 있다.

또 각 소장에는 눈·비·바람을 피하던 피우가(避雨家)와 물을 먹이던 수처(水處), 잣성의 출입문이 나타나 있다.

이와함께 산마장에서 키운 말을 진공(進貢)할 때 일정한 장소에 모아 마필 수를 점검하던 두원장(頭圓場), 미원장(尾圓場), 사장(蛇場) 등의 목책시설이 등장한다.

원장은 목장 내 우마를 취합하기 위해 만든 원형목책이며, 사장은 취합한 우마를 1두 또는 1필씩 통과할 수 있게 만든 좁은 목책로이다. 원장은 다시 미원장과 두원장으로 구분되며 그 중간을 연결하는 것이 사장이다.

목장관리의 총책임자는 목사(牧使)다. 제주관관과 정의현감·대정현감이 감독관(監牧官)을 겸임했다.

또한 당시 행정은 사람보다도 말이 더 중했던 모양이다. 감독관 밑에는 책임자는 마감(馬監)·우감(牛監)이었으며, 그 밑에 군두(群頭), 군부(群副) 그리고 우마를 직접 사육하는 목자(牧子)가 있다. 군두는 목자 가운데 가장 성적이 우수한 자로 임명했다. 50필을 단위로 2명의 목자가 사육을 책임진 것으로 돼 있다.

목자는 ‘테우리’라고 불렸으며, 소와 말의 진상 때문에 그들의 고초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연례 공마 200필, 3년마다 식년 공마 700필, 교역상 정마하는 공마, 이

외에도 삼읍 수령이 부임할 때 3필 헌마 등 이름만 달리했지 부정기적 징발이 난무했다.

목자는 16세에서 60세까지 일을 하였고, 사회적 신분은 양민이나 실제로는 노비와 같은 지위를 면하지 못하였으면 세습적으로는 자손에까지 전하여지는 것이 통례였다. 세종(世宗) 17년(1435) 기록에 따르면 목자의 호수가 제주도 전체의 호수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제주도에서의 목축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중요시돼 왔다.

산마장(山馬場)은 개인목장이다. 10소장을 제외한 산장은 김만일(金萬鎰, 1550~1632)이 말을 기르던 목장에서 유래한다. 헌마(獻馬) 공신 김만일은 남원읍 의귀리 사람으로 선조 27년 전마 500필을 헌마해 임금이 삼대 조까지 참의·참판을 하사했다. 또한 광해군 10년에도 전마 500필을 헌마하자 임금은 그에게 오위도총부 총관을 제수했다.

그 후 그의 아들 김대길도 효종 때 200필을 헌마하니 조정에서 특별히 그가 목마하고 있는 녹산장(鹿山場·남원 지경), 상장(上場·표선 지경), 침장(針場·조천 지경) 일대를 산마장이라 하고 그에게 감목관의 벼슬을 제수해 세습하게 했다.

1792년(정조 16년)에 만들어진 『제주삼읍지(濟州三邑誌)』에 따르면 녹산장의 면적은 동서 75리, 남북 30리로 3개의 산마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녹산장이라는 명칭은 이곳에 위치한 오름 이름인 녹산(鹿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녹산은 지금의 사슴이(鹿山)오름이다. 두 개의 봉우리가 연이어 있다. 큰 것을 큰사슴이(大鹿山), 작은 것을 작은사슴이(小鹿山)라 한다. 엄연히 굼부리가 별개인 두개의 오름이다.

큰사슴이 정상에 서면 녹산장의 자취가 확연히 드러난다. 조선시대 국영목장이던 10소장과 녹산장의 경계를 이루는 잣성이 모지오름까지 검은 띠로 활처럼 이어져 있다.

조천읍 교래리에 있던 침장은 동서 45리, 남북 15리의 광활한 면적을 차지했다. 바농오름과 지그리오름, 교래리 마을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바농오름은 2소장과 침장의 경계부분에 자리잡은 오름이다. 표고 552m의 바농오름은 주변 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침장을 관리했던 목자들이 이 오름에 올라가 말들의 방목상태를 관찰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02년(조선 숙종 28년) 제주목사 겸 제주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한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각 고을을 순력하면서 화공(畫工) 김남길(金南吉)에게 그리도록 해 만

든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중 산장구마(山場驅馬)를 보면, 교래리에 객사나 산마장 운영시설이 표시돼 있으며 당시 산마감독관이 거주했던 촌락이 자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침장 주변은 낙엽활엽수림의 꽃자왈 지대가 발달해 있다. 조천-대흘 꽃자왈지대에 해당된다. 바농오름 남서쪽으로 개오리오름과 빗대어 늘어선 민오름, 큰 지그리오름, 작은지그리오름 줄기가 이어진다. 조천-대흘꽃자왈이 이 오름 줄기를 따라 오름과 오름 사이를 물결치듯 어우러져 내려온다.

승승 구멍이 난 꽃자왈 지형은 돌 틈 사이로 지열이 분출돼 겨울에도 바깥보다 10도 이상 따뜻한 기온을 보일 뿐 아니라 여름에는 적절한 습도와 온도가 유지돼 서늘함을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일대에서는 야마(野馬·꽃말), 야우(野牛·꽃쇠) 형태의 재래식 방목이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

‘꽃’은 꽃자왈을 의미한다. 재래식 방목은 소나 말을 산이나 들에 놓아기르는 것으로 ‘꽃치기’라고 한다.

조선 인조 때 제주도로 귀양을 왔던 이건(李建)이 남긴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1614~1662)』를 보면 ‘섬 중에 크고 작은 마소는 겨울이나 여름을 막론하고 모두 들에 놓아길렀다(島中 大小牛馬 無論冬夏 皆放於野)’고 적고 있다.

마을 원로들에 따르면 꽃말이나 꽃쇠에게 가장 큰 문제는 겨울나기다. 예를 들어 온전한 꽃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날씨 좋은 날 산에 몰고 가서 눈 속에서 먹이를 찾아 먹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며, 돌담을 이용해 비바람과 추위에 견디는 방법을 단련시켜야 한다. 대개 온전한 꽃쇠는 키우려면 3년이 소요된다고 했다.

꽃쇠는 특히 겨울철 눈이 많이 내려 고립되면 나무까지 벗겨먹는다고 한다. 그러나 봄부터 가을, 특히 여름에는 꽃자왈 숲 위쪽 높은 지대에서 시원한 기후 속에 먹고 자고 해서 속살이 찌고, 집에서 키우는 소보다 새끼도 더 잘 낳고 더 잘 큰다고 한다.

따라서 겨울철에도 매서운 바람을 녹여주고 푸른 숲을 유지하는 꽃자왈 지대는 꽃쇠나 꽃말에게는 겨울을 나는 데 더할 나위없는 보금자리였을 것이다.

2) 잣성

잣성은 목마장을 구획하는 경계에 쌓은 돌담이다. 잣성은 공간 분할선으로서 등고

선 상으로 볼 때 대개 △해발 150~350m 일대의 하жат성 △해발 350~400m의 중жат성 △해발 450~600m 일대의 상жат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상жат성은 중산간 지대의 방목지와 산간지대의 산림지와 경계선에, 그리고 하жат성은 해안지대의 농경지와 중산간 지대의 방목지와 경계선에 자리잡고 있다. 중жат성은 상жат성과 하жат성보다 형성시기가 비교적 늦은 것이며, 중산간지대의 농경지와 목장지를 구분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 36. 중산간지대 꽃자왈에 남아있는 잣성의 모습>

특히 중жат성이 등장하면서 중жат성의 하부지역을 경작할 때는 우마를 중жат성 상부지역(여름 방목지)에, 중жат성의 상부지역을 경작할 때는 하부지역(겨울방목지)에 방목하는 목축형태가 나타났다.

꽃자왈지대도 예외는 아니다. 꽃자왈은 대개 목장지를 끼고 있는 데다 대개 방목을 위한 화입(火入)의 경계선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잣성 유적이 잘 남아 있다. 특히 벌채나 방목에 의해 원시림이 없어진 후 2차적으로 발달한 꽃자왈 2차림(잡목림)지대에 남아있는 잣성들은 당시 목마장 규모와 위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또한 잣성은 수탈의 역사가 점철된 곳이자 고난의 역사를 이겨낸 삶의 현장이다. 방목중인 우마가 농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쌓았던 잣성은 우선 농작물 피해방지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꽃자왈 및 방목지에 대한 개간을 금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목마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 들어 제주 말은 탐관오리 외관이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던 가축이다. 따라서 잣성은 권력을 이용해 중산간 지대를 지배했던 역사를 대변하며, 제주의 전통 목축문화를 입증하는 유물경관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

3) 우마급수장

꽃자왈 지역 내 자연습지는 우마급수장으로 활용됐다.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 남쪽 선흘곶 지경의 경우 대표적인 우마급수장으로서 ‘고갑술못’, ‘든지모를못’, ‘쇠죽은 못’, ‘쇠난동산물’, ‘삼동낭물’, ‘먼물깍’, ‘벤뱅디물’ 등의 크고 작은 습지가 깊은 산속의 웅달샘처럼 자리잡고 있다. 숲과 습지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과 대기정화, 홍수조절의 역할을 담당한다.

선흘곶은 예나 지금이나 우마방목장으로 쓰임새가 크다. 자욱한 새벽안개와 초지, 그리고 안개를 헤치고 유유히 모습을 드러내는 소떼를 보게 되면 여유로운 멋이 넘치면서도 강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선흘곶 내 대표적인 우마급수장으로 ‘고갑술못’은 고갑술장(場)의 중심지다. 옛날 우마 방목이 번성했을 당시, 아마 고갑술이라는 사람이 관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갑술못’은 2개의 못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이 일대는 전국 최대 순채군락이 있다.

순채는 최근 찾아보기 힘들어진 멸종 위기의 환경부 보호식물이다. 부규 혹은 순나물이라고도 하며, 쌍떡잎식물로서 미나리아재비목 수련과의 여러해살이 수초다. 옛날에는 잎과 싹을 먹기 위해 논에서 재배했다.

순채 잎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약재로 사용했다. 잎 앞·뒷면의 점액질에 싸인 부분이 열을 내리고 독소를 제거하는 효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든지모를못’은 면적이 700㎡로 든지모를장(場)의 중심에 있다. 마을 원로들은 ‘든지모를못’이 비교적 수량이 풍부해 옛 선민들의 애환이 깃든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를 치러 다니다가 목이 마르면 비록 쇠오줌이 섞였지만 이 물로 목을 축였다고 한다.

‘쇠죽은못’이라는 지명은 말 그대로 방목중인 소가 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데서 유래됐다.

반면 ‘쇠난동산물’은 방목 중이던 소를 잃어버려 3일 만에 찾았는데, 마침 그 소가 송아지를 낳았던 곳이 ‘쇠난동산’이며, 인근에 있던 물을 ‘쇠난동산물’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선흘곶 내 또다른 우마급수장으로 동백동산 인근에 자리잡은 ‘먼물각’ 주변 습지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다. <사진 37. 선흘곶자왈 주변의 습지>

국립환경과학원과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은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이 일대 습지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결과 멸종위기종 I급 종인 매를 비롯해 순채, 팔색조, 비바리뱀 등 II급종 8종과 미기록 식물플랑크톤 5종이 발견됐다.

‘뱅뱅디물’은 선흘리 웃밤오름 남동쪽에 있는 못으로서 삼나무와 가시덩굴로 이뤄져 찾아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예전에는 이 일대가 벌판으로 이뤄져 ‘뱅디’라고 불렸으며, 주변에 예덕나무, 아그배나무, 보리수나무, 사람주나무, 솔비

나무 등이 출현하고 있는 2차림 지역과 삼나무 조림지 및 알밤오름과 이어지는 방목지는 2차 초지대를 형성해 우마의 출입이 빈번하다.

성산읍 수산2리 한못(漢池紙)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싶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 일대는 고려 때 몽골 말을 들여와 목장을 개설하기 시작했던 수산평(水山坪)의 중심이다. 제주가 섬인가 하고 착각이 들 정도로 광활하다.

한못은 성읍리와 성산포를 잇는 도로(지방도 1113호)를 타고 달려가다, 수산2리 지경에서 북서쪽의 ‘낭끼오름(남깨오름)’ 방향으로 난 목장 진입로를 따라 들어간 곳이다. 해발 120m에 자리잡은 이 못은 수산평의 대표적인 우마급수장이다. 자연못으로서 면적이 2500m²가 넘을 듯 싶다. 지명조차 ‘클 한(漢)’ 자를 써서 한못이다. 성읍리 지경의 좌보미오름(표고 342m)쪽에서 흘러든 물이 고여 못을 이룬 것이라고 한다.

구좌읍 송당리 거친오름 기슭에 자리 잡은 ‘물순이못’은 조선조 당시 제주-정의(표선면 성읍리)현(懸)을 왕래할 때 말을 쉬게 하면서 물을 먹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못 중심부는 언덕 형태의 섬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도 인근 거친오름 및 체오름으로 이어지는 방목지를 끼고 있어 우마 출입이 빈번하다.

월림-신평곶자왓 지경의 ‘봉근물’은 말 그대로 우마를 방목하던 중 우연하게 발견한 물이다. ‘봉근’이라는 제주말은 ‘거저 주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물은 대정읍 신평리 마을 공동목장 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움푹 파인 빌레 위에 물이 고여 습원을 이루고 있다. 물이 고인 곳은 10m²에 불과하나, 방목중인 소·말 뿐만 아니라 노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못이다.

우마가 목을 축이고 ‘말테우리(말몰이꾼)’들이 삶의 고단함을 토로하던 우마 급수장에는 저마다의 사랑과 저마다의 소멸의 표정이 배어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인적이 끊긴 탓인지 대부분의 우마급수장은 나무와 물풀들이 뒤범벅으로 엉켜 있다. 마치 거친 붓 터치와 현란한 유화화도 같은 풍경이다.

한편 우마급수장은 근래 들어 쓰임새가 크게 퇴색됐지만 못이 크든 작든 수중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못에 사는 생명체들은 때론 공생하며 혹은 천적관계로 지내고 있다. 자연이 주는 상생(相生)과 순환(循環)의 원리가 배어 있다. 그러나 상생과 순환의 원리가 깨지게 되면 결국 그 피해함은 인간의 몫이 되고 만다.

3. 생명을 일군 땅, 꽃자왈

1) 화전(火田)

꽃자왈 지대는 대개 목장을 끼고 있으며, 방목을 위한 주기적인 화입에도 초원에 둘러싸인 꽃자왈에 숲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꽃자왈 자체가 암반으로 이뤄져 있기도 했지만 불의 번짐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돌담을 쌓아 보호했기 때문이다.

꽃자왈이 자리 잡고 있는 중산간 고지대의 경우 지력이 더욱 얇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제주선민들은 소나 말을 방목하거나 일시적으로 화전(火田)을 일구었다. 지금도 꽃자왈 곳곳에선 돌무더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밭을 일구며 돌을 쌓아 놓은 것으로, 바로 이곳이 화전이었음을 말해주는 유산들이다.

화전에 대한 기록은 이원조(李源祚) 제주목사가 쓴 탐라록(耽羅錄)에서 엿볼 수 있다.

탐라록의 ‘삼천서당폐장가획절목서(三泉書堂幣場加劃節目序)’에 보면 ‘산불사획장전이계림수 급호후소점침 화세시기 즉금지전즉석지림야(山不奢劃 場田而界林藪及乎後燒漸侵 火稅始起 則今之田即昔之林也)’라는 기록이 있다.

내용인 즉, 산을 일궈 화전을 만들지 못하게 숲으로 목장을 구획해 경계로 삼았으나, 이후에도 숲에 불을 놔 화전세가 생겼다는 것. 지금의 밭은 예전에 숲이었던 곳으로서 화전세를 받아 서당(書堂)의 경비로 썼다는 뜻이다.

제민일보 꽃자왈특별취재반의 「제주의 허파, 꽃자왈」(2004)에 따르면, 조천-함덕 꽃자왈 가운데 조천-대흘 꽃자왈 지경의 화전은 일제 강점기 때까지 경작지로 활용됐다고 한다.

꽃자왈 중심지는 위낙 바위투성이라 밭을 일궈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꽃자왈과 목장 경계지 지경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밭을 일궈 수 있었다고 한다. 돌투성이 밭은 쟁기로 갈 수 없다. 대신 ‘따비’를 이용해 밭을 가는데 이를 ‘따비같이’라고 한다.

화전민들은 당시 따비를 이용해 돌을 일궈고 가시덤불을 태운 다음 팔이나 조, 피

같은 작물을 심었다.

물론 당시에는 거름이나 비료 같은 것은 쓸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나뭇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키울만했다는 것. 이들은 대개 한곳에서 2~3년 농사를 지은 후 지력이 떨어져 수확이 줄면 다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밭을 일켰다고 한다.

특히 곳자왈 지역의 용암류는 점성이 큰 게 특징이다. 지질학적으로 아아(Aa) 용암류중에서도 암괴상 아아 용암류라고 한다. 이처럼 송송 구멍이 뚫린 암괴상 아아 용암류는 제 몸속에 있는 수분을 조금씩 흠으로 돌려준다. 제주의 선민들은 이 같은 돌투성이의 땅을 ‘지름자갈’ 이라고 불렀다. 곳자왈 지형에서 습지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이 자주 발견되고 농사가 가능했던 것은 기름진 자갈 덕분이었다. <사진 38. 제 몸속에 있는 수분을 조금씩 흠으로 돌려주는 지름자갈>

한편 제주대 박물관 고광민 학예연구사가 쓴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2004)는 민속학의 미개척 분야 가운데 하나인 ‘생산민속(生産民俗)’의 관점에서 제주도의 민속을 기술한 책으로 화전 자취가 새겨진 땅 이름의 어미들이 ‘친밭’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친밭’을 ‘나무를 쳐 넘어뜨려 태워 만든 밭’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제주시 영평마을의 ‘송당친밭’, ‘성악이친밭’, 서귀포시 회수마을의 ‘제약이친밭’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송당친밭’은 옛날 이 마을 출신인 김 씨 선조가 이 마을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송당마을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송당’이 돼 버렸다고 한다. 바로 그가 그 일대에서 화전을 일궈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대 땅 이름을 ‘송당친밭’이라고 한다.

‘성악이친밭’은 이 마을 김 씨 선조 중 ‘김성악’이라는 사람이 그 일대에서 화전을 일궈 살았던 곳이라 지금도 그 일대를 두고 ‘성악이친밭’이라고 한다.

회수마을 북쪽, 표고 735m의 ‘거린사슴’ 지경에 있는 ‘제약이친밭’은 ‘제약이’라는 사람이 그 일대에서 화전을 일궈 살았다는데서 붙여진 땅 이름이다.

2) 수렵

누대로 갈아먹을 땅이 척박했던 제주선민들은 곳자왈 지대에서 노루나 꿩, 그리고

멧돼지를 사냥해 생계를 이어왔다.

곶자왓지대는 겨울에도 늘 푸른 숲을 유지한다. KBS 환경스페셜 제작팀이 지난 2004년 곶자왓 지대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겨울철에도 같은 고도의 다른 곳에 비해 7℃나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도 겨울이면 한라산 노루들이 먹이를 찾아 곶자왓을 찾는다. 노루의 보금자리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 노루가 좋아하는 덩굴, 송악, 고사리 등이 지천으로 자라고 있다.

덩굴나무와 잡풀덤불은 텃새들의 보금자리. 풀 속에 숨어 있던 꿩들도 가끔 피성을 지르며 날아간다. 덩굴식물은 서로 엉키고 가시를 만들어 소와 말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막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 연산군 때의 문신 김정(金淨, 1486~1520)이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통해 체험한 풍토와 상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 따르면 ‘들 짐승은 노루, 사슴, 돼지가 매우 많고 오소리 또한 많으나 여우, 토끼, 호랑이, 곰 따위는 없다. 날짐승은 꿩, 까마귀, 솔개, 참새 등이 있으나 황새나 까치 등은 없다.’고 기록돼 있다. <사진 39.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포유류인 노루의 모습>

제주대 박물관 고광민씨는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2004)을 통해 사냥기술과 민속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대표적인 사냥법은 총, 코, 덫, 창, 그리고 여러가지 도구를 이용한 집단 사냥과 도구 없이 개와 함께 사냥 대상물을 몰아 잡는 몰이 사냥이 있다.

이 가운데 대중적으로 널리 행해진 게 ‘코’를 이용한 사냥이다. 코는 올가미를 말한다. 줄로 코를 맺어 짐승을 잡는 장치다. ‘코’는 주로 노루와 꿩을 사냥하는데 쓰여졌다. 대개 노루를 잡는 ‘코’를 ‘노리(노루)코’, 꿩을 잡는 ‘코’를 ‘꿩코’라고 한다.

노루는 성질이 온순하고 겁이 많은 짐승이 동물(포유류)이다. ‘노루가 제 방귀에 놀란다’는 속담처럼 노루는 겁이 많아서 잘 놀란다. 사람이 노루가 사는 둘레에 나타나면 망보던 노루가 ‘兢兢兢兢’ 울어댄다. 조금만 부스럭거리도 놀라서 경충 뛰며 저만치 잽싸게 도망친다. 한번에 6~7m를 달릴 정도로 질주력이 뛰어나며, 달아나다가 이따금 서서 주위를 살피는 버릇이 있다.

사냥은 주로 겨울철에 이뤄진다. 노루는 수목이 우거져서 숨을 곳이 많은 곳에 살며, 대개 12월 들면 한라산에 눈이 쌓이고 먹이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먹을 것을

찾아 낮은 곳자왈지대로 내려온다.

노루는 다녔던 길로만 다니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코’는 노루가 잘 다니는 길목 여기저기에 설치된다. 주로 나뭇가지에 지상으로부터 30c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위를 나뭇가지나 풀로 위장한다.

고광민 연구사는 노루 코를 재료에 따라 오미자줄로 만든 ‘넌출코’와 으름덩굴로 만든 ‘징쟁잇줄코’, 말총으로 만든 ‘총갈리코’ 등 3종류로 분류했다.

일단 코에 걸려들면 노루는 영락없이 죽고 만다. 겁이 많은 노루는 목을 파고드는 아픔과 공포로 마구 발버둥친다. 노루가 발버둥치면 칠수록 올라가는 더 깊이 살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이다.

늘 먹을것이 부족했던 옛 사람들에게 노루는 중요한 양식거리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먹을 것이 넘쳐나는 지금도 노루사냥은 이뤄지고 있다. 지금도 곳자왈 지대내에서는 노루를 잡기위한 불법수렵도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 거기에 걸려 목숨을 잃은 노루도 볼수 있다. 보신을 위한 인간의 탐욕이 낳은 결과다.

꿩은 예로부터 제주선민들의 대표적인 수렵조(狩獵鳥)다. 꿩은 타 육류와는 달리 섬유소가 가늘고 맛이 단백하고 소화 흡수가 잘된다. 날개 털은 다려서 감기치료제로 썼다.

제주의 꿩은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오랜 세월 본토와 동떨어진 독자적인 유전성을 간직해왔다. 우선 제주 꿩은 텃새의 하나로 몸집이 크다. 또한 외국의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그 색깔이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한다.

제주 선민들은 대개 잡은 꿩은 고기를 말려 주로 제숙으로 쓰거나 메밀국수를 할 때 꿩고기를 넣어 먹었다. 겨울철에 하루 종일 폭 고아낸 후 뼈를 발라내고 살코기로만 꿩엿을 해 먹기도 했다.

재래 미풍약속의 하나로 혼례 때 폐백이나 명절·설날의 떡국에 원래는 꿩고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곳자왈지대의 덩굴나무와 잡풀덤불은 꿩들의 보금자리다. 타 지역과 달리 먹이사슬로 볼 때 포식자의 위치에 있는 고양이과 동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주 꿩은 중산간 넓은 초지와 숲속에 무진장 번식할 수 있었다.

때문에 예로부터 제주에는 꿩 사냥이 성행했다. 꿩 코는 주로 말총으로 꼬아 만들었다고 한다. 농한기인 겨울철에 한겨울 내내 툼툼이 꿩 코를 돌아보면서 55cm쯤 되는 말총 10여 겹을 새끼 꼬듯이 꼬아 만들어 숲이나 꿩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설

치해두고 한겨울 내내 툼툼이 꿩 코를 돌아보면서 꿩이 잡혔는지를 확인한다.

떼몰이 꿩 사냥에 대한 기록도 있다. 향토사학자인 진성기·문무병씨가 197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산읍 수산리와 고성리에서는 꿩이 털갈이하는 음력 9~10월과 눈이 쌓인 겨울철에 꿩 사냥을 했다고 한다.

당시 떼몰이 꿩 사냥은 대개 구좌-성산 곳자왈지대에 해당하는 동거문이오름곳자왈 지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주민들은 동네마다 50~60명이 동원돼 망을 보고 목을 지키면서 꿩 몰이 사냥을 했다. 한 번 사냥에 노루 2~3마리, 꿩은 100~300마리까지 한꺼번에 잡았다고 조사된 바 있다. 사냥을 따라 나온 아이들을 ‘초시’ 라고 불렀다. 사냥에서 잡은 꿩은 ‘분육’ 이라는 절차에 따라 배분됐으며 다만 예비 사냥꾼인 ‘초시’ 는 제외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콩알에 청산가리를 담아 꿩을 잡기도 했다. 수꿩은 장끼, 암꿩은 까투리라고 불린다.

제주 속담에 ‘지다리도 들 굶 날굶이 쉴나(오소리도 들어가는 구멍, 사냥꾼을 피해 달아나는 구멍이 있다)’ 라는 말이 있듯 오소리 사냥은 인내가 필요하다.

제주도에서는 오소리를 ‘지다리’ 라고 한다. 그 고기는 보신용이나 약재로, 그리고 그 가죽은 ‘가죽 감테’ 라는 방한모(防寒帽) 재료로 이용됐다.

‘지다리’ 는 굴속에 등지를 틀어 살기를 좋아하는 동물로, 특히 동지(冬至)와 입춘(立春) 사이에 숫놈 한 마리와 여러 개의 암컷이 굴속으로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생식활동을 하는 수가 많다. 바로 이때가 사냥시기인 셈. 특이한 것은 창을 이용한다는 것. 구좌읍 송당리 지경에서는 굴 속에 있는 ‘지다리’ 를 찌르는 송곳(또는 ‘고지’)과 오소리를 끄집어내는 고리 모양의 ‘거낫’ 을 이용해 ‘지다리’ 를 사냥했다.

‘지다리’ 는 굴 가까운 일정한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습성이 있어 그것을 찾게 되면 그 주위 굴에 박혀 있음이 짐작된다.

‘지다리’ 는 굴속에 박혀 사는 짐승이라 개를 이용한다. 그러나 발톱이 워낙 날카로우니 잘 할퀴므로 굴속에 들어간 개가 되레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돕는 ‘창’ 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선 ‘지다리’ 가 있음직한 굴을 발견하면 그 주변을 삼이나 팽이로 파고, 개를 그 안으로 들여보낸다. ‘지다리’ 가 들어 있는 굴에서는 개와 싸움판이 벌어지기

십상인데, ‘지다리’가 있고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를 들여보내 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냥꾼은 ‘송곳’이라는 창으로 ‘지다리’를 찔러 놓고, ‘거뺏’이라는 고리진 창을 밀어 넣으면 ‘송곳’에 찔려 있는 ‘지다리’는 그것을 물기 십상인데, 물린 ‘거뺏’을 잡아 당겨가며 굴 속에 있는 ‘지다리’를 하나씩 끄집어낸다.

조천읍 교래리의 ‘뒫곳’은 대표적인 사냥터다. 마을 뒤에 있는 숲이라는 의미에서 ‘뒫곳’이다. 마을 주민들은 “뒫곳은 예로부터 노루를 비롯해 동물들이 많이 살아 사냥터로 유명했다.”며 “멧돼지는 30년대 초, 사슴은 40년대 초까지 잡혔다.”고 증언한다.

조선시대에는 교래리 녹산장(鹿山場)(제동목장 일대)에서 군마를 길러 진상했으며 사슴과 멧돼지, 노루, 꿩 등을 사냥했던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제주목사 이형상이 각 고을을 순력하며 그 현장을 생생히 기록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중 교래대렵(橋來大獵)을 보면, 1702년(숙종 28년) 10월11일 마군 200명, 포수 120명, 짐승을 모는 보졸 400여명이 동원된 가운데 임금에게 진상하기 위해 사냥에 나섰으며, 조천읍 교래 곳자왓 부근에서 사슴 177마리, 멧돼지 110마리, 노루 101마리, 꿩 22마리를 잡았다고 돼 있다. 실로 엄청난 포획물이 아닐 수 없다.

사냥에 얽힌 지명들도 눈에 띈다. 서귀포시 중문동의 녹하지악(鹿下旨岳), 조선후기 대표적인 산마장(山馬場)으로서, 표선면 가시리와 남원읍 수망리 의귀리를 연결하는 해발 250~400m의 비교적 평탄한 용암평원에 자리잡은 녹산장(鹿山場), 백록리(白鹿里, 안덕면 창천리 옛 이름) 등 수많은 지명과 함께 오늘날까지도 사슴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하얀 사슴, 즉 백록에 대해 조선시대 이형상(李衡祥, 1653~1733) 목사의 남환박물(南宦博物)에 따르면 양사경 목사와 이경록 목사가 백록을 사냥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사슴은 아쉽게도 일제 강점기 때 무분별한 포획으로 완전히 멸종되고 만다.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에서 한원리로 넘어가는 도로 경에 자리잡은 새장밭이라는 지명은 사장밭(射場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옛날에는 너른 들판에 가시덤불, 소나무 숲으로 이뤄져 노루, 멧돼지, 꿩 등의 사냥감이 많아 사냥터 혹은 활을 쏘던 곳이었다고 전한다.

또한 조수1리 내 ‘뚝곳물’은 30m의 자연동굴과 7000여평의 오목한 분지와 평지

로 돼 있다. 지금도 수목이 울창해 금방이라도 산짐승이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다. 특히 수령이 300년을 넘은 속칭 검복나무 1그루와 팽나무 2그루의 위용이 불만하다.

이 일대가 움푹 파인 것은 멧돼지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코와 주둥이로 나무뿌리 등 먹을 것을 찾기 위해 파헤친 것이 물이 고이게 된 원인 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이 일대가 국유지인데다 숲이 울창해 자연학습장으로 개발될 수 있는 곳이라며 보호구역 지정을 원하고 있다.

한편 곳자왈 지역은 생업으로서 사냥이 쇠락하면서 한라산과 취락지 해안을 연결하는 생태벨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노루, 오소리, 다람쥐, 족제비, 등줄쥐, 비단털쥐, 뱀 등 야생동물들의 주요 이동 통로가 되고 있는 셈이다.

V. 꽃자왈의 가치

꽃자왈은 크고 작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들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 주는 장소이다. 또한 꽃자왈에는 주로 상록수들이 분포함으로써 한겨울에도 푸른 숲을 자랑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소비해주는 장소,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에서 중산간을 거쳐 해안선까지 분포함으로써 동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

동식물들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꽃자왈에는 제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제주산 양치식물, 한국미기록종,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 환경부 희귀식물 등이 자라고 있는 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이다. 제주도의 꽃자왈이 양치식물의 보고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꽃자왈의 가장자리가 가시덤불로 이루어져 있어 사람들의 출입을 쉽게 허락하지 않아 인위적인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표면이 암설(巖屑)로 이루어져 있어 꽃자왈의 참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 15. 식물 다양성의 보고하 불리워지는 꽃자왈의 전경>

꽃자왈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암괴석과 수목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숲의 왕국을 창건하여 제주의 허파로 자라나게 하였으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창과 방패로 인간들이 꽃자왈로 들어오는 앞길을 막으며 인간세상과 거리를 두기 위해 금족(禁足)의 위령(威令)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꽃자왈은 산림자원으로 경제적 가치를 비롯해 동식물이 주요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 도민 삶과 역사가 살아 있는 문화적 가치, 뛰어난 경관을 자아내는 심미적 가치, 제주생명수를 만들어내는 지하수함양지로서의 가치 등 무수한 가치를 갖는다.

1. 꽃자왈 숲의 경제적 가치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993만ha이며 그 가운데 산림은 65%인 641만ha다. 절반이 넘는 산림 면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산림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 국민 1인당 숲 면적은 0.14ha로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05년 기준으로 평가한 우리나라 전체 산림이 주는 가치는 58

조881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원함양 기능은 14조978억원(24.0%)로 가장 많으며 대기정화 기능은 13조2438억원(22.5%), 산림휴양기능은 11조329억원(18.7%), 토사유출방지기능은 10조9974억원(18.6%)에 이른다. 이밖에 산림정수기능이 4조9039억원(8.4%)이며 토사붕괴방지기능이 4조243억원(6.8%), 야생동물보호 기능이 6013억원(1.0%)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소음방지와 기상완화, 방풍, 생물종 다양성 등 환경적 가치와 문화적, 심리적, 경관적 가치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숲이 산림이 주는 가치는 우리생각을 뛰어넘는다. 이 같은 수치를 단순 대비할 경우 110km²에 이르는 제주곶자왈 숲은 최소 3000억원에 이르는 가치가 있다.

물론 이는 산림이 주는 다양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 안됐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용암류 지대에 만들어진 곶자왈 만이 갖는 독특한 존재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 곶자왈 숲이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

우리는 곶자왈에서 우리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수한 자원을 가져왔다. 나무를 캐 집을 짓고 땀감을 했으며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만들었다. 또 고사리, 양하, 으름과 같은 먹을 것을 구했으며 약초를 캐 병을 치료했으며 노루와 꿩을 잡아 주린 배를 채웠다.

곶자왈에서 자라는 나무는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갖는다. 실제 곶자왈지역내 나무는 조경수로 인기가 높는데 수십만원에 이르는 나무가치만 해도 곶자왈 숲은 수조원에 이르는 가치가 있다. 또 최근 자연석 밀반출에서 볼 수 있듯이 곶자왈지역에서 볼 수 있는 용암석들은 화산활동이 만들어낸 유한 자원으로 희소성과 심미적 가치가 뛰어나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한다.

여기에다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인 제주고사리삼과 물부추, 개가시나무, 으름난초, 순채를 비롯한 500종에 이르는 식물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생물종 다양성 유지 기능 또한 매우 높다.

곶자왈은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파수꾼 노릇을 한다. 곶자왈 숲은 엄청난 양의 수분을 간직한다. 여름철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곶자왈 숲이 갖는 수분 함양기능 때문이다. 이와 함께 투수성지질 구조 탓에 장마철 폭우에도 물이 넘치는 일이 없다. 최근들어 제주에서도 물난리를 심심찮게 겪는데 곶자왈지역은 하천이 없을 정도로 아무리 많은 양의 물도 지하로 함양시켜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사진 16.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시켜주는 곶자왈>

돌무더기에 단단히 뿌리내린 나무숲은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보
기만해도 시원한 곳자왈 숲은 치료 효과 또한 뛰어나다. 도시화하는 제주지역에서
도 환경오염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서 자연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다. 숲
은 대도시에 비해 50~200배 청정하며 정서적 안정을 준다.

또 나무들이 내뿜는 물질은 의학적으로 유익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정서를 안정
시키고 뇌활동을 촉진한다. 그중에서 나무들이 뿜어내는 테르펜은 살균과 진정, 소
염 등 약리효과가 있다. 이러한 물질과 풍부한 산소가 있는 숲은 자연치유 공간이
다. 최근 숲 치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숲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이
유다.

이와 함께 숲은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을 불러오는 문화적 창조공간이다. 생태관광
적 가치 등을 포함할 경우 곳자왈이 갖는 가치는 경제적 평가를 뛰어넘는다.

2. 생명수를 만드는 곳자왈

숙종28년(1702년) 6월 제주목사겸 수군절제사로 왔던 이형상은 그가 남긴 지리지인
'남환박물(南宦博物)'에 제주섬의 물 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제주에는 모두 감천(甘泉)이 없다. 백성들은 10리내에서 떠다 마실 수 없으면 가
까운 샘으로 여기고, 멀면 혹은 4~50리에 이른다. 물맛은 짜서 참고 마실 수 없으
나 지방민은 익숙해서 괴로움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물 문제는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도의 자연적인 조건에 기인했
다. 그는 “흙의 품성이 들뜨고 메마르며 전혀 습기가 없으며, 그런 연유로 섬 안에
생수가 한군데도 없다.” 고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물은 생존 문제를 가늠하는 크나 큰 문제였다.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
받아 놓은 봉천수나 바닷가에서 치솟는 물인 용천수에 의존해 살아왔다. 이 당시만
해도 제주사람들에게는 봉천수에 의존하는 ‘츄항(향아리)’ 문화와 용천수에 의존하
는 ‘물허벅’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사진 17. 음용수를 길어 나르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물허벅>

빗물도 갈증 해소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봉천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츄항’을 이용해 빗물을 받아 사용했다. 위낙 물이 귀한 시절 제주사람
들은 상록활엽수 밑 등지에 띠를 엮어 새끼줄을 만든 다음 묶어놓아 비가 내릴 때

나무 잎사귀에 내린 빗물이 새끼줄을 통해 밑에 반쳐놓은 층향에 저장하여 생활용수로 이용했다.

용천수가 없는 거의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은 봉천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수질이 좋지 않아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가뭄이 들었을 때 마을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물허벅을 지고 물을 구하기 위해 2~3km 떨어진 곳까지 용천수를 찾아다녔다. <사진 18. 땅속을 흐르던 물이 지표로 솟아나온 용천수>

층향문화와 향아리문화에 이어 금산수원 개발이 이루어진 1960년대 이후 각 가정마다 상수도가 보급되자 ‘상수도문화’로 전환돼 봉천수나 용천수 대신 콧물 솟아 나오는 위생적인 수도물을 마시게 됨으로써 물을 확보하기 위해 한겨울에도 새벽부터 초저녁까지 물을 길러 다녀야만 했던 물전쟁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제주의 물은 곧 ‘지하수’를 의미한다. 또한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도민들에게 단순히 ‘물’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생명수’로 인식되고 있다. 제주의 지하수는 또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수질을 자랑하고 있고 제주도민 모두가 소중하게 이용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제주의 지하수가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농촌진흥공사(현 한국농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에 내리는 연간 총 강우량은 33억8500만~35억1600m³의 범위이다. 이 중 하천이나 지표층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직접 유출량은 총 강우량의 19~20%, 또 증발산 작용을 통해 대기중으로 손실되는 증발산량은 직접유출량보다 많은 총 강수량의 33~37%이고 지하수 함양량은 44~46%라는 것이 연구결과다.

이와 같은 제주도의 지하수 함양량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평균 지하수 함양량 18%보다 훨씬 높고 미국 하와이주의 오아후 섬 보다도 높은 것이다. 즉, 제주도는 지하수 함양량이 총강우량의 44~46%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문지질 여건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잉태하게 해 주는 투수성 지질구조인 꽃자왈, 솜골, 용암동굴, 오름, 스킨리아퇴적층, 하천 등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지하수를 함양하게 해 주는 투수성 지질구조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투수성 지질구조가 바로 꽃자왈과 솜골이다.

꽃자왈은 암괴상 아아용암류로 이뤄진 지대로 토양의 발달이 극히 빈약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암괴들이 매우 두껍게 쌓여 있어 빗물이 무한정 지하로 내려갈 수

는 있는 지질구조이다. 또한 ‘숨골’은 화산분출에 의해 흘러 내려온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혹은 용암동굴이 만들어진 이후에 부분적으로 용암동굴의 천장이 붕괴되어 형성된 공동이다. 제주도에서 이와 같은 곳을 “숨골”이라 한다. <사진 19.

용암동굴의 천정이 붕괴되어 만들어진 숨골의 모습>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곳자왈 지대에는 장마철이나 태풍 등 호우에도 빗물이 지표면을 따라 흐르지 않고 곧 바로 지하로 유입된다. 따라서 실제 아무리 많은 비가 온 뒤에도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더욱이 곳자왈지대에서는 하천을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용암류 사이로 스며든 물은 지하수 함양기능과 함께 자연적으로 습도조절기능을 함으로서 건조한 여름철에도 매우 다습한 상태를 유지해 이끼류나 양치류가 바닥을 뒤덮을 정도로 왕성한 생육상태를 보이는 곳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곳자왈 지대는 지하수 오염에도 매우 취약하다. 빗물이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면서 맑고 깨끗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내는 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과도한 농약 및 비료 사용,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의 무단 방류 등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이를 걸러주는 기능이 부족해 곧바로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강우량의 계절적 변동에 따라서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히 낮아져 지하수 부존량 감소나 장기간 지하수 이용에 따른 수량 감소 문제 뿐만 아니라 해수침투의 위험마저 나타남으로써 안정적인 지하수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1956년 과도한 채수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지하수의 염수화 현상까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공 함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76년부터는 심정에서 채수한 지하수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처리한 것을 혼합해 인공함양(Water Factory 21)을 시작해 해수침투를 막고 있다.

이러한 인공 함양은 국지적인 지하수의 수리구배 및 흐름 패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공 함양시설 주변에 오염된 토양이 존재할 경우 지하수 오염의 우려를 배제할 수가 없다.

제주도의 경우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애월읍 소재 농산물 원종장에 지하수 인공함양정 및 관측정을 설치했으며, 제주시 오등동 소재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에 지하수 인공함양정 및 관측정 1개소를 설치해 빗물의

확산속도 및 지하수 함양효과 등을 분석하는 지하수 인공함양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사업을 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왜냐하면 제주 지하수의 최대 함양원인 꽃자왈이 개발광풍에 밀려 나면서 지하수 함양량이 떨어져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져 해수 침입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프랑스 에비양사의 물보다 더 맛있고 질이 좋은 제주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선 지하수 인공함양사업 보다 꽃자왈 보존이 선행되어야 한다. 꽃자왈을 보존함으로써 지하수를 잉태해 주는 함양원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며 제주의 지하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및 기근사태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제주의 한정된 수자원인 지하수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맑고 깨끗한 제주의 생명수를 우리의 후손들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제주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3. 꽃자왈이 만들어낸 보물

꽃자왈 지대는 토양의 발달이 빈약하고 크고 작은 암괴들이 매우 두껍게 쌓여 있어 아무리 많은 비가 올 지라도 빗물이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어 맑고 깨끗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한다는 점에서 마치 ‘스펀지’ 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지하수 오염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1601년 9월 안무어사로 부임한 김상헌(金尙憲)(1570~1652)은 남사록(南槎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였다.

꽃자왈에 있는 기암과 괴석은 쪼고 새기고 갈고 깎은 듯, 삐죽삐죽 솟아나 나란히 서 있기도 하고, 꿈쩍 않고 서 있기도 하고, 삐딱하게 서 있기도 하고, 짝지어 서 있기도 하고, 서로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돌아보며 좇고 따르며 줄지어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조물주가 재주와 정성을 다 하여 이루어 놓은 것이다. 좋은 나무와 기이한 나무가 푸르게 치장을 하여 삼림이 뽁뽁한데, 서로 손잡고 서 있기도 하고 등을 돌리어 서 있기도 하고 옆으로 누워있기도 하고 비스듬히 서 있기도 하고 누가 어른인지 다투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잘났느냐고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여 어지럽게 일어나 춤추며 절하고 줄을 지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토지신(土地神)이 힘을 다하여 심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곶자왈지대에는 용암이 흐르면서 양쪽 가장자리에 차가운 대기와 접함으로써 빨리 굳어져 만들어진 ‘용암제방’, 화구에서 유출된 용암이 저지대에 모여 상부는 냉각되어 굳지만 내부의 가스와 뒤이어 흘러온 용암의 압력에 의해 지각이 들어 올려져 마치 빵껍질 형태로 부풀어 오른 ‘튜물러스(tumulus)’, 흐르는 용암이 나무를 감싼 후 굳어지고 나무는 풍화되어 나무의 겉모양만 남아있는 형태인 ‘용암수형(lava tree)’, 점성이 큰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와 굳어져서 마치 종을 엮어놓은 것과 같은 형태의 ‘용암돔(lava dome)’, 그리고 눈사람의 원리처럼 준고체 상태의 암괴들이 구르면서 반복적으로 부착됨으로써 나이트 모양의 구조가 발달된 ‘부가용암구(accretionary lava ball)’ 등 매우 특이한 지질구조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와같은 지질구조는 미기후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식물상을 이룬다. 지금까지 곶자왈지역에서는 500종에 이르는 식물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제주고사리삼과 같은 제주특산속 식물을 비롯해 매우 희귀한 식물들이 포함된다.

1) 화산활동이 만들어낸 보물

(1) 송이(Scoria)

지표면 하부의 마그마(magma) 방 속에 마그마가 들어 있다. 마그마 내부에 들어 있던 휘발성분이 상승하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마그마 속에 기포가 만들어진다. 이 때 만들어진 작은 기포들은 마그마 속에서 서로 모여 직경이 수m되는 크기로 되면서 마그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폭발적인 분출을 하게 된다. 폭발적인 분출동안에 마그마 표면에서 식은 부분이 작은 조각으로 깨져 분기공에서 배출되어 나와 기공을 가지며 유리질을 띤 현무암질에서 안산암질 성분을 가진 용암석이 바로 송이다. 송이에 기공이 많은 성질은 분출하는 동안 화산작용에 의한 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 때문이다. 송이는 대체로 어두운 회색에서 검은 색을 띠게 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높은 철 성분 함유량 때문이다. 어떤 송이의 표면은 푸른 진주빛을 띠고 있으며, 산화작용이 일어나면 붉은 빛을 띠게 된다.

(2) 화산탄(Volcanic Bomb)

마그마 내부에 들어 있던 휘발성분이 상승하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마그마 속에 기포가 만들어진다. 이 때 만들어진 작은 기포들은 마그마 속에서 서로 모여 직경이 수m되는 크기로 되면서 마그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폭발적인 분출을 하게 된다. 폭발적인 분출동안에 마그마 표면에서 식은 부분이 64mm 보다 큰 용암덩어리로 깨져 분기공에서 배출되어 나와 대기중을 비행하는 동안 둥근 형태의 공기역학적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화산탄이다. 대부분의 화산탄은 지름이 64mm 보다 크다. 화산탄의 유형은 뽕껍질형 화산탄, 리본형 화산탄, 방추형 화산탄, 회전타원체형 화산탄, 소뿔형 화산탄 그리고 양배추형 화산탄 등이 있다. <사진 20. 마그마의 폭발적인 분출동안에 형성된 고구마형 화산탄>

(3) 용암동굴(Lava tube)

용암동굴은 용암흐름의 표면 아래로 이동하는 용암이 만들어낸 자연적인 터널이다. 동굴은 용암경로와 흐름의 위에 있는 지각에 의해 형성된다. 넓은 용암지대의 흐름은 종종 주요 용암터널과 하나 또는 그 이상 분리된 흐름 앞에 용암을 공급하는 작은 터널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낸다. 폭발이 끝날 때 용암의 공급이 멈추거나 용암은 다른 곳으로 흐름을 바꾸어 버린다. 동굴에 있는 용암이 아래로 경사지게 흘러내리게 되면 빈도관이 부분적으로 지면아래 남는다. 용암이 흘러가서 굳어버린 동굴에서는 벽면에 붙은 ‘하이 라바(high-lava)’ 흔적, 일반적으로 편평한 바닥과 천장에 매달린 종유석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용암은 아래쪽으로 파고 내려가면서 침식할 수 있는데 이는 동굴을 깊게하고 흐르는 용암 위로 빈공간을 남기게 된다.

작은 규모의 용암동굴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지표를 흐를 때, 용암의 표면이 먼저 식으면서 껍질이 만들어지고, 내부의 용암이 빠져나가 작은 규모의 용암동굴(lava tube)을 만든다. 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고, 길이는 수m 밖에 안된다. <사진 21. 현무암질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낸 용암동굴>

큰 규모의 용암동굴은 현무암질 용암이 계속 분출되어 많은 양의 용암이 흐를 때 용암류의 상부는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굳어지면서 쪼개져 흘러내려 가지만 용암류의 옆면은 차가운 지면과 접하면서 굳어져 용암 제방을 만들어 내게 된다. 많은 양의 용암이 반복되어 흐르면서 용암제방은 점점 성장하게 되고 최후에 흐른 용암은

용암동굴의 천정을 만들어내게 되어 큰 규모의 용암동굴(lava cave)이 만들어진다.

(4) 용암종유석(Lava stalactite)

용암종유는 재빨리 굳지 못한 용암이 용암동굴의 천장에서 떨어지거나, 동굴 내에 다시 용암이 지나갈 때 천장에 있는 암석이 부분적으로 녹으면서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상어 이빨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용암생성물이다. 용암종유는 주로 높이가 낮고 폭이 좁은 용암동굴 통로에서 많이 발견된다. 크기는 대체로 작지만 수십 센티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다. <사진 22. 용암동굴 속에 형성된 용암종유>

(5) 용암석순(Lava stalagmite)

용암석순은 용암동굴의 천장에서 뜨거운 용암이 용암종유를 만들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용암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용암이 떨어지면 바닥에서 위를 향해 석순이 자라게 된다. 석순의 모양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용암의 양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며, 크기는 수십cm에서 1m가 넘는 것도 있다. <사진 23. 용암동굴속에 형성된 용암석순>

(6) 새끼줄구조(Ropy structure)

새끼줄구조는 파호이호이 용암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가장 공통된 표면의 결이다. 수많은 습곡과 주름들은 새끼줄구조의 특징을 나타낸다. 현무암질 용암류의 흐름이 얇고 부분적으로 굳어진 걸쭉질은 걸쭉질 바로 밑에 있는 용암이 계속해서 앞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느리게 움직이거나 정지하게 된다. 이때 용암류의 걸쭉질은 주름이나 작은 융기선의 일련과 골을 발달시킬 만큼 충분히 휘어지기 쉬워 압축되고 앞으로 몰아지면서 마치 새끼를 꼬아 줄을 만든 새끼줄구조를 보이게 된다. <사진 24. 용암이 흐르면서 표면에 남긴 결인 새끼줄구조>

(7) 용암수형(Lava Tree)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지표를 흐를 때, 유동성 현무암질 용암은 주변에 자라고 있던 나무와 다른 물체를 감싸면서 그들 주위를 응고시켜 굳어진 것이다. 용암이 나무를 둘러싸서 만들어진 구조물을 용암수형이라고 부른다.

용암수형은 크게 두 가지 즉, 용암몰드(Lava mold)와 용암수형캐스트(Lava tree cast)가 있다.

용암몰드(Lava mold)는 용암류가 수목을 둘러싸면서 흐를 때, 수목이 타고나서 마치 굴뚝과 같은 구멍이 흔적으로 남은 것이다. 특히 용암류 위에 나무모양의 몰드가 형성된 것이다. 용암몰드 내부에는 수피(樹皮; 나무껍질의 구조)가 잘 나타나 있기도 한다. 용암수형은 대부분 파호이호이 용암에서 만들어 지지만 때때로 아아용암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한다.

용암수형캐스트(Lava tree cast)는 용암수형이 만들어 질 때 그 내부에 나무가 타서 남은 숯 혹은 나무 잔재물의 틈으로 용암류가 흘러들어가 굳어져서 독특한 형태의 용암구조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8) 튜물러스(Tumulus)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지표를 흐를 때, 유동성 현무암질 용암은 저지대에 쌓여 용암의 표면은 먼저 식어 굳어지게 되고, 내부에는 용암이 계속 공급됨에 따라 용암내부의 압력이 커지게 된다. 내부의 압력이 커져 용암을 위로 밀어 올려서 돔의 형태로 완만한 지형이 만들어진 것을 튜물러스라 한다.

편평하고 완만한 경사면에서의 파호이호이 용암 분출의 표면은 종종 튜물리라고 불리는 타원형 또는 돔형의 구조를 만든다. 튜물러스는 분출과정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녹은 용암 상부의 압력이 상층 지각을 위로 떠 받쳐 올리거나 부풀어 오르게 할 때 생겨난다. 또한 부서지기 쉬운 지각은 화산 분출시 부풀어 오르는 중심부에 의해서 부서지게 된다. 그런 균열은 일반적으로 튜물러스의 길이만큼 이어지게 되고 양 옆으로 보다 적고 불규칙적인 균열을 수반하고 있다. 용암은 주로 이런 균열을 통해 스며 나오며 때때로 속이 빈 겉 표면만을 남겨놓고 다 배출될 때가 있다.

(9) 용암구(Lava ball)

현무암질 용암이 흐를 때 용암이 떨어져 나와 구르면서 굳어져 마치 공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용암구라 한다. 제주도 만장굴 속에 있는 거북바위는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10) 부가용암구(附加鎔巖丘, Accretionary lava ball)

부가용암구는 아아 용암이 흐를 때 용암류의 위와 아래의 굳은 용암이 쪼개진 파편들이 클린커를 이루고 있는데, 아아용암이 흐를 때 내부의 용암이 클린커를 부착하면서 굴러 공모양의 큰 용암 덩어리를 부가용암구라고 한다. 이는 눈이 내린 겨울철에 눈사람을 만드는 원리와 같다. <사진 25. 클린커가 부착되면서 만들어진 부가용암구(내부의 불필요한 것은 파내고 특징적인 형상을 하고 있는 것만 남겨놓은 모습)>

(11) 꽃자왈의 암괴

꽃자왈을 이루고 있는 암괴는 화산이 분출할 때 흘러내리는 용암류 내부의 용암판(鎔巖板)과 용암판(鎔巖板) 사이의 부분이 유동중에 암석의 표면이 매우 거친 각력질 암괴 크기로 파쇄되어 표면이 암설류의 양상을 이룬 것이다. <사진 26. 꽃자왈 지대를 개간하면서 쌓아올린 암괴의 모습>

2) 꽃자왈 속의 희귀식물

(1) 붓순나무(*Illicium anisatum*)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진도, 완도 등에서 분포하며 한라산 표고 400m이하의 저지대의 꽃자왈과 난대림 계곡에 자생하는 상록성 수목이다. 꽃은 이른 봄에 백색으로 피며 가을에 익는 열매는 바람개비처럼 8개로 나누어지며 이를 두고 제주어로는 ‘팔각낭’ 이라고 부른다. 잎과 열매 및 꽃에는 독특한 향이 난다. 꽃자왈에서는 흔치 않으나 교래꽃자왈, 저지꽃자왈, 선흘꽃자왈 등지에 나타나며 특히 서검은이오름의 붓순나무 군락지는 인상적이다.

잎은 엷갈려나고 가죽질이며 일반적인 상록수와는 달리 연록색이다. 흔히 붓순나무는 숲 가장지리에 자생하는 양수로서 꽃이 고와 조경용 등으로 널리 이용한다.

(2) 흑오미자(*Schisandra repanda*)

흑오미자는 일본과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덩굴성 목본식물로서 꽃자왈 중에서 비교적 해발고가 높은 노꼬메오름에 자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라산의 낙엽활엽수림에는 비교적 흔한 식물이며 일본과 공통종이다. 유사종인 오미자와 혼동하기 쉬운 식물이며 도내에는 서식하지 않으나 한반도의 고지대에 널리 자생하며 열매가 익으면 적색으로 흑색열매가 달리는 흑오미자와 구분된다. <사진 27. 흑오미자>

(3) 가시딸기(*Rubus hongnoensis*)

장미과에 해당하는 식물로 세계에서 제주에만 분포하는 한국특산식물 중에 하나이다. 자생지는 천지연 난대림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조사에서 꽃자왈에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가시딸기라는 이름으로 보아서는 다른 산딸기보다 훨씬 가시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가시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나 간혹 줄기에 1~2개의 가시가 난다. 잎이 늦게 떨어져 상록같이 보이고 꽃은 4~5월에 피며 가을철에 황홍색으로 익는다. <사진 26. 가시딸기(왼쪽은 가시딸기의 꽃이고 오른쪽은 가시딸기의 잎)>

1914년 제주도식물을 조사한 나카이(Nakai)에 의해 서귀포 천지연계곡 주변에서 처음 발견되어 신종으로 알려진 식물이다.

꽃자왈에서 가시딸기는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종으로서 다른 희귀식물에 비해 서식처의 면적이나 개체수가 매우 많은 편이다. 그러나 본종은 이 지구상에는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제주특산 식물로서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희귀식물 범주 내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보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 큰우단일엽(*Pyrrhosia davidii*)

최근 제주도에에서 발견돼 국내 자생식물로 기록된 희귀한 상록성 양치식물로서 바

위나 나무에 붙어 자라는 식물이다. 이 식물의 자생지는 한반도에서는 제주도에만 있고 저지곶자왈에서 3개체를 발견했다.

우단일엽 보다 잎이 훨씬 크고 잎 끝이 주걱형으로 발달하는 점이 다르고 세뿔석 위와는 잎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큰우단일엽은 메마른 곳에 자라기에 잎은 두터운 가죽질이고 잎 뒷면은 다세포로서 방사상털이 많아 체내 수분 증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진화됐다. 큰우단일엽은 그 분포영역이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체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앞으로 범정보호식물로 지정해야 할 식물 중에 하나이다. 관상가치가 높아 이미 채집되는 사례도 있어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포자낭군은 잎 뒷면에 달리며 포막이 없다. 흔히 자생지에서는 콩짜개덩굴, 우단일엽, 세뿔석위 등과 함께 자라며, 주변에는 청미래덩굴이나 짚레 등 잡목림이 발달해 있어 자생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5) 백서향(*Daphne kiusiana*)

제주도 곶자왈 중에서 동백나무 맹아림에 널리 분포하는 희귀수목으로 상록활엽수 관목이다. 선홍곶자왈, 저지곶자왈, 산양곶자왈 등 한라산 동·서측의 거의 대부분 곶자왈에 서식하나 전국적으로 보면 자생하는 개체수가 적은편이다. 이른 봄에 흰색꽃이 피며 여름에 적색열매가 달린다.

남녘의 봄이 오는 문턱에 하얀 꽃을 피우는 이 나무는 향기가 너무나 강하여 천리를 간다는 의미로 천리향(千里香)이라고 흔히 부른다.

잎은 타원형으로 7~14cm, 나비 1.2~3.5cm이다.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잎자루가 짧으며 혁질(革質:가죽 같은 질감)이고 윤이 난다. 꽃은 암수딴그루이며 2~4월에 흰색으로 피는데, 향기가 나며 묵은 가지 끝에 모여 달린다. 한국(군산 군도·제주도·거제도)·일본에 분포한다.

(6) 물부추(*Isoetes japonica*)

부추과(Isoetes)의 식물들은 대부분 침수성 내지 정수성인 수생양치식물이며 일부 육생형인 종류도 있다. 본 속의 식물들은 외부의 형태적 특징이 종 사이에서 유사

하게 나타나는데, 이 종류들을 동정하는 데는 포자엽의 수와 크기, 경의 형태와 크기, 대포자와 소포자의 색깔과 크기 및 표면구조 등이 이용된다.

이 중에서도 대포자의 표면구조가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인정되어져 왔다(정 등 1986).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Ⅱ급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수생양치식물이다. 습생하는 식물의 특성상 자생지는 매우 제한되며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식물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제주도는 가장 많은 자생지가 있는데, 종에 대한 정립이 불확실한 종류로 식물분류학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꽃자왈은 물부추의 주 분포지는 아니지만 선홍꽃자왈에는 1개소의 자생지가 있다. 선홍 동백동산내에서 그 분포를 확인하였는데 자생개체는 50개체 이하로 적은 편이다.

7) 개가시나무(*Quercus gilva*)

제주도는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개가시나무 등 상록성 참나무류의 분포지로 알려져 왔으며, 특히 개가시나무는 한반도에서 제주에만 분포하는 종으로 다른 상록활엽 참나무류와는 달리 생육 북방한계선이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내한성이 가장 약한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주도내 분포도 매우 제한적이며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저지꽃자왈은 우리나라 최대의 자생지이며 총 200개체 내외이다. 선홍꽃자왈에도 분포하는데 꽃자왈의 대표적인 수종으로 꽃자왈 이외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수종의 하나이다.

저지꽃자왈의 해발 70m부터 해발 175m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해발 100~140m까지 집중적인 분포를 보인다. 선홍꽃자왈은 해발 100m 이하에 3본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대부분의 개가시나무는 맹아에 의해 성장한 결과로 평균 3~10개 정도 분지하여 생육하고 있다. <사진 29. 개가시나무>

(8) 순채(*Brasenia schreberi*)

수련과의 다년생 초본인 순채(*Brasenia schreberi*, 蓴菜 또는 蓴)는 부엽하는 수생식물로 전세계의 모든 분류군이 *B. schreberi* 1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최, 1998), 온대

와 열대지방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순채는 원래 유기물이 풍부한 연못에 자생하는 식물로 꽃자왈 주변이 과거부터 방목지로 활용돼왔기 때문에 분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선홍꽃자왈은 꽃자왈 중 유일하게 2개소의 자생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형적인 특성상 그 분포면적은 작은 편이다. 제주도내 순채 자생지는 동부지역에 밀집하는데 선홍꽃자왈은 분포상 가장 서쪽에 위치하며 습지의 형성이 빈약한 꽃자왈의 특성상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9) 으름난초(*Galeola septentrionalis*)

으름난초는 다년생 난과식물로, 국내에 분포하는 부생식물 중에는 가장 대형인 종류이며 전체에 엽록소가 없어 갈색을 띠는 무엽인 부생식물이다. 한라산의 해발 800m 이하의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 속에 분포하는데, 이는 본 종이 부생식물이면서 *Arimillariella* 라는 균과 공생하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제주군 교래꽃자왈(해발 400m내외)은 으름난초 분포의 하한선으로 이 지역은 비교적 토양 형성이 빈약한 지역으로 생육이 매우 제한적이라 볼 수 있으며 제주도내 으름난초 분포상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진 30. 으름난초>

(10) 천량금(*Maesa japonica*)

국내에 보고된 적이 없는 아열대성 목본식물로 북제주군 한경면 산양꽃자왈이 유일한 자생지이다. ‘천량금’은 마에사(*Maesa*)속(屬) 식물로 전 세계에 100여종이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 아열대지역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다.

제주도가 이 식물 분포의 북방 한계로 추정되는데 암 수 짝 그루인 상록 소관목으로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의 하부 함몰지역에 자라는 특징이다. 종(種)의 윗 단계인 속(屬) 수준의 미기록 식물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진 31. 마에사속 천량금>

현재 까지 산양꽃자왈을 중심으로 총 4개소에서 60여 개체를 확인되었으며, 지속적인 조사가 된다면 추가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개톱날고사리(*Athyrium sheareri*)

선홍꽃자왈에 자생하는 희귀한 상록성 양치식물로서 약 25㎡의 자생지를 확인했다. 근경으로 번식하는 종류여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체수는 500본 이하로 많지 않다. 자생지는 상록활엽수가 울창한 숲속이며 비교적 건조한 곳에 작은 군락을 이룬다.

근경은 땅 속으로 길게 뻗고 잎이 드문드문 달리며 잎자루 밑 부분과 함께 인편이 있다.

포자엽은 영양엽보다 크고 잎자루의 길이가 30~60cm이며 엽신은 길이 20~40cm, 폭이 10~20cm이며 1회 우상으로 갈라지고 끝이 뾰족하다. 우편은 얇게 또는 깊게 갈라지고 윗부분은 밑 부분이 가운데 축으로 흐른다. 열편은 끝이 둥글거나 둔하고 가장자리에 가시같이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영양엽의 우편은 얇게 갈라지고 밑 부분이 가운데 축에 붙는다. 포자낭군은 둥글거나 타원 모양이고 중앙맥 가까이 달리며, 포막은 갈고리 모양 또는 둥근 신장 모양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한국(제주)·일본·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12) 창일엽(*Microsorium buergerianum*)

창일엽은 상록성 양치식물로서 선홍꽃자왈 1개소에서 자생지 면적 3㎡내에 자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꽃자왈 지역과 천지연 폭포 주변 등 2개소에서만 확인되는 희귀식물이다. 공중습도가 높은 나무나 바위 곁에 붙어 자라며 잎은 단엽이다.

근경은 옆으로 번으며 인편은 적갈색 막질이다. 포자낭군은 둥근형이고 잎 뒷면에 불규칙하게 퍼져난다. <사진 32. 창일엽>

잎자루는 3~8cm로서 좁은 날개가 있고 어릴 때는 드문드문 인편이 있다. 잎맥은 복잡한 망상맥을 가진다. 도내 자생지에서는 상록수림이 울창한 곳에 작은 군락을 이루고 콩짜개덩굴, 쪽잔고사리, 석위 등과 모여난다. 일본과 중국남부 및 대만에 분포한다.

(13) 큰톱지네고사리(*Dryopteris dickinsii*)

상록성 양치식물로서 국내에 알려진 톱지네고사리(*D. atrata*)와 매우 유사한 종이다. 교래-송당꽃자왈에 대규모로 집단자생하며 오히려 톱지네고사리는 매우 희귀하다.

근경은 짧고 직립하여 관중처럼 잎은 총생하고 인편은 적갈색 또는 갈색이다.

제일 아래 우편은 짧아지고 20~30쌍으로 끝이 좁고 길게 된다. 포자낭군은 열편 가장자리에 치우쳐 달리고 이점이 톱지네고사리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다. 동백나무 맹아림의 꽃자왈에서 분포하지 않는 것은 이식물이 북방계양치식물 중에 하나로 좀더 시원한 곳에 분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북해도와 중국의 양자강 근처에 분포한다.

(14) 쇠고사리(*Arachniodes amabilis*)

쇠고사리는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롯하여 남부 도서지방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식물로서 면마과에 해당하는 양치식물이다. 쇠고사리 자생지는 선홍꽃자왈내에 있는 동굴 함몰지로서 상록수림이 울창한 음습한 곳이다. 비록 물이 흐르는 계곡은 아니지만 괴불이끼와 같은 종류와 함께 서식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곳이 얼마나 공중 습도가 높은 곳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자생지는 한여름에도 햇빛이 아래까지 도달하지 못 할 정도로 음침한 곳으로 주로 바위 곁에 붙어 자란다.

쇠고사리의 뿌리줄기는 짧고 끝에서 잎이 근접하여 나오며, 포막은 잎 뒷면에 붙고 둥근 신장형으로 열편 끝에 붙는다. 가는쇠고사리는 본 도의 상록 활엽수림에 가장 흔히 자생하는 양치식물로서 잎의 우편이 발달하고 윤기가 나는 점이 쇠고사리와는 다르다.

(15) 큰섬잔고사리(*Diplazium niponicum*)

큰섬잔고사리는 천지연폭포 주변과 교래꽃자왈에서 발견된 미기록 식물이다. 본디 열대지방에서는 상록성이지만 제주도에서는 낙엽성으로 자라고 잎의 크기 1.5m에 이른다. 근경은 굵어지며 옆으로 길어지고 인편은 갈색 또는 흑갈색이다.

잎은 2~3회 우상으로 갈라지며 엽질은 초질이고 포막은 가장자리가 잘게 갈라지며 소우편의 중륵 쪽으로 치우쳐 달린다.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들어 국내에도 자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제주도내 자생지는 토양습도가 보존이 잘되는 곳이나 함몰된 곳자왈에서 관찰되며 흔히 자생지에서는 군락을 이룬다. 유사종으로는 꽃자왈의 암고사리와 쇠섬에 자라는 검정비늘고사리가 있다.

(16) 겨울딸기(*Rubus buergeri* Miq.)

제주도에 자생하는 상록성 산딸기의 일종으로 열매가 겨울철에 익어 겨울딸기라고 한다. 꽃자왈에서는 비교적 건조한 저지대 숲 속에서 흔히 더부살이고사리와 함께 작은 군락을 이룬다.

잎은 엷갈려서 나고 둥근 모양으로 깊은 심장저이며 가장자리는 얇은 결각상으로 갈라진다. 일반적인 산딸기와는 달리 가시가 많지 않고 많다고 해도 거세지 않고 포복하는 특징이 있다. 꽃은 초여름에 흰색으로 피며 꽃잎과 꽃받침은 모두 5개이고 열매는 적색으로 익는다. <사진 33. 겨울딸기>

(17) 제주고사리삼(*Mankyua chejuense*)

제주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제주특산 양치식물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인 제주고사리삼의 대규모 군락지가 바로 선흘꽃자왈이다. 일제시대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만 분포하는 육상식물 ‘속(屬)’이 제주에서 발견된 것으로 매우 희귀한 식물이다. 제주대 생물학과 김문홍교수와 전북대 생물과학부 선병윤 교수에 의해 발견되었고 ‘제주고사리삼(*Mankyua chejuense* B.-Y. Sun et al)’은 고사리삼과(科)에 속하는 ‘새로운 속’으로 국제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유사종으로는 나도고사리삼과 고사리삼이 있는데 이들은 단엽지고 제주고사리삼은 잎이 3~5개로 갈라지면 포자낭군은 줄기 끝에 달린다. 자생지는 꽃자왈 사이에 더러 발달하는 빌레못(용암으로 이루어진 자연못) 주변으로서 장마기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고 건지에는 마르는 곳이다. <사진 34. 제주고사리삼>

(18) 제주지네고사리(*Dryopteris championii*)

‘제주지네고사리’는 상록성 양치식물로서 우리나라의 남부지방과 본도에서만 확인된 희귀식물이다. 이 식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제주도에 자생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제주도에서도 매우 희귀하다. 자생지는 꽃자왈로 종가시나무가 뺨뺨이 들어찬 숲 속으로 가는 쇠고사리 틈 속이다. 또한 자생지는 비교적 건조하며, 부엽층이 거의 없는 곳이다.

일반적인 지네고사리와는 주머니상 인편이 있는 점은 유사하나 잎 축에 갈색인편이 두드러지게 많으며 겨울이 되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19) 큰개관중(*Polystichum tsus-simense* var. *mayebarae*)

꽃자왈 중에서도 동백나무 맹아림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먼마과의 상록 초본성 양치식물로서 검정개관중의 변종으로 취급되는 종류이다. 인편은 갈색이며 중앙부는 흑색을 띤다. 우편의 폭은 2cm 정도 되고 열편은 가시같은 톱날이 발달해있다.

포자낭군은 소우편의 중륵 근처에 달리고 포막은 크다. 3배체 식물로서 무융합생식으로 번식한다. 국내에서는 저지꽃자왈에서 처음 발견됐다. 검개관중 보다 우편이 갈라지지 않고 우편기부 까지 흐르는 날개가 있다.

VI. 꽃자왈과 생활문화유산

1. 솥굽궐⁵⁾

석탄이 보급되기 전 제주도민들은 전적으로 자연환경으로부터 뿔감을 비롯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얻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뿔감을 구하는 것으로 하루세끼 식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매서운 겨울을 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그 시대를 보낸 도민들에게는 나뭇잎이나 죽어버린 나뭇가지, 삭정이를 하려 추운겨울에 야산을 헤매고 다녔던 기억이 남아있다.

특히 중산간 마을 주민들에게는 꽃자왈이 뿔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꽃자왈지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종과 수량이 풍부한데다 비교적 마을과 떨어져 지 않은 곳에 위치해 한번에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다. 꽃자왈내 뿔감채취는 연탄을 비롯한 화석연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산림벌채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이뤄지는 1970년대초 까지 도내 꽃자왈 전역에서 이뤄졌다.

현재 남아있는 꽃자왈은 구좌읍 비자림과 애월읍 금산공원을 제외하고는 맹아림지대다. 꽃자왈 숲이 지금과 같이 맹아림으로 이뤄진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1970년대 이전까지 꽃자왈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솥만들기 때문이다.

꽃자왈은 마을과 인접해 있어 뿔감, 솥 등을 구하기가 쉬웠던 장소 중 하나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1970년대전까지 꽃자왈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솥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솥을 굽거나 연료용으로 나무를 채취하는 행위가 꽃자왈 지역내에서 이뤄지면서 현재 꽃자왈지역은 맹아력이 뛰어난 식물들이 살아남아 맹아림을 만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벌채행위가 수백 년 동안 반복되면 꽃자왈지역내 소나무처럼 맹아력이 약한 나무는 살아남지 못하고 대신 맹아력이 뛰어난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등 상록성 참나무과 식물을 비롯해 녹나무과 식물 그리고 때죽나무, 팽나무 등 일부 낙엽활엽수만이 선택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제주에서 솥은 유용한 자원이었다. 한라산에서부터 해안마을에 이르기까지 판매·자급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솥이 구워졌다.

5) 솥을 굽기 위해 만들어진 가마를 부르는 제주방언.

제주교육대학교 정광중은 「꽃자왈과 제주인의 삶」(2004년, 제주교대 논문집)이라는 논문을 통해 1929년 당시 제주도내에서 소비되는 연료를 종류별로 추산해 정리한 조선총독부 자료를 인용해 땀감 조달 경로를 추론한 바 있다.

표 5. 1929년경 제주도 내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종류와 추정 소비량⁶⁾

취사용 및 우마의 사료 끓이기용		은돌용	
연료 종류	추정 소비량	연료 종류	추정 소비량
솔 잎	500,000	솔 잎	500,000
장 작	15,000,000	장 작	800,000
잡 초	5,000,000	잡 초	1,000,000
곡류 짚/깎지	10,000,000	곡 류 짚	2,000,000
석탄/연탄	2,000	낙 엽	1,000,000
낙 엽	1,000,000	말린 말뚝	소비량 미상
목 탄	400,000	합 계	5,300,000
합 계	31,902,000		

이 자료는 연료 사용에 따른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는 표 5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양의 장작이나 낙엽, 잡초, 솔잎, 목탄 등은 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고, 중산간지역의 임야나 꽃자왈지대에서 충당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집안에 대소사 때 특히 많은 땀감이 필요했다. 일시에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고, 일단 만들어 놓은 음식도 식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땀감을 소비해야만 했다.”면서 “특히 대소사 때 땀감 중에서 많은 양의 장작(薪炭)이 필요하게 되는 데, 이런 배경에서 장작은 필요시 상품과 판매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장작은 ‘바리’라는 단위로 팔고 샀으며, 대개 1바리는 장작 30개를 가리킨다고 한다. 장작의 크기는 경우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개 어른 팔뚝만한 정도이고, 1자반(45cm)가량 됐다고 한다.

숯은 대표적인 목탄연료다. 『제주도지(濟州道誌)』에 따르면, 자급용 또는 판매용으로서 제주의 숯 생산량은 1981년까지 통계에 나타난다.

6) 자료 : 朝鮮總督府, 1929, 『調査資料 第二十九輯 生活實態調査 濟州道』 135쪽

목탄 생산량 통계는 1957년부터 집계됐다. 그 해 49톤(생산액 196만원)이 생산된 것을 시작으로 1958년 56톤, 1959년 28톤, 이후 1963년에는 800톤으로 연간 최고 기록을 나타냈다. 생산액도 1억9076만원에 이르렀다. 이후 77년 100톤을 기록한 이후부터 계속 감소해 연간 100톤 미만으로 떨어지다가, 1981년 32톤을 생산한 것을 끝으로 통계에서 사라졌다. 연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로 대체되면서 목탄생산이 자취를 감추고 만 것이다.7)

곶자왈지대는 석탄과 석유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인 일제때부터 1960년대까지 숯을 생산하는 중요한 지대로 이용되어 왔으며, 곶자왈지대내에서 숯을 구웠던 흔적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다.

숯을 이용하던 제주도민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물이 숯가마와 거주지다. 특히 이 가운데 숯가마는 원형이 거의 보존된 채 남아있는 것도 있어 당시 숯을 굽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생활문화유적으로 가치가 있다.

안덕면 동광리 곶자왈지대에서는 비교적 원형이 남아있는 숯굽개를 볼 수 있다. 너비 3m, 높이 1.5m, 폭 2m 가량으로 되는 그리 크지 않은 숯굽개로 마을주민에 따르면 이곳 숯굽개는 조선시대 말 대정읍 신평리에서 옹기를 만드는 부드러운 흙을 운반해 만들었는데 100년가량 이용됐다. <사진 50. 안덕면 동광리 곶자왈지대에 남아있는 숯굽개의 모습>

숯굽는 작업은 규모에 따라 2~3명에서 규모가 큰 숯굽개는 10여명이 공동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숯을 굽는 일은 나무를 20~30cm가량 자른 뒤 숯가마 속에 동그랗게 쌓아올린다. 불이 잘 붙도록 마른풀을 그 위에 덮고 숯가마 안쪽은 흙으로 잘 발라 내부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다.

숯을 만들때까지는 보통 24시간정도 나무를 태우고 난후 가마내부에 넓게 펴 24~48시간가량을 기다리는 과정이다.

숯 굽기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숯 굽기는 보리와 조 수확, 또는 출베기(풀베기)가 끝나고 만든다. 숯을 만드는 일을 제주도민들은 ‘숯을 굽는다.’ 또는 ‘숯을 묻는다.’ 라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숯을 묻을 철이면 작은 솔이나 냄비와 같은 작은 취사도구를 가지고 산에 가서 밥을 지어먹으며 하루 이틀정도 노숙을 한다.8)

사람들에 따라서 간단히 몸을 널 수 있도록 돌과 나무를 이용해 임시 거처를 만든

7) 제주도 2006 제주도지 제4권 383쪽

8) 제주도 2006 제주도지 제4권 253쪽

다.

지금도 곶자왈내에서는 돌로 만들어진 거처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2~3m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규모가 큰 것들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솥을 굽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무단벌채를 단속하는 감시의 눈길을 피해야하고 농사일이 없는 겨울철에 솥을 많이 굽게 되면서 변변한 옷조차 입지 못한 채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뎌내야 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비교적 흐린 날을 이용해 솥을 구웠다. 연기나는 것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면의 한 할아버지는 “솥을 굽는 일은 불법이어서 늘 숨어서 해야했다.”며 “겨울철이면 추위에 떨어야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주민들에게는 그 당시 솥을 굽는 일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겨울 추위와 맞서 싸워야하는 또다른 생존을 위한 투쟁일 뿐이다.

솥을 굽는 재료로는 밤나무와 꾸지뽕나무, 가시나무, 산딸나무, 서어나무, 보리수나무, 소리나무 등이 쓰였는데 목질이 질긴 것들이 쓸모 있다.

특히 곶자왈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목질이 질겨 품질좋은 솥을 만들어내는데 알맞았다.

‘솥굴’ (솥가마)를 세는 단위는 ‘눌’ 또는 ‘구덩이’다. 보통 한 눌에는 2인이나 3인이 한조가 되어 작업을 했다.

솥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멩텡이’다. 다른 사람과 한조가 되어 솥을 만들었을 때는 ‘멩텡이’로 분배한다. 9)

동광리 솥가마는 보통 10가마에 못 미칠 소규모로 솥을 생산했는데 주민들은 솥을 팔아 보리쌀을 비롯한 생필품으로 바꿔 생활해왔다.

이밖에 현재 신화역사공원 개발예정지인 서광서리 곶자왈지대에서도 솥굽개를 4군데에서 만날 수 있다.

보통 솥가마는 숲 속의 경사지를 이용하여 땅을 약 1.5m 정도 파낸 다음, 안쪽 내부를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약 100~200cm 높이로 지면까지 돌을 쌓아 올린 형태다. 가마의 좌우(장축)는 200~300cm, 상하(단축)는 150~200cm 정도이고, 불을 때는 아궁이(입구) 쪽은 폭이 약 90cm 정도 규모다.

지름 3m 내외, 1.5m 깊이로 땅을 판 뒤 곶자왈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크기의 돌을 이용해 울타리를 만들었고, 불을 지피는 화구와 연기가 배출되는 굴뚝구

9) 제주도 2006 제주도지 제4권 256쪽

멍을 가마의 머리부분에 널 만큼 머리를 쓴 과학적인 솟가마다. 그 속에 벌목한 나무를 쌓아놓고 흙으로 덮여 불을 지피 나무장작들이 타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화역사공원 부지내 남아있는 솟굽궐중 하나를 보면 배연구에서 수직으로 가마 상면을 향하여 연도구가 있으며 규모는 장축 670cm 단축 540cm 탄화실 중앙부 높이는 120cm,천정의 두께는 60cm가량이다. 축조방식은 자연석을 이용해 돛의 형태로 쌓아올리고 난후 천정부에 진흙으로 다져놓았다.

가마에 따라 높이와 크기는 차이를 보인다.

아직까지 솟가마에 대한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채 개발과정에서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아쉬움이 크다.

솟굽는 일은 아무래도 원시적으로 연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엄청난 면적의 숲이 베어나가고 산림자체를 훼손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지금은 숲이 울창한 곳자왓을 보는데 한때는 곳자왓 곳곳이 솟을 굽느라 나무들이 베어진채 별정계 드러난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그나마 곳자왓이 다시 지금처럼 원시식생을 찾아가는 것은 솟굽는 과정이 곳자왓의 지형지질은 파괴하지 않는 원시적 이용수준이었으니 가능한 일이다.

지금처럼 굴삭기를 이용해 나무를 캐내고 바위를 들어내고 땅을 갈아엎는 무자비한 개발이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곳자왓은 황량한 벌판이 됐을지 모른다.

개발바람에 현재 남아있는 솟굽궐도 곳자왓속에 파묻혀 어느 순간 사라질 위협에 놓여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개발과 사람 손길, 세월무게에 아름아름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옛 사람들의 유산으로 남을 처지다.

솟가마터는 과거의 유산에 불과하다고 단정해 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선인들의 삶과 직결된 문화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문화유산 가치로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이다.

2. 용기가마

솟굽궐과 함께 곳자왓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생활문화유적인 용기를 만들었던 가마터다.

제주용기를 크게 ‘노랑그릇’과 ‘검은그릇’으로 나누는데 노랑그릇을 만들던

가마를 ‘노랑굴’, 검은그릇을 만들던 가마는 ‘검은굴’ 이라 불렀다.

옹기를 굽는 가마를 제주에서는 굴이라고 불렀는데 가마 형태와 굽는 방법에 따라 노랑굴과 검은굴로 불리며 생산되는 옹기 또한 다르다.

노랑굴이란 만들어내는 그릇의 재료인 흙과 구워지는 온도, 그리고 환원되는 성질과 빛깔에 의해서 그릇의 표면이 노란색을 많이 띠는 가마를 말한다. 노랑굴에서는 붉은 빛이 감도는 물허벅과 항아리, 된장독과 같은 생활용품들을 만들어냈다.

이와 달리 검은 빛깔 옹기를 만드는 가마를 검은굴이라 했는데 검은굴에서는 떡시루, 사발, 대접 등 제사용품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냈다.

제주의 전통옹기를 만들던 가마는 1960년대까지 이용된 것으로 전해오나 정확한 기록은 없다. 현재 남아있는 가마터가 그리 많지는 않으나 일부 가마터가 곳자왈지대에 남아있다. 흙으로 만들던 옹기가마가 곳자왈지역에 있는 것은 마을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데다 땀감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따른다.

우리나라 내륙지방에서는 흙을 이용해 토석을 만들어 사용했지만 제주도에서는 대부분 다공질 현무암을 그대로 사용해 가마를 축조했다. 이것은 제주도 돌이 화산폭발에 의한 용암석이어서 ‘내화재(耐火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¹⁰⁾

흙은 부족하고 돌은 풍부한 화산섬이라는 제주도 특성을 그대로 살려 돌을 이용한 가마를 만든 것으로 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또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느끼게 한다.

제주 전통옹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흙은 붉은 색을 띠는 황토와 회색빛을 띠는 ‘고냉이흙’ 이 잘 섞여진 질흙(점토)이다. 물론 곳자왈지대에는 옹기를 만들만한 이와같은 흙을 구할 수가 없다. 대부분 암반이거나 자갈이 섞인 곳자왈지대 흙으로는 옹기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옹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와야 한다.

노랑굴 가마 구조는 바람을 막는 부장쟁이, 아궁이 역할을 하는 부장, 기물을 재입하는 굴안, 연기가 빠져나가는 뒷부분인 굴뒤로 나뉜다. 이는 검은굴이나 기왓굴과 달리 각 부분이 형태가 구조가 분명하게 구분된다. <사진 51. 곳자왈지대에 남아 있는 노랑굴의 모습>

가마는 굴대장이라고 불리는 경험많은 도공들에 의해 축조된다. 기물을 성형하는 도공이나 흙을 준비하는 건애꾼, 그리고 소성하는 불대장이 가마를 축조하는 일은

10) 이경호, 1995, 제주도의 가마 8쪽

없다. 가마는 바닥경사도가 대략 20도 정도이며 통처럼 뚫려 있는 통가마이다. 산소를 유입해 소성하는 산화소성방식으로 옹기를 만들어내는데 옹기표면이 노란색을 머금은 붉그스름한 갈색으로 나타나 노랑굴이라는 이름을 갖는다.¹¹⁾

지금까지 꽃자왈지대에 남아있는 대표적 가마는 대정읍 신평리 ‘앞동산 노랑굴’과 대정읍 구억리 ‘섯쿨노랑굴’, 한경면 산양리 ‘조롱물 노랑굴’, 한경면 청수리 월광동 노랑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산양리 조롱물 노랑굴을 살펴보자.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조롱물 노랑굴은 행정구역상으로는 한경면 산양리에 속하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인향동 마을에 있는 속칭 ‘조롱물’과 가까워 조롱물 노랑굴로 불린다.

지금은 화구와 천정, 굴뚝부분이 훼손된 상태나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가마터로 길이가 1265cm, 너비 150cm, 높이는 200cm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가마는 넓적한 현무암 잡석과 진흙을 빚어서 벽과 천장을 만들었으며 가마벽 내부는 흙을 발랐다. 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돌 틈 사이를 자갈로 막았으며 가마 내부는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다. 천장은 둥그스름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천정과 양벽이 마주치는 부분은 급한 곡선을 이룬다.¹²⁾

마을주민에 따르면 조롱물 노랑굴은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물허벅이나 항아리, 병 등 생활용품을 생산해 직접 사용하거나 시장에 팔아 생계를 꾸려왔다.

조롱물 노랑굴은 1960년대 말까지 사용됐으나 그 후로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훼손됐다.

3. 제주 4·3과 꽃자왈

제주 4·3은 제주사람이나 자연 모두에게 가혹한 상처를 남겼다. 당시 제주사람들치고 4·3이라는 역사적 아픔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는 한사람도 없었다. 제주땅 곳곳에 삶과 죽음을 가르는 슬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정부공식기록인 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 수만 2만5000명~3만명에 이

11) 제주도, 2006, 제주도지 제7권 599쪽

12) 제주도, 1997년 제주민속유적 230쪽

르고 있다.

중산간에 위치한 곳자왈 역시 4.3의 속 깊은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다. 곳자왈은 중산간 지대에 위치해 있고 몸을 피할 숲이 무성한데다 용암 지형상 크고 작은 굴이나 켜가 존재하고 있어 무장대의 근거지나 군경 토벌대를 피하기 위한 주민들의 피신처가 됐다. <사진 52. 월림-신평곳자왈지대의 모습>

1948년 11월 토벌대에 의한 대대적인 소개 작전은 중산간 주민들의 삶을 파괴시켰다. 이로 인해 수많은 중산간 마을이 불에 타 ‘잃어버린 마을’이 됐으며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강경진압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 마을 주민 2만명 가량을 산으로 내모는 결과가 빚어졌다. 무장대는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 한라산 중허리 오름에다 봉화를 올리고 무장봉기를 시작했다. 한라산 중허리는 주로 곳자왈지대가 분포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기록에 남아있는 무장대 주요거점지역 가운데 곳자왈지대이거나 곳자왈을 포함하는 오름지대는 대정읍 세미곶과 남송악, 조천읍 검은오름, 바농오름, 백악이 오름 등으로 대부분 곳자왈이 우거진 지역이다.

또 주한미육군 사령부 정보일지 1949년 3월 30일~4월 1일 현장보고에는 반도부대의 위치가 영림소(조천읍 교래리 검은오름주변), 성판악, 평지, 돌오름이며 훈련소는 물장오리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곳자왈지역 오름에도 부대가 위치해 있음을 볼 수 있다.¹³⁾

물장오리는 제주시 아라동과 봉개동 경계로 한라산, 영실(5백장군)과 함께 3대 성산으로 불리기도 했다. 물장오리는 4·3 당시 유격대 훈련장이 있던 곳으로 주위에 테역장오리, 쌀손장오리, 불칸디오름이 있다. 군경토벌대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오름 부근에 유격훈련학교가 있었다고 한다. 1948년 6월에는 경찰토벌대와 유격대간 전투가 펼쳐지기도 했는데 20여명의 경찰토벌대가 몰살당했다는 기록도 있다. 정상에는 원형 화구호가 있으며 설문대할망이 빠져죽었다는 전설도 내려오고 있다.

조천읍 교래리 속칭 ‘이덕구 산전’으로 불리는 ‘북반친밭’도 무장대의 흔적이 남아있다. 교래리 인근에는 곳자왈과 숲이 우거진 오름이 많아 피난주민은 물론 무장대의 은신처와 활동이 있었던 곳이다.

조천읍 교래리 산 137-1번지에 위치한 이덕구 산전은 Y자 형태를 그리며 만나는 ‘뱃사모루내’ (남쪽), ‘안삿모루내’ (북쪽)의 Y자 가운데 부분에 있다. 1948년 말

13) 제주도의회 『제주4.3자료집-미군정 보고서』 171쪽

부터 1949년 3월까지 겨울동안 봉개리와 용강마을 사람들의 피난처였다.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당시 무장대 주력부대인 이덕구 부대가 머물렀던 곳이라고 한다. 지금도 소규모 은신처를 비롯해 집단 은신처들이 남아있으며 깨진 슬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한경면 저지리에서 남동쪽 5km에 위치한 한수기곳은 4·3초기 한림, 대정 무장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그 이후에는 토벌대의 학살을 피해 주민들이 은신했던 곳이다. 기록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거문오름과 한경면 청수리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로 이어지는 한수기곳 등지에서 죽창이나 철창을 준비했다는 기록도 있다.¹⁴⁾

한수기곳은 대정읍 무릉리 인향동 동북쪽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몇 안되는 꽃자왈지대다. 지금은 온통 꽃자왈 숲으로 우거져 들어가기 힘들지만 이곳에는 굴이 많아 4.3당시 대정면과 한경면 주민들 중 토벌대가 무서워 소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은신처로 이용됐던 곳이다.

한수기곳 서쪽에 위치해 있는 한수기굴은 한림면 유격대들이 은거했던 곳이다. 이 굴 속에는 철창과 죽창의 제조흔적이 발견됐었으며 칸을 나누기 위해 돌을 쌓은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어 유격대의 은거 생활을 짐작케 해준다. 한수기곳 서쪽에 널려 있는 유격대 아지트의 흔적들은 대정면 유격대가 은거 했던 곳이다. 4·3항쟁 발발 직후 지서를 습격했던 대정면 청년들이 피신하면서부터 이곳은 대정면 유격대의 아지트가 되었다.

주한미군육군사령부의 <G-2보고서>에 따르면 “폭도부대 야영지에는 뽕죽한 초가지붕에 직경 4야드, 높이 2야드 규모로 8개의 둥근 바위와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 막사가 있었다. 부대 입구에는 1인용 보초탑이 세워져 있었다… 숙소는 특별한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었으며 숙소 외에 취사용 움막이 있었는데 이 움막은 나뭇가지를 덮은 몇 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졌고 나무 2그루가 지탱해 주소 있다” 는 기록도 나온다. 무장대의 식수원 중 하나인 ‘봉근물’ 의 자취는 아직도 남아있다.

대정읍 인향동 마을에 서면 한수기곳 너머로 저 멀리 남송악이 보인다. 꽃자왈지대는 무장대 뿐 아니라 주민들이 목숨을 건 도피처로도 이용됐다. 일부 주민들이 토벌대 명령대로 해안으로 소개돼 내려오지만 여전히 내려가지 못한 많은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토벌대를 피해 산이나 꽃자왈과 같은 산림지대로 몸을 숨겨야했다.

마을주민들은 그해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과 집, 가축을 남기고 마을을 떠날 수 없

14)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1권 589쪽

어 어쩔 수 없이 인근 산이나 곳자왈로 숨어든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토벌대들이 대대적인 소탕작전 속에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늘어나면서 1949년 들어 한라산과 가까운 깊숙한 지역까지 올라가게 된다.

열안지오름인근 비남도와 관음사 인근, 물장오리와 같은 한라산일대와 함께 한수기곶, 뒷곶과 같이 숲이 깊은 곳자왈지대도 피난처가 됐다.

당시 주민들이 숨었던 곳자왈지역 피난처로는 대정읍 무릉2리 한수기곶을 비롯해 큰넓궤와 도엣궤(안덕면 동광리), 왕모루곶(조천읍 와산리), 대섭이굴(조천읍 선흘리), 도톨굴(조천읍 선흘리), 목시물굴(조천읍 선흘리), 벤뱅디굴(조천읍 선흘리), 뒷곶(조천읍 교래리), 늑서리곶(조천읍 교래리), 바농오름(조천읍 교래리)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¹⁵⁾

이 가운데 큰넓궤와 도엣궤는 월림신평곶자왈지대에 속하는 곳으로 1948년 이후 동광주민들이 2개월가량 생활했던 곳이다.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에 위치한 큰넓궤는 초토화작전이 시행된 이후 1948년 11월15일 동광리 주민들이 숨어들게 됐다. 토벌대가 무동이왓 주민들을 모이게 한 후 10명을 총살했다. 그 후 주민들은 주로 도너리오름 곳자왈에 숨어 지내다 큰 넓궤를 발견하게 된다. 큰넓궤는 한 사람이 기어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좁으나 절벽을 내려서 30m 정도 가면 넓은 장소로 되어 있어 숨어살기 좋은 공간구조이다. 큰넓궤 중간에는 토벌대의 총알을 막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보이는 작은 돌담도 있다. 주거지와 피난생활유적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화장실 공간도 있었다고 한다. 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120여명이 이 굴 속에서 은신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큰넓궤는 이제 4.3 유적지 순례 중 지나칠 수 없는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는 동굴입구가 철책으로 막혀있어 사전에 행정당국에게 문의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도엣궤는 큰넓궤 동쪽 50m지점에 위치해 있다. 길이는 대략 30m로 향아리 파편들이 남아있다. 큰넓궤와 도엣궤는 이어진 굴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조천읍 선흘리 일대는 방대한 규모의 선흘곶이 있어 땀나무가 풍부했으며 인근 반못 등이 있어 주민들의 식수와 우마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선흘곶 일대에는 아름드리 나무와 크고 작은 궤가 있어 주민들이 피난처가 됐다. 무장대의 영향이 강했던 중산간 마을이어서 토벌대가 주시하고 있었던 곳으로 피해도 매우 컸다.

1949년 봄에는 선흘리 2734번지 일대에 낙선동성터를 쌓고 집단거주를 하기도 했

15) 제주도 『제주4·3유적 I·II』

다.

대섭이굴과 도틀굴, 목시물굴은 모두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동굴로 선흘리 마을 주민들이 숨어 생활했으나 잇따라 토벌대에 적발돼 희생된 곳이다. 대섭이굴은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 일대가 토벌대에 의해 초토화되자 선흘 주민들이 토벌대를 피해 숨어 지냈던 곳이다.

도틀굴도 대섭이굴과 마찬가지로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 일대가 초토화 된 후 이를 피해 숨어있던 마을청년 18명이 11월 25일 토벌대에 발각돼 학살된 곳이다.

목시물굴 역시 마찬가지로 선흘주민 40명이 11월 26일 발각돼 희생된 곳으로 선흘리 마을주민들이 하룻사이에 58명이 희생된 아픔이 있는 곳이다. 당시 생존자 가운데 증언에 따르면 “희생자 가운데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다” 고 증언하고 있다. 또 “채 들도 지나지 않은 여자아이는 자꾸 우니까 울음소리 때문에 들킬 것을 염려한 아이 아빠가 입을 틀어막았는데 숨이 막혀 죽었다” 는 증언도 있다.

조천읍 선흘리 산 26번지에 위치한 목시물굴은 입구가 두 개다. 대략 길이는 100m 가량으로 용암이 흐르다 굳어버린 암석이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굴 입구에는 4.3 당시 주민들이 움막을 짓고 살았다는 증언이 있으며 지금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선흘리 꽃자왈지대에 위치한 벤뱅디굴 역시 25일과 26일 사이 도틀굴과 목시물굴에서 빠져나온 주민들이 숨어있다 27일 토벌대에 발각돼 숨진 곳이다.

제주도기념물 52호인 벤뱅디굴은 70여개의 용암석수와 석순, 사통발달형 국내 최대 미로동굴로 마을사람들이 숨기에 알맞은 곳이었으나 토벌대의 눈을 피해갈수는 없었다. 당시 동굴에 숨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마을사람들에 따르면 당시 25명이 동굴에서 끌려나오자 마자 총살됐다고 전한다.

벤뱅디굴 인근에는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나 토벌대가 드나드는 걸 살피는 보초막의 흔적도 찾을 수 있다.

조천읍 교래리 인근 역시 꽃자왈과 숲이 우거진 오름이 많아 피난주민들의 은신처가 됐다. 무장대의 은신처이기도 했으며 1948년 10월부터 초토화작전 직전까지 군부대 주둔지도 있었다. 교래리 꽃자왈지대인 뒷곳은 마을주민들이 1948년 11월 대토벌을 피해 숨어들었던 곳이다. 한때 100호가 넘던 교래리는 1948년 11월 13일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잿더미가 되고 만다. 다행히 살아남은 주민들은 함덕리를

비롯한 인근마을로 흩어졌으며 그래도 마을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곳자왈인 뒷곳으로 몸을 숨기기도 했다. 그러나 토벌대에 쫓기면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붙잡힌 주민들은 함덕 대대본부로 끌려가 육지형무소로 수감되거나 희생되기도 했다.

뒷곳과 하나로 연결된 늪서리오름일대 곳자왈지대에는 1948년 11월 중순이후 토벌을 피해 조천면과 남원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많이 숨어살던 곳이다. 늪서리곳은 교래주민 뿐만 아니라 대흘리, 와흘리 주민들도 피신했던 곳이다. 지금도 교래곳자왈지대에는 돌을 쌓아 만든 임시 주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 당시 상황을 어렵게나마 느낌이 든다.

바농오름은 조천읍 교래리 산108번지에 있는 오름으로 대흘리와 와흘리 등 인근주민과 무장대가 일시적으로 살았던 곳이다. 바농오름 일대는 늪서리곳자왈과 교래리 뒷곳과 연결된 곳자왈지대로 곳자왈숲이 매우 넓어 4·3당시 많은 주민들이 숨어들었으며 지금도 이 부근에는 주민들이 피난당시 이용했던 돌로 만든 ‘움막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산간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조천리 등 해안지대인 주민들도 탄압을 피해 은신했다고 한다. 이 곳에는 무장대가 일시적으로 주둔하기도 했다.

곳자왈에 위치해 있는 4·3 유적들은 지금 제모습을 간직한 곳이 드물다.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관광개발로 이 일대 곳자왈은 옛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다. 다만 당시 은신처였던 굴들이 남아있어 그 당시 자취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제주4·3연구소와 제주도 등에서 목시물굴, 이덕구 산전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유적지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 그 속도는 느리다.

4. 노동이 만들어낸 돌담

화산섬 제주에서는 땅 위에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전체가 돌이고 돌 사이 흙이 있을 뿐이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일자체가 다른 지방과 비교해 무척이나 고된 노동이었으리라. 제주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야 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고 노동의 가치를 일깨우는 일이다.

특히 파내도 파내도 끊임없이 나오는 돌을 골라내고 밭을 일구는 일이야말로 엄청난 끈기와 노동이 필요한 일이다.

제주 돌담을 가리켜 흑룡만리(黑龍萬里)라 부르기도 한다. 검은색 현무암이 만들어

낸 돌담을 모두 이으면 만리가 된다는데서 나온 말이다. 이렇듯 돌담은 부지런한 제주사람들이 만들어낸 값진 생활유산이다.

제주사람들은 돌담을 쌓음으로서 바람을 막고 밭을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또 가축을 지켰다.

돌담은 제주인들이 바람과 땅을 돌로 다스려온 생활문화의 유산인 것이다. <사진

53. 집으로 들어가는 올래의 돌담>

‘жат백(담)’은 잔 돌맹이나 자갈로 성담처럼 넓고 기다랗게 마주 덧붙여 쌓아 올린 돌담을 말한다. 또 돌을 밭 가운데 방사탑처럼 모아 놓기도 하는데 이를 ‘머들’이라고 한다. 이제는 나무가 무성해진 곳자왈내에서도 ‘돌담’과 ‘머들’, ‘жат백’은 쉽게 볼 수 있다.

과거 목장으로 쓰거나 일부 경작이 가능한 곳은 자갈돌들을 치우며 농사를 짓었던 흔적들이다. 곳자왈에 흔히 볼수 있는 현무암 자갈이 농사에 오히려 도움을 주기도 한다. 화산회토인 제주토양은 가벼워 바람에 쉽게 날리고 수분증발이 쉬운데 자갈은 흙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 자체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농작물이 자라는데 도움을 준다해서 ‘지름자갈’ (기름자갈)이라 한다.

돌담과 ‘머들’ ‘жат백’ 모두 돌만은 화산섬을 살아가는 제주사람들이 땀으로 쌓아 놓은 소중한 생활유산이다. 무너질 듯, 끊길 듯 하면서도 온 섬을 이어온 제주 돌담은 생명과 제주사람 특유의 공동체를 느끼게 한다.

콘크리트 담벽이 아니라 높아도 어른 키 하나정도 되는 돌담은 소통이 있다. 바람을 막아주되 온전히 막지는 않으며 오히려 소통하기에 버틴다. 이웃과 경계를 이루면서도 단절하지 않고 삶이 소통한다.

가난하고 고된 삶속에서도 돌담 너머로 이웃간 떡반이 오가고 이야기가 오가며 공동체를 이룬다. 무너질 듯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돌담이 서로 기대어 있기에 그렇듯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온 제주도가 공동체성을 갖는 것도 돌담을 닮은 탓이다. 그러나 제주의 역사이자 훌륭한 나눔공동체의 산물인 제주 돌담이 사라지고 있다.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아래 곳자왈이 사라지고 돌담도 사라지고 대신 골프장과 철조망 경계와 콘크리트 벽이 제주사회를 가로막고 있다. 단순히 돌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독특한 삶과 정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VII. 속담속에 담긴 곳자왈과 제주인의 삶

자연환경을 벗어난 삶이란 있을 수 없다.

곳자왈은 제주사람들에게 무수한 삶을 이어온 생활터전이었으며 곳자왈 또는 제주 자연과 관련된 속담을 남겼다.

대부분 나무와 식물과 관련한 속담들인데 어느 것 하나 허튼 것들이 아니라 식물과 자연환경의 순리와 특성을 그대로 나타낸 속담을 보면서 깊은 지혜를 느낀다.

• 고사린 아홉 성제이다(고사리는 아홉 형제이다)

곳자왈은 양치식물의 보고이다. 적절한 온도와 지열이 유지되는 탓에 고사리들이 천국을 이루고 있어 봄철이면 곳자왈 속으로 고사리를 꺾는 발길이 이어진다.

또 봄·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푸른 고사리를 볼 수 있는 곳자왈은 먹을 것이 없어진 동물들에게 요긴한 먹을거리가 된다.

번식력이 좋은 고사리는 꺾어버리면 다시 솟아나는데 그 횟수가 아홉 번에 이른다는 말이다. 또 일년 열두달중 추운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아홉달은 포자 번식이 가능하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 곧은 낭은(근) 가운데 산다.(곧은 나무는 가운데 선다)

숲을 이루는 나무들을 보면 구부러진 것도 있고 곧게 솟아오른 것들도 있다.

가운데 있는 나무일수록 곧게 뻗어 오르고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는 잘 구부러진다는 뜻이다. 물론 숲이 발달하면서 숲 가운데는 키 큰 나무들이 자라나고 또 생존을 위해서는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키를 키워야하는 이유다.

상징성을 띤 말로 사람도 사람들 사이에서 고고하고 올곧은 존재로 성장해야한다는 뜻이다.

• 꼭 걷으레 간 놈이 정당(동)벌립¹⁶⁾ 망 돌른다.(취 걷으러 간 놈이 정당벌립 망 뛰는다)

취냉쿨은 옛날 농가에서 밧줄로 쓰는 중요한 재료다.

취는 곳자왈 덩불 주변에 많이 있어 마을사람들은 취를 얻기 위해서는 곳자왈 덩

16) 덩땡이 덩굴로 엮어서 만든 패랭이 모양의 병거지.

불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건어야할 칩은 안 건고 머리에 쓰고 있던 정당벌립 망이 헐어 떨어진 것만 생각해 주저앉아 떨어진 망을 새로 엮는데 몰두한다는 말이다.

해야 할 일은 뒷전에 둔 채 외딴 일에 빠지고 마는 것에 대한 나무라는 속담이다.

- 나무렌 낭에 눈 걸린다.(나무란 나무에 눈 걸린다)

곶자왓 나무는 제주사람들에게 중요한 재료로 농기구나 배 만들기에서 뿔감까지 다양하게 쓰인다. 그 가운데 울곧게 자란 아름드리 재목은 배를 만들거나 집을 짓는 등 중요한 일에 쓰고 가지가 많고 작은 나무들은 뿔감으로 쓰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울곧게 자란 큰 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나무를 하찮게 보는데 막상 큰 나무를 캐기 위해서는 작은 나무숲을 헤치고 가야한다.

그러나 작은 나무는 겉가지가 거칠게 많이 뻗어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눈이 찢려 실명위기를 맞게 된다.

사람들도 변변치 못해 나무라는 사람한테 된코를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이다.

- 낭 서두린¹⁷⁾ 불 솟곡, 돌 서두린 담 답나.(나무 서두리는 불 때고, 돌 서두리는 담 쌓는다)

곶자왓숲 나무는 건축재부터 뿔감용까지 크건 작건 간에 쓸모가 있다. 재목감이 못되는 나무는 뿔감용 장작으로 쓸 수 있으니 활용가치가 없는 나무는 없다.

또한 돌도 마찬가지로 돌맹이 하나라도 돌담을 쌓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그렇듯 물건은 쓸모없이 생긴 것조차 다 나름대로 쓰이는 곳이 있기에 물건이든 사람이든 쉬이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 낭은 돌의(으)지, 돌은 낭 의(으)지.(나무는 돌을 의지하고 돌은 나무를 의지)

흙이 거의 없는 곶자왓에서 자라는 나무는 돌맹이나 바위를 의지하며 자란다.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는 더욱더 뿌리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또한 돌은 돌대로 나무에 의지하고 있어야 더 든든히 터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곶자왓을 비롯한 숲에서 나무와 돌이 공존하는 것을 빗댄 말로 사람들도 서로서로

17) 서두리=쓸모없이 생긴 것

도우면서 살아가야 함을 말한다. <사진 54. 압괴를 둘러싸고 자라는 나무의 끈질긴 생명력>

- 낭흐레 간 놈 정당벌립¹⁸⁾ 튼영(언) 경(전) 온다.(나무하러 간 놈이 정당벌립 뜯어서 지고 온다.

옛날 제주도민들은 곳자왈을 비롯한 산에 가서 땀감을 하고 왔는데 이를 지고 올려면 단단하고 질긴 끈이 있어야 한다. 산에는 질긴 칙닝쿨이 있어서 보통 칙을 이용해 나무짐을 지고 왔는데 자기가 쓰고 있는 병거지를 엮은 땀땀이 줄을 풀어지고 온다는 말이다.

일을 제대로 헤아려 대처할 수 없는 우둔함을 빗대는 말이다.

- ‘방엔 굴무기, 절권 도애낭’ (방아는 느티나무, 절구는 복숭아나무)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 때 설음식이나 추석 음식을 풍성히 만들어 제사상에 올리기 위하여 그 해에 생산한 곡식을 이용해서 음식을 장만하게 된다. 음식 중에 떡을 만들기 위해선 쌀을 빻아야 하는데, 쌀을 빻기 위해선 방애와 절굿공이가 필요하다. 방애는 남방애와 들방애가 있다. 방애는 주로 목재가 무겁고 질긴 재료로 된 나무를 이용하여 만들고 있다. 남방애를 만들때는 굴묵낭(다른 지역에서는 굴무기낭이라고도 하며 표준어로는 느티나무이다)을 주로 사용하지만 자배낭과 가시낭을 사용하며, 들방애를 만들때는 남방애보다 더 질긴 목질을 갖고 있는 자귀낭이라든가 자배낭 그리고 가시낭을 이용한다. 또한 절굿공이는 복숭아나무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즉, 방아는 느티나무로 방아를 만들었고 절굿공이는 복숭아나무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비슷한 말로는 방엔 보난 굴무기낭 방애/절권 보난 도웨낭 절귀(맷돌·방아노래)

- 누운 낭에 으름(을메) 안 온다.(누운 나무에는 열매 안 연다.)

숲에서 자라던 나무가 바람이나 생존 경쟁에서 쓰러지면 자라는 데 필요한 햇빛이나 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서서히 죽고 만다. 물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도 정상적인 성장여건을 갖추고 제대로 활동해야 제 구실을 다할수 있음을 나

18) 정당(동)벌립=땀땀이 덩굴로 엮어 패랭이처럼 만든 병거지.

무 생태에 빗댄 말이다.

- 도계아들광 휘초린 옷놀(놀)이낭이 제일이다.(도리깃열과 회초리는 옷놀이나무가 제일이다.)

농가에서 도구를 만드는 나무는 우선 질기고 단단해야한다.

곡식 알갱이를 떨어내는 도리깃열이나 매를 때리는 회초리도마찬가지다.

옷놀이나무는 재질이 질겨 도리깃열과 회초리를 만들때는 옷놀이나무를 제일로 친다는 말이다.

- 도계아들은 옷놀(놀)이낭 말뚝(뚝)은 솔피낭.(도리깃열은 옷놀이나무, 말뚝은 솔비나무)

탈곡용 도리깃열은 옷놀이나무로 만든 것이 질기고 단단해 좋으며 말뚝은 솔비나무가 제일이라는 말이다.

자갈이 섞인 땅에 말뚝을 박기위해서는 나무 재질이 강하고 단단해야하는데 솔비나무가 말뚝용으로는 좋다는 말이다.

- 두루애기¹⁹⁾도 담에 오른다.(하늘타리도 담에 오른다.)

하늘타리는 박과식물로 덩불이나 담, 나무를 타고 올라 열매를 맺는데 하늘타리와 노랑하늘타리로 나뉜다. 방언으로는 ‘하늘애기’는 하늘타리, ‘두루애기’는 노랑하늘타리를 말하는데 노랑하늘타리는 하늘타리보다 작다.

그러나 자생력은 열매가 큰 하늘타리에 비해 뒤쳐지지 않아 높은 담벼락에도 덩굴을 뻗어 올린다.

멀쩡한 용모와 체구에도 제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을 빗대어 두루애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식물도 제 노릇을 한다며 꼬집는 말이다.

- 물이랑 지커건 산짓물 지곡, 낭이랑 지커건 돛박낭 지라.(물은 지려거든 산짓물 지고, 나무는 지려거든 동백나무 지라)

옛날은 등짐으로 물을 지어다가 마셨는데 그 대표적인 샘물이 제주시 산짓물이다. 나무는 질이 단단하고 무거워 종이 잘 안 쓰는 동백나무를 져야 나무를 한 맛이 난

19) 두루애기=노랑하늘타리

다고 본 것이다.

이왕 할일이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말이다.

• 봄죽은 가시자왈에 걸어져도 잔다.(봄 잠은 가시덤불에 걸어져도 잔다.)

겨울을 넘기고 봄철로 접어들면 온 몸이 나른한 춘곤증에 시달린다.

봄잠은 참으려 해도 자꾸 졸려오는 데 가시덤불에 몸등이가 걸쳐도 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온갖 가시들로 이뤄진 가시덤불에 걸쳐 졌으니 오직 아프겠는가만 잠이 올 정도니 봄철 잠은 떨쳐 버리기가 무척이나 힘이 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소나무는 해피곡, 참나무는 마디다.(소나무 숲은 해피고, 참나무 숲은 마디다.)

옛날 숲은 겨울철 난방용으로 필수적이다.

숲은 소나무로도 굽기도 하고 참나무로 굽기도 하는데 나무 재질에 따라 소나무숲은 해피서 쉬 불이 삭아지고 참나무 숲은 마디어서 불기가 오래간다는 말이다.

그래서 숲을 구울 때는 가능하면 참나무 숲을 선호하는데 지금도 참나무 숲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 하영 떡쟁(젠) 산드(더)레 올르민 섬피자왈에 발 걸렁(런) 유울영(언) 죽나.(많이 먹으려고 산으로 오르면 덤불에 발 걸려서 이율어서 죽는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곳자왈을 비롯한 산에는 허기를 달래주는 먹을 것들이 있다. 그러나 자왈속에는 가시덤불과 온갖 덩굴이 얽혀져 있어 욕심을 부려 더 많이 먹으려고 덤벼들다간 헤쳐 나오는데 애를 먹게 된다.

또 잘못했다가는 덤불에 갇힌채 발이 걸려 나오지 못하고 이율어서 죽고 만다는 것이다.

• 쿠지²⁰⁾에 쿠지 나곡, 덩걸에 휘초리 난다.(쿠지에 쿠지나고 등치에 회초리 난다.)

나무는 다 그들 나름대로 등치가 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달린 나무가 싹이 터서 자라나고 고목 등치에서는 회초릿감이 돌아나서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20) 쿠지=가시가 달린 나무나 그 가지를 말한다.

필연적인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말로 본 바탕에 어긋난 엉뚱한 것이 생겨날 수 없음을 말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속담과 같다.

- 틀21) 타먹은 하르방 허대듯 혼다.(틀 따먹은 할아버지 수다떨 듯 한다.)

틀은 산딸나무 열매로 산속에서 맛을 볼 수 있는 별미거리다. 산속에서 어찌다 틀을 따먹고 나면 대단한 것을 먹어본 것처럼 자랑하기 바쁘다. 하지만 알고 보면 별 것도 아닌 것을 놓고 대단한 일인양 야단법석을 부리는 우수꽝스런 모습을 지적하는 말이다.22)

21) 틀=산딸나무 열매.

22) 제주어 속담사전 고재환 민속원 2002.

Ⅷ. 꽃자왈과 제주미래

제주도민들에게 꽃자왈은 오랜 세월 삶과 죽음을 이어온 곳이다.

한라산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곳이지만 꽃자왈은 무수한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생명을 키워온 곳이다.

사람들에게도 꽃자왈은 생명과도 같은 곳이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구를 만들고 고기를 잡기위한 배를 만들 때에도 제주도민들은 꽃자왈을 찾아 나무를 캐왔다.

4·3과 같은 가혹한 세상에서 생명이 참혹하게 죽어갈 때도 도민들은 그저 모진 목숨을 이어 보고자 꽃자왈을 찾았으며 먹을 것이 늘 부족한 제주 땅 사람들은 주린배를 채우고자 꽃자왈로 발걸음을 놓았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 무릇 살아있는 이 땅 모든 생명들에게 꽃자왈은 크게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무수한 생명을 품고 있는 땅이다.

이제는 그 가치가 서서히 드러나며 소중한 생명터를 지키고자하는 바람은 커가고 있으나 꽃자왈은 제주섬에 거세게 몰아치는 개발광풍에 무너지고 있다.

꽃자왈은 한라산과 중산간, 해안생태계를 잇는 제주생태축에 있어 허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꽃자왈이 무너진다는 것은 제주생태계에 있어서 생태축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영향은 한라산생태환경을 비롯한 제주의 자연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제주도민들이 생명수라고도 부르는 지하수 함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꽃자왈을 지켜내고 파괴된 제주자연을 복원하는 일은 제주도민의 생존과 제주도 미래를 위해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꽃자왈이 갖는 가치를 다시 한번 찾고 꽃자왈을 지켜내는 일은 제주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반드시 가져야하는 책임이다.

1. 제주바람보다 더 센 자본의 개발바람

지금 제주는 ‘특별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제주를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만들겠다는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가 제주특별자치도²³⁾란 이름아래 추진되고 있다.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제주특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외지자본 유치를 통한 제주도 발전 이상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외지자본을 위한 지역개발론은 지역 환경과 문화, 경제를 파괴할 뿐 당초 기대처럼 새롭게 발전된 사회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많다.

그동안 제주도 지역개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외지자본에 의한 지역경제의 선점과 그에 따른 개발과실의 유출로 지역의 내생적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외지 투자자들은 본질적으로 지역 재투자, 이익의 지역환원, 지역문화의 존중 등에 대해 동기를 가지지 않아 지역사회 내에 협력적 생산관계와 안정적 고용관계를 구축하거나 지역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대만큼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지자본은 개발과정에서 얻은 잉여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반면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는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실제 제주지역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한 해 평균 2721억원이 역외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경제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떠올랐다.²⁴⁾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제시된 고삐 풀린 규제는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제시된 각종 특례, 규제완화, 의제처리, 절차생략 등의 규정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 투자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발규제완화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내에 강한 개발욕구가 존재하고 지방행정권력이 강한 개발주의 성향을 갖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로 이양된 계획 및 개발권한은 지역사회에 신개발주의를 확산시켜 지역 환경의 훼손을 불러올 전망이다.

2. 신음하는 꽃자왈

이미 제주꽃자왈은 개발과정에서 심각한 위협에 놓여있다.

꽃자왈은 용암지질에 근거한 식생특성을 지니고 있다. 꽃자왈은 지리적으로 제한된 데다 일단 꽃자왈용암 특성이 인위적으로 훼손되면 원상태로 복구가 힘들다.

자치도'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자치단체를 구성했으며 자치권 확대와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4) 한국은행 제주본부 2006년 4월 '최근 제주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현황 및 개선방안'

따라서 골프장 건설과 초지조성·개발 등과 같은 인위적 훼손은 꽃자왈 식생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사진 55. 인위적 훼손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두절되는 현장>

도로 개설 등 인위적인 생태축단절과 같은 부분적 훼손이 꽃자왈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

꽃자왈은 제한된 공간을 중심으로 식생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축 단절은 장기적으로 중간 교배 등에 따른 유전자 퇴행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제주도내 개발 방향은 개발 가능지역이 부족한 탓에 해안 저지대중심에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중산간지대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최근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해발 200~800m일대 중산간은 꽃자왈이 주로 분포하는 곳이다.

꽃자왈을 파괴하는 주범은 골프장이다. <사진 56. 꽃자왈내에 골프장이 들어선 모습>

현재 제주도내 운영 중인 16개 골프장 중 7개가 꽃자왈 지대에 있으며 앞으로 개발할 24개 중 6개가 꽃자왈 지역에 걸쳐져 있다.<표 6>

이 가운데 이미 블랙스톤리조트와 라온골프장을 비롯해 7개 골프장이 꽃자왈 지대에 들어섰으며 공사중이거나 사업승인절차에 들어간 골프장도 6곳에 이른다.

표 6. 꽃자왈지역 골프장 개발현황

(단위=㎡)

개발상황	개소	면적	꽃자왈 면적
운영중	7	9,652,307	2,656,337
승인(공사중)	2	2,652,978	300,758
예정자지정	4	5,858,664	3,343,962
계	13	18,163,949	6,301,057

이들 꽃자왈을 포함하는 골프장 13곳이 차지하는 면적은 모두 1816만3949㎡이며 이 가운데 꽃자왈 면적은 630만1057㎡에 이른다.

지금도 제주도가 걸으려는 꽃자왈 보호를 외치지만 생태적 가치가 높은 꽃자왈을

골프장과 개발지구로 모두 허가를 내주고 있어 꽃자왈 보호는 허울뿐인 명분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5만평이상 개발가능 국공유지 가운데 꽃자왈지대가 상당수라는 점에서도 개발자본과 개발자치 세력간 연대가 이뤄질 경우 꽃자왈 파괴는 지속될 전망이다.

꽃자왈 지역에 들어선 채석장도 꽃자왈 식생환경 뿐만 아니라 꽃자왈의 지질·지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꽃자왈지역내에서 채석장은 모두 5곳으로 전체 면적은 343,361㎡다.<표 7>

표 7. 꽃자왈지역내 채석장허가(기운영 포함)상황 (단위=㎡)

소재지	업체	면적	비고
안덕면	H1	94,735	
안덕면	H2	89,700	
안덕면	D	47,504	
안덕면	S1	28,000	허가취소
한림읍	S2	83,422	
계	5곳	343,361	

도로개설이 꽃자왈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사진 57. 꽃자왈을 관통하는 도로>

제주도내 도로개설은 전국 최고수준에 이른다. 도로밀도(km/km²)는 제주도가 1.73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이미 제주도 곳곳이 거미줄같은 도로로 나뉘진 상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꽃자왈지역내 도로 개설이 꽃자왈 환경 특성에 대한 고민없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생태계를 가르는 도로개설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가하면 곡선구간을 직선화하기 위해 꽃자왈 숲을 훼손하는 일도 있다.

꽃자왈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꽃자왈 훼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꽃자왈 파편화현상에 따른 전반적 생태계 변화를 불러온다. 파편화된 현상에서 나타나는 가장자리 효과는 습도와 기온과 같은 미기후를 변화시키며 이로 인해 많은 식물과 동물생태에 영향을 준다.

가장자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난류는 나무를 쓰러지게 하고 숲의 구조를 손상시킨다. 또 고양이와 같은 포식자들이 쉽게 접근해 새와 같은 동물생태에 영향을 주고 소음과 오염 등에 따른 피해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가장자리 효과는 숲 바깥 테두리 150m 이내에서 일어나 수km까지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꽃자왈을 관통하는 도로는 꽃자왈내 서식하는 동물들이 이동하는데도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는데 노루나 족제비 등 야생동물들이 자동차에 의해 희생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밖에 꽃자왈지역내 자연석과 희귀식물 불법도채, 농경지 개간과 같은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자체와 도민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3. 꽃자왈 보전은 미래를 위한 책임

오랜 세월 숱한 생명을 품으며 살아왔던 꽃자왈이 세상에 그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마지막 자본의 이윤수탈을 위한 대상으로 전락한 채 파괴되고 있다.

그나마 최근들어 꽃자왈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면서 환경단체 뿐 아니라 지자체, 정부, 민간단체 등에서 꽃자왈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꽃자왈에 대한 일방주의적 개발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 꽃자왈 보전을 위한 힘이 된다. 그러나 꽃자왈 보전이라는 대중적 공감과 달리 한편에서는 개발이라는 요구를 바탕으로 꽃자왈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전 제주지역언론이 실시한 꽃자왈 보전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²⁵⁾ 결과 제주도민 대부분이 꽃자왈 보전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민들은 꽃자왈을 비롯한 제주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실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론적 판단과는 달리 개인이나 특정 집단 이익과 연결된 경우에는 자연환경은 인간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희생돼야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모순이 나타난다.

이 같은 지역주민들의 인식에는 제주경제에 큰 몫을 차지하는 농업 몰락에 따른 경제적 위기감이 큰 영향을 차지한다.

25) 제주KBS가 2006년 3월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꽃자왈' 도민의식조사 결과에서 '꽃자왈 개발허용 여부'에 대해 도민들은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0.6%였다.

지금까지 개발을 통한 성장위주 정책은 이미 자연이 갖는 수용능력을 초과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권력과 자본이 주도하는 개발은 지역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가 통제마저 벗어난 채 더 심각한 자연환경파괴와 지역 사회, 문화, 공동체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높다.

결국 곳자왈 보전을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지향을 성장위주 개발지상주의 정책에서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 국가안보, 사회보장을 둘러싼 성장과 분배라는 쟁점에서 벗어나 평화와 환경, 문화, 인권과 같은 가치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장밋빛 환상에 빠져 끊임없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반생태적 사회에서 벗어나 지역과 환경이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곳자왈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참고문헌

- 강만익, 2001,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 고광민,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 고기원, 1997. <제주도의 지하수 부존특성과 서귀포층의 수문지질학적 관련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질학과 이학박사 학위논문, 325 p.
- 고기원, 박윤석, 박원배, 2004, <제주도 동부지역의 지하 지질분포와 ^{40}Ar - ^{39}Ar 연대>, 2004 대한지질학회 춘계학술답사, 대한지질학회, p.29~50.
- 고재환, 2002, 《제주어 속담사전》, 민속원
- 김동만, 1999, 《4·3유적, 유물의 현황과 그 보존대책》, 제주4·3연구소
- 김오순, 2005,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김찬흡 등, 2002, 《역주 탐라지》
- 김희동, 1992, 《남사록》, 가영문화사
- 박기화, 2004. <제주도 형성사, 제주도 동부지역의 지하 지질분포와 ^{40}Ar - ^{39}Ar 연대>, 2004 대한지질학회 춘계학술답사, 대한지질학회, p.1~15.
- 생명의숲, 2005, 《숲해설 아카데미》, 현암사
- 송시대, 2000, <제주도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박사학위 논문
- 송시대, 2003. <제주도 꽃자왈지대의 용암. No. 2. 노꼬메꽃자왈용암>.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백록논총
- 송시대, 윤선, 2002. <제주도 꽃자왈지대의 용암 No. 1. 조천-함덕 꽃자왈지대>, 지질학회지 제38권 제3호, p.377~389.
- 송재호 등, 2006, <제주도 꽃자왈의 특성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 안건상, 이현구, 임현철, 1995. <제주도에서 산출되는 화강암에 관한 연구>, 자원환경지질학회지 28권 5호, p.513~518.
- 오창명, 2000, <탐라순력도의 땅이름[地名]>, 耽羅巡歷圖研究論業,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p.251~290.
- 이경호, 1995, 《제주도의 가마》, 태안인쇄사
- 임경빈, 1982, 《나무백과(2)》, 일지사, 288p.
- 정광중, 2004, <꽃자왈과 제주인의 삶>,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 제민일보 꽃자왈 취재반, 2004, 《제주의 허파, 꽃자왈》, 도서출판 아트21

- 제민일보, 1995, 《4·3은 말한다 1권》
- 제민일보, 2000년 4월24일자, 《이야기 제주역사》 조선시대 제주도 목장의 정비
- 제주도, 1994, 《제주도의 민속Ⅱ》
- 제주도, 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625p.
- 제주도, 1997, 《제주도의 민속유적》
- 제주도, 1998, 《제주의 문화재》(증보판).
- 제주도, 2003, 『제주4·3유적 I·II』
- 제주도, 2006, 《제주도지 I~Ⅷ》
- 제주도, 2006, 《한라산총서 I~X》
- 제주도교육청, 1996, 《향토교육자료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1031p.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8, 《제주도의 농기구》
- 제주도의회, 2000, 『제주4.3자료집-미군정 보고서』
- 제주시, 1994, 《탐라순력도》, 로얄프로세스
- 좌승훈·좌용철·김영학 공저, 2001년, 《제주습지기행》, 도서출판 온누리
- 한라일보, 2004년 3월 12일자, 《한라산 학술 대탐사》
- 한라일보, 2004년 8월 25일자,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
- Lee, M. W., 1982. <Petrology and Geochemistry of cheju Volcanic Island Korea>, The Science Reports of the Tohoku Univ. Series III. Vol.X V, No.2.
- Macdonald, G. A., 1953. <Phoehoe, aa and block lava>, Am. J. Sci., v.251, p.169~191.
- Macdonald, G. A., Abbott, A. T., and Peterson, F. L., 1983. 《Volcanoes in the Sea》, The Geology of Hawaii, Univwesity of Hawaii Press., 517p.
- Scarth, A., 1994. 《Volcanoes》, University College Lodon Press, 273p.
- Williams, H. and McBirney, A. R., 1979. 《Volcanology》, Freeman, Cooper and Co., USA, 397p.
- Yi, S., Yun, H. and Yoon, S., 1998. <Calcareous nannoplankton from the Seoguipo Formation of Cheju Island, Korea and its paleoceanographic implication>. Paleontological Society of Japan, Paleontological Reserch, vol. 2, No. 4, p.253~265.